연수자료집 16-S17

『2016년 학교 내 대안교실』 담당자 연수

- 일 시 : 2016. 5. 16(월) 10:00 ~ 5. 17(화) 15:00
- 장 소 : 호텔인터불고대구
- 주 최 : 교육부
- 주 관 : 대구광역시교육청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부설 학업중단예방 · 대안교육지원센터

교육부 대구광역시교육청 DAEGU METROPOLITAN OFFICE OF EDUCATION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부설 학업중단예방 · 대안교육지원센터

『2016년 학교 내 대안교실』 담당자 연수
일 정 표

세부일정(3권역) : 2016. 5. 16(월) 10:00 ~ 5. 17(화) 15:00, 컨벤션홀

첫 째 날 (5. 16. 월)			
시 간		내 용	비 고
~10:00		등 록	
10:00~10:20	20'	인사말씀	
10:20~11:20	60'	**2016년 학교 내 대안교실 정책 소개**	이 용 욱 (교육부 학생복지정책과 사무관)
11:20~11:30	10'	휴 식	
11:30~12:30	60'	**공교육 내 대안교육의 필요와 담당자의 역할**	여 태 전 (남해 상주중학교 교장)
12:30~13:20	50'	중 식	
13:20~14:50	90'	**학교 내 대안교실: 학생 맞춤형 교육기획**	이 승 주 (웅상고등학교 교사)
14:50~15:10	20'	휴 식	
15:10~16:00		**학교 내 대안교실 담당자의 소통과 공유**	
	25'	2015년 대안교실 담당자 협의회 운영사례1 : 경북지역	양 미 경 (김천여자중학교 교사)
	25'	2015년 대안교실 담당자 협의회 운영사례2 : 서울지역	조 광 희 (종암중학교 교사)
16:00~17:00	60'	**2016년 학교 내 대안교실 담당자 협의회 구성**	
17:00~17:20	20'	휴 식	
17:20~18:00	40'	**분임토의**	
18:00~19:00	60'	석 식	
19:00~21:00	120'	**학교 내 대안교실 담당자를 위한 힐링 톡!톡! - 통합예술심리치료(실습) -**	김 상 만 (쉼힐링센터 소장)

※ 주요내용은 강사 섭외 등 추후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둘 째 날 (5. 17. 화)			
시 간		내 용	비 고
8:00~9:00	60'	조 식	
9:00~9:50	50'	**분임토의 결과발표**	
9:50~10:10	20'	휴 식	
		학업중단 위기학생의 이해	
10:10~11:00	50'	학생 무기력의 원인과 해결책	구 본 용 (강남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수)
11:00~11:50	50'	다문화 학생의 특성과 학교적응	오 성 배 (동아대학교 교수)
11:50~13:00	70'	중 식	
13:00~14:30		**학업중단 위기학생을 위한 대안교실 운영 프로그램 사례**	
	30'	행복충전 꿈키움교실	박 선 애 (대현초등학교 교사)
	30'	다함께 성장교실	이 경 원 (진부고등학교 교사)
	30'	진로집중반: 융합협력수업	이 재 영 (영문고등학교 교사)
14:30~15:00	30'	**설문지 작성 및 연수 수료식**	

『2016년 학교 내 대안교실』 담당자 연수

목 차

- 2016년 학교 내 대안교실 정책 소개 1

  ▸ 이용욱 | 교육부 학생복지정책과 사무관

- 공교육 내 대안교육의 필요와 담당자의 역할 17

  ▸ 여태전 | 남해 상주중학교 교장

- 학교 내 대안교실: 학생 맞춤형 교육기획 37

  ▸ 이승주 | 웅상고등학교 교사

- 학교 내 대안교실 담당자의 소통과 공유
  2015년 대안교실 담당자 협의회 운영사례1 : 경북지역 61

  ▸ 양미경 | 김천여자중학교 교사

- 학교 내 대안교실 담당자의 소통과 공유
  2015년 대안교실 담당자 협의회 운영사례2 : 서울지역 75

  ▸ 조광희 | 종암중학교 교사

- 학교 내 대안교실 담당자를 위한 힐링 톡!톡! – 통합예술심리치료(실습) – 89

  ▸ 김상만 | 쉼힐링센터 소장

● 학업중단 위기학생의 이해 : 학생 무기력의 원인과 해결책 101

▸ 구본용 | 강남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수

● 학업중단 위기학생의 이해 : 다문화 학생의 특성과 학교적응 109

▸ 오성배 | 동아대학교 교수

● 학업중단 위기학생을 위한 대안교실 운영 프로그램 사례 1
행복충전 꿈키움교실 131

▸ 박선애 | 대현초등학교 교사

● 학업중단 위기학생을 위한 대안교실 운영 프로그램 사례 2
다함께 성장교실 143

▸ 이경원 | 진부고등학교 교사

● 학업중단 위기학생을 위한 대안교실 운영 프로그램 사례 3
진로집중반: 융합협력수업 15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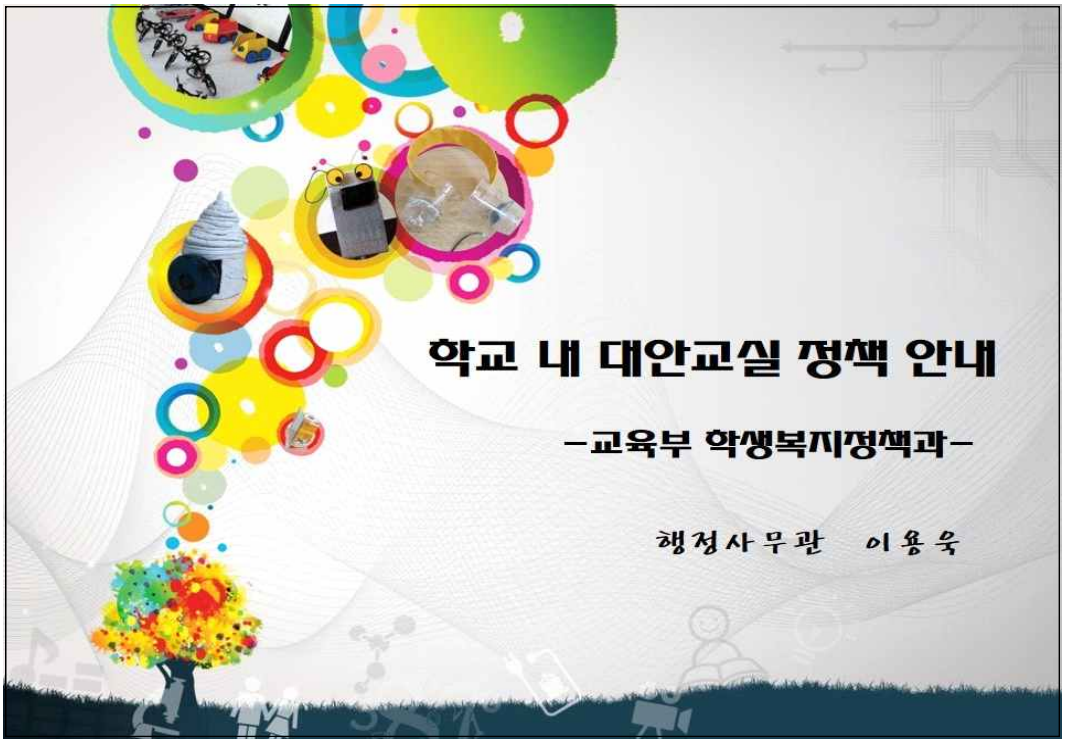
▸ 이재영 | 영문고등학교 교사

● 부록 : 학업중단예방 및 대안교육지원센터 자료 183

2016년 학교 내 대안교실 정책 소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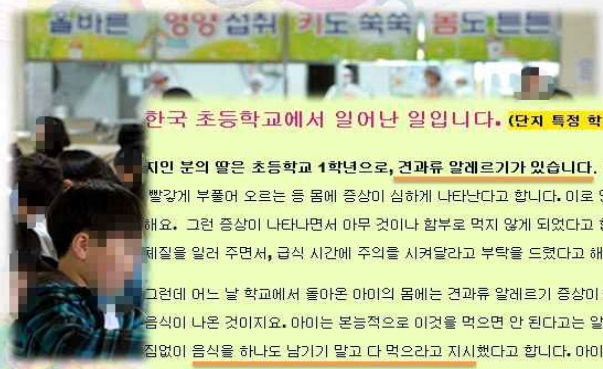
이 용 욱

교육부 학생복지정책과 사무관


학교 내 대안교실 정책 안내
-교육부 학생복지정책과-
행정사무관 이용욱

들어가며

대안교육이란 ?



한국 초등학교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단지 특정 학교의 사연임을 밝힙니다.)

지인 분의 딸은 초등학교 1학년으로, 견과류 알레르기가 있습니다. 아이는 견과류가 들어간 것을 조금만 먹어도 입 주위가 빨갛게 부풀어 오르는 등 몸에 증상이 심하게 나타난다고 합니다. 이로 인해 친구가 주는 과자 혹은 사탕 등도 잘 먹지 않는다고 해요. 그런 증상이 나타나면서 아무 것이나 함부로 먹지 않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 분은 학교 입학 때 담임 교사에게 딸의 특이 체질을 알려 주면서, 급식 시간에 주의를 시켜달라고 부탁을 드렸다고 해요.

그런데 어느 날 학교에서 돌아온 아이의 몸에는 견과류 알레르기 증상이 발견되었어요. 알고보니 급식 시간에 견과류가 들어간 음식이 나온 것이지요. 아이는 본능적으로 이것을 먹으면 안 된다고는 알고 있었지만, 평상시처럼 교사는 학생들에게 한 명도 빠짐없이 음식을 하나도 남기기 말고 다 먹으라고 지시했다고 합니다. 아이는 주저하면서 먹지 않았지만, 교사는 끝까지 다 먹으라고 했다고 하네요. 결국 아이는 그 음식을 다 먹고 탈이 난 것입니다.

같은 목적을 달성하는 다른 방법

특징 1 학습자 중심

특징 2 다양성 인정

특징 3 선택권 존중

학교 내 대안교실 사업

학교 내 대안교실이란?

❖ 추진배경

❖ 학생 한 명 한 명이 적성과 소질에 맞는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공교육 내에서 다양한 대안교육 기회 제공

❖ 학교 부적응 학생, 위기학생 등에 대한 맞춤형 특별한 교육 프로그램 제공 필요

☞ 대안교실의 정의

: 학생들의 다양하고 특별한 교육적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정규 교육과정의 일부 또는 전부를 대체하는 대안적 교육 프로그램을 편성하여 운영하는 별도의 학급

사업 주요 내용
– 학교 내 대안교실 기본 방향

❖학교 여건과 학생들의 필요를 고려, 교육과정을 자율적으로 편성, 운영

❖공공기관, 평생교육시설, 직업훈련기관, 산업체, 문화예술기관 등과 연계하여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 적용

유형 별 운영 형태
– 전일제 사례

전일제 대안교실

- **(형태)** 교육과정의 전부를 대체하는 별도의 대안학급을 편성, 운영
  - 학기제 (1학기, 2학기) 형태 운영 가능
  - 대안교실은 학기 내 상시 운영 중이어야 함
- **(교육과정 운영)** 보통교과 + 대안교과 (*편성 비율은 자율)
  - 보통교과 운영에 있어서 자유로운 교육방식 허용
    ex) 역사신문 만들기, 문학 작품 역할극, 창업과 수학 등
- **(평가)** 대안교실 내에서 중간, 기말고사 실시

유형 별 운영 형태
– 전일제 사례

전일제 대안교실

자료 : 대전 법동중학교

시간	실행과목	내용
1, 2, 3교시	진로 체험활동 프로그램	· 자신의 전공을 찾기 위한 전반적인 체험활동 프로그램 참여 권장 · 외부강사가 프로그램 전용 교실 및 운동장을 활용하여 수업 진행 · 멘토링, 직업체험, 자신의 장래희망 그려보기 등 진로과 관련된 다양한 체험 실시
4, 5, 6교시	일반교과 수업진행	·교과 교사가 수업진행 ·학생의 수준에 맞는 맞춤형 학습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학습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수업 형태로 진행
7교시	방과 후	·학생들의 상황과 필요에 따라 담임교사 면담 및 상담

	월	화	수	목	금
오전	대안교과	대안교과	외부 체험학습	대안교과	자기 주도 프로젝트
오후	일반교과	일반교과		일반교과	

유형 별 운영 형태
– 부분운영제 대안교실

부분운영제 대안교실

- **(형태)** 교육과정의 일부를 대체하는 별도의 대안학급을 편성, 운영
  - 반일제(오전/오후반), 요일선택제, 기수제 운영 등 다양한 형태 가능
- **(교육과정 운영)** 대안교과 중심 (*보통교과 편성 가능)
  - 체험, 진로교육, 상담심리 등을 통해 학생 개개인의 소질, 적성 발현 유도
- **(평가)** 소속 교실에서 중간, 기말고사 실시

유형 별 운영 형태
– 부분운영제 사례

부분운영제 대안교실

자료 : 경남웅상고

구분	월	화	수	목	금
5교시	움직이는 교실 천원의 행복, 다문화가정 및 독거노인 친구되어주기, 천연염색, 요리, 비누만들기, 퀼트, 전통화과자,	L.T.I.	합창	목공예 (부산 두구동 우다다 공방)	L.T.I.
6교시			합창		
7교시			스포츠		
8교시			스포츠		
			스포츠		

자료 : 충남 주산산업고

시간	실행과목	내용
5, 6, 7교시	체험활동수업	▪**월요일**: 심리상담, 미술치료, 음악치료, 공예치료, 놀이치료 ▪**수요일**: 진로상담, 진로 체험 활동(파테쉐, 바텐더, 양식조리, 스쿨팜 등) ▪**금요일**: 문화체험활동, 숲 공동체 활동, 스포츠 활동 등

대안교실 교육과정 운영모형 (예시)

치유 중점
- 예술치료 : 미술치료, 음악치료 등
- 연극치료 : 상황극, 역할극 등
- 신체활동을 통한 치료 : 댄스, 명상, 숲 치료 등
- 전문가 치료 및 상담치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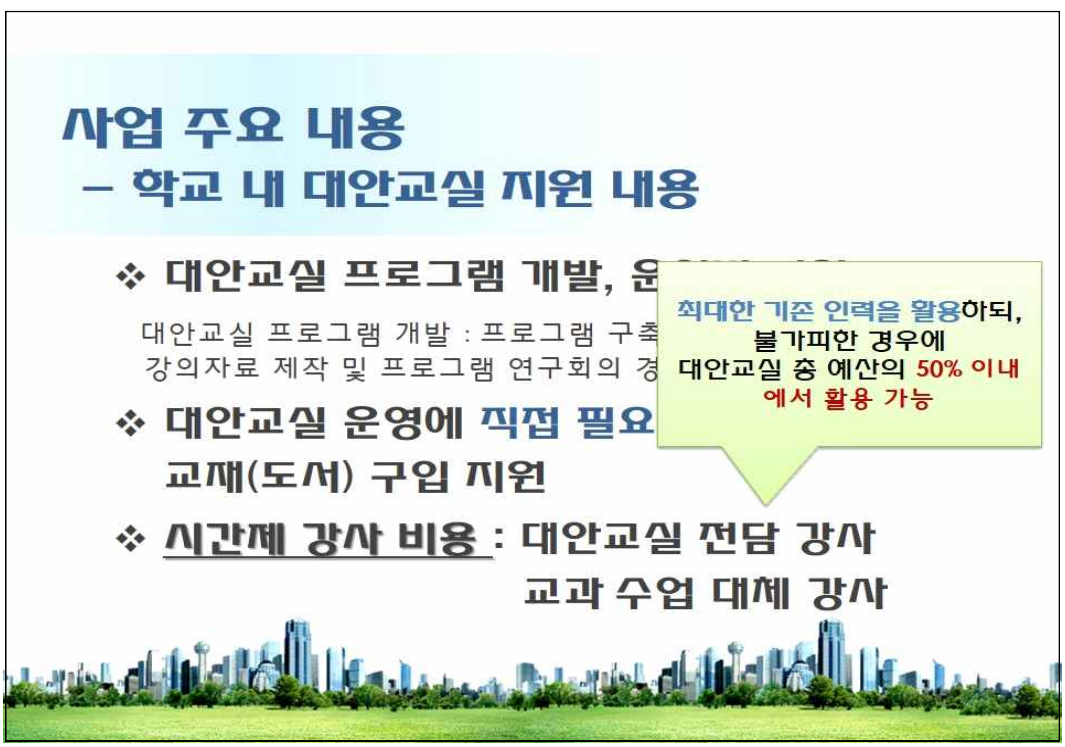
공동체 체험 중점
- 또래관련 : 캠프, 뒤뜰야영 등
- 교사관련 : 사제동행(등산, 영화관람 등)
- 학부모관련 : 부모-자녀 관계증진 프로그램
  부모-자녀 동반 캠프 등

융합형 프로젝트 중점

학습·자기계발 중점
- 기초교육 신장 및 수준별 수업
- 교사 및 또래학습 멘토링
- 문화·예술 및 창작활동 프로그램

진로·직업 중점
- 진로상담 : 진로검사를 활용한 상담 및 자기발견
- 직업탐방 : 경찰서, 기업체, 방송국 등 탐방
- 직업체험 : 바리스타, 제과·제빵반, 목공예반 등
- 창업체험 : 기업가정신, 창업 교육 등

프로그램 예시	운영 내용 및 방법	효과
심리치료	심리검사지를 이용한 개인 심리치료	개인별 심리상태 확인
미술치료	그림그리기를 통해 심리파악 및 치료	〃
역할연구	특정 역할 연극하기	역할극을 통해 직업에 대한 자신감 부여
학교폭력 예방교육	교칙 안내 및 학교폭력과 관련된 Q&A	교칙 이해 및 학교폭력예방
금연교육	청소년 흡연의 폐해 및 금연방법 안내	담배 거부하기
가족공예	가족 공예로 자신의 작품 만들기	자신의 작품을 타인에게 선물
미용 배우기	미용 기술 배워보기 (지역 헤어샵, 또는 미용학원 방문 등)	기술 익히기
기타연주, k-pop 댄스	악기,댄스를 배우며 스트레스 없애기	악기연주를 통해 새로운 취미 획득 장기자랑을 통한 자신감 획득
안전문화시설체험	안전문화시설 체험을 통해 안전교육 필요성 느끼기	소화기 직접 사용 등 실습을 통한 체험
법원 재판참관	재판과정을 참관함으로써 법, 질서 이해하기	재판과정을 보며 법 이해
바리스타 자격증 취득	전문 바리스타 강사의 지도, 지역사회 커피숍 방문 및 인턴 체험 등	진로설계 및 직업 적합성 향상 미래에 대한 열정
장기 프로젝트 (너의 상상이 궁금해서)	자신이 원하는 주제로 깊은 연구 진행 (예: 창업 아이템 개발, 어플리케이션 제작, 건축물설계 등) 전문가 멘토 선정 → 매주 진행상황 검토 → 학기말 발표회	도전의식 고취, 스스로 배움을 찾을 기회 부여
시나리오 작성	연극 극본제작, 자신이 살아온 삶을 극본으로 표현 및 연출 (협조) 연기에 관심 있는 학생이 직접 연기하도록 하며 하나의 완성된 극을 발표함	자신의 이야기를 돌아볼 수 있는 계기, 내면에 숨겨두었던 슬픔이나 말하지 못했던 비밀을 예술로 승화
…	…	…



사업 주요 내용
– 강사 수당 관련

구분	지급대상	단가
특별강사	• 전·현직 장·차관, 국회의원, 대학총장 및 교육감 • 인간문화재, 유명 예술인 등	기본 : 250,000원 초과 : 150,000원
일반강사1	• 대학 전임강사 이상 • 판·검사, 변호, 변리사, 의사, 기술사 등 자격소지자 • 문화·예술 등 특별 분야 전문 강사 • 과장(급) 이상 공무원, 박사학위 소지 4,5급 공무원 • 해당분야 전문가로 특별 및 일반 2-3급, 보조강사 등	기본 : 160,000원 초과 : 120,000원
일반강사2	• 대학 시간강사, 외국인 원어민 강사 • 4,5급 공무원, 장학관, 교감, 장학사 등	기본 : 130,000원 초과 : 70,000원
일반강사3	• 외국어, 체육, 문화, 전산 등 교육프로그램 강사	기본 : 80,000원 초과 : 70,000원
보조강사	• 각종 실기, 실습, 체험 등 보조강사	기본 : 30,000원 초과 : 20,000원

※ [강사료 할증 기준]
• 70-119명 : 20% • 120-169명 : 40% • 170-219명 : 60% • 220명 이상 : 100%가산

사업 주요 내용
– 강사 자격 관련

최소 요건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별표2] 참고

☞ 대학 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로서 담당과목과 동일 또는 유사한 과목을 전공한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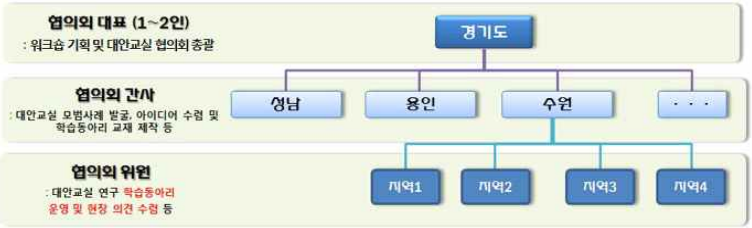
☞ 전문대학 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로서 담당과목과 관련되는 분야에 2년 이상 실무경력이 있는자

☞ 고졸 및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로서 담당과목과 관련되는 분야에 4년 이상 실무경력이 있는자

사업 주요 내용
– 대안교실 운영 교사 협의회 N

❖ 대안교실 운영 교사 협의회

– 시·도별 대안교실 담당교원 워크숍, 모범사례 공유 강사 인력 공유, 학습동아리 교재 제작 등을 담당



☞ **협의회 대표는 지역별 선출이 원칙**이나 간사, 위원의 경우 반드시 지역으로 구분할 필요 없음 (자율적 운영)

사업 주요 내용
– 대안교실 운영 교사 협의회

협의회 주요 역할

- 지역 대안교실 담당자를 대표하여 **정책건의 및 요구사항 제시**
- 협의회 주관 시도별 **담당자 워크숍 실시**
- 시도별 대안교실 **성과보고서 작성 및 유공자 포상 추천**
  - 성과보고서는 관내 대안교실 우수 사례집으로 갈음 가능
  - 성과보고서 제출 시한 : '16.12월 중
    * 시도별 유공자 추천 인원 수는 추후 공지
- 협의회 주관 **관내 대안교실 우수 사례집 제작**
- **학습동아리 운영** : 모범사례, 강사인력 공유 및 교재 제작 등

사업 주요 내용
– 대안교실 운영 교사 협의회

지원 내용

- 지역 단위 워크숍 비용
- 학습 교재 제작비용
- 협의회 회의 및 운영 경비 등

☞ 유의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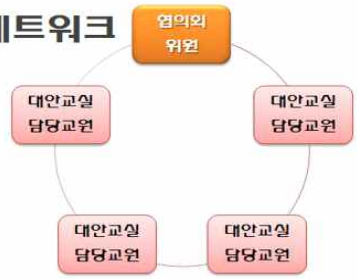
- 협의회를 위한 별도의 사무실 공간 장기임대 및 임대료 지출 불가
  - 소속 학교, 교육청 내 회의실 등 사용 권장
  - 시,도 교육청은 원활한 협의회 운영을 위한 장소 제공 등 협조

대안교실 운영 교사 협의회 활동 모습

사업 주요 내용
– 대안교실 학습동아리

❖ 대안교실 학습동아리란?

: 대안교실 교원 간의 대안교실 운영에 관한 연구를 목적으로 하는 네트워크



- 대안교실 모범사례 공유
- 대안교실 운영 노하우 공유
- 강사 등 전문가 인력 pool 공유
- 대안교실 학습교재 공동개발, 연합 체험학습 추진 등

요청 사항
– 대안교실 운영 시 주의점

❖ 단순놀이방 형태의 운영 지양

- 문제 학생들에 대한 격리 용도로 사용되는 경우 종종 발생 위험 학생에 대한 단순방치문제 지적됨

❖ <u>프로그램 구성 및 운영 시 학생의 참여 등 민주적 분위기 유도</u>

대안교실 운영 관련 FAQ

Q. 1 기자재 구입

대안교실 지원에 해당하는 기자재 구입과 관련해 질문 드립니다.
이번에 대안교실 운영에 필요해 전자칠판 및 노트북을 구입하려고 했으나, 교육청에서 이는 해당사항에 없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과연 **프로그램과 '직접 연관된' 기자재라는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A. 1 기자재 구입

대안교실 지원내용에 대안교실 운영에 직접 필요한 기자재 구입의 의미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학생들이 직접적으로 접하고, 해당 기자재가 없으면 사실상 프로그램 운영 및 목적달성이 어려운 경우를 의미합니다.**
또한 가급적 기존 학교 내 시설을 활용해서도 충분히 목적 달성이 가능한 경우 이를 권장하고 있는 바, 학교에 시청각실 또는 정보화교육실 등 이를 **보충적으로 활용할 기재가 없는 경우에 한해** 컴퓨터 구입은 가능합니다.

대안교실 운영 관련 FAQ

Q. 2 기자재 관련

대안교실 프로그램으로 악기연주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매우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는데, 대안교실에서 강좌형식으로 배우는 악기를 집에 가져가서 개인적으로 연습을 하고 싶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에 악기를 빌려줘도 되는지요. 또는 악기에 재미를 붙인 아이들에게 **악기를 제공해도 괜찮을까요**?

A. 2 기자재 관련

원칙적으로 대안교실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 기자재에 관한 관리 권한 및 책임은 학교에서 담당자를 지정해야 합니다.
또한 대안교실 프로그램 운영예산으로 구입된 악기 등의 **기자재는 학생에게 소유권을 이전할 수 없습니다.**
다만, 사안의 경우 **관리책임을 선생님이 그대로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자율적 판단을 하시는 것은 가능합니다.**
이 경우 분실이나 파손의 책임은 전적으로 담당 교원에게 있습니다.

대안교실 운영 관련 FAQ

Q. 3 Wee class

위클래스와 대안교실의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대안교실과 위클래스를 같이 운영하면 안된다고 하는데 이 이유는 무엇입니까?

A. 3 Wee class

대안교실과 위클래스는 정책의 목표와 취지가 상이한 바 **이에 대한 명확한 정책목표 구현을 위해 분리운영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종종 위클래스와 대안교실 대상자가 같은 경우가 발생하고, 인력적으로나 공간적으로 이를 구별하기 힘든 경우가 발생하는 것을 봅니다.
이에 대해 초기 운영 목적 및 취지가 유지되는 범위 내에서 적절한 교차운영은 허용되나, Wee 사업과 대안교실의 회계는 구분 되어야 합니다.

교육부

대안교실 운영 관련 FAQ

Q. 4 부모교육 관련

대안교실을 운영하다 보니 부모교육이 절실히 필요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에 대안교실 예산을 부모교육에 활용해도 되는지요, 더불어 문제학생에 대한 부모교육을 국가에서 의무적으로 해주실 수 없는지요.

A. 4 부모교육 관련

대안교실 운영에 있어서 학생의 부모에 대한 교육의 필요성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하는 입장입니다. 따라서 **대안교실 구성원인 학생에 한하여 대안교실 예산으로 해당 학생의 부모교육을 운영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의무적으로 부모교육을 강제화 시킬 방안에 대해서는 보다 신중한 접근과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되어 현재 답변드릴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공교육 내 대안교육의 필요와 담당자의 역할

여 태 전

남해 상주중학교 교장

공교육 내 대안교육의 필요와 담당자의 역할

- 꿈과 감성을 일깨우는 행복교육 -

여 태 전

남해 상주중학교 교장

1. 여는 말 : 삶=교육은 만남과 기다림이다

‘교육이란 무엇인가?’ 그것은 ‘삶이란 무엇인가?’를 묻는 것처럼 포괄적이고 광범위한 질문이다. 말이나 글로 다 표현할 수가 없다. 정답이 없다. 정답이 없기 때문에 각자 나름대로 자기만의 답변을 가질 수 있다.

나는 평소 ‘교육은 만남과 기다림이다’고 말한다. 가르치는 사람과 배우려는 사람의 만남 그 자체가 교육의 시작이다. 실제 삶에서는 가르치는 사람이 배우는 사람이고, 배우는 사람이 가르치는 사람이다. 나아가 사람이 자연이나 사물을 통해서 배우기도 하고, 그 자연과 사물이 사람을 알게 모르게 길들이며 가르치기도 한다. 그래서 대상과 대상의 만남 그 자체로서 교육이 성립된다.

그런데 왜 나는 굳이 ‘기다림’이란 말을 덧붙이는가? 만남을 좀 더 강조하고 싶어서다. 만남은 기다림을 전제로 둔다. 어떤 형태의 교육도 기다림을 전제로 두지 않는 교육은 없다. 요컨대, ‘교육은 만남이다.’ ‘만남은 기다림이다.’ 그러므로 ‘교육은 기다림이다.’ 합해서 ‘교육은 만남과 기다임이다.’

그 어떤 만남도 우연은 없다. 다들 때가 되고 인연이 되어야 만나는 것이다. 그게 바로 삶이 아닐까 싶다. 삶이 곧 교육이고, 교육이 곧 삶이다. 교육이 만남과 기다림이라면, 삶 또한 만남과 기다림이다.

“네가 4시에 나에게 찾아온다고 하면 나는 3시부터 벌써 기뻐지기 시작할 거야.”

생텍쥐페리의 <어린왕자>에서 여우가 어린왕자에게 하는 말이다. 누군가를 만나

기 1시간 전부터 기뻐지기 시작한다면 얼마나 행복할까. 아침마다 학교에 가기 1시간 전부터 아이들을 만나는 기쁨에 가슴이 설레는 교사는 행복할 것이다. 아침마다 학교 가기 1시간 전부터 친구들과 선생님들을 만난다는 기쁨으로 가슴이 설레는 학생은 행복할 것이다.

만남과 기다림은 '설렘'을 품은 말이다. 설렘은 '두근거림'이다. 누군가를 만나고 기다리는 일에 가슴이 두근거린다면 그 사람은 살아있는 사람이요, 행복한 사람이다. 설렘은 삶의 열정을 불러일으키는 불쏘시개다. 배움은 설렘과 열정이 합해진 에너지의 산물이다.

지금 우리들 가슴이 만남과 기다림으로 설레지 않는다는 것은 열정이 시들었다는 말이다. 설렘과 열정을 잃어버린 배움터에서 어찌 교육과 삶을 이야기할 수 있겠는가? 설렘과 열정이 시든 나무에서 어찌 배움의 꽃이 피고 행복의 열매가 열릴 수 있겠는가? 안타깝게도 오늘의 학교교육은 아이들의 가슴에 잠재된 설렘과 열정을 끌어내지 못하고 있다. 가르치고 배우는 즐거움을 잃어버렸다. 그래서 우리는 필연적으로 새로운 학교를 간절하게 찾는 것이다.

2. 어떤 관점과 태도로 접근할까?

촛불 하나 밝히기 : "길이 없다고 갈 수 없는가?"

인간이란 어떤 존재인가?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인간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삶과 죽음의 문제를 어떻게 볼 것인가? 진리란 무엇인가? 행복이란 무엇인가? 공부란 무엇인가? 왜 공부를 해야 하는가? 등등. 이렇게 본질적이고 근원적인 질문 앞에서 사람들은 저마다 나름대로 생각들을 가지고 있다. 여기서 바로 그 사람의 가치관, 인생관, 교육관, 세계관이 나온다. 말하자면 삶과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탄생한다. 이런 관점에 따라서 구체적인 삶의 '태도'가 나온다. 결국 교육은, 또는 삶은 '관점과 태도의 문제'에서 출발한다.

인간은 불완전한 존재이다. 그것도 '완벽하게' 불완전한 존재이다. 그러면서도 인간은 완전을 추구하려는 본능이 있다. 이 본능 때문에 인류는 진화하고 역사는 진보한다. 그런데 처음부터 불완전한 존재인 인간이 끊임없이 완전성에 이르고자

하니 과정에서 온갖 갈등과 불행이 싹트는 것이다. 이 사실만 망각하지 않아도 교원으로서 우리는 좀 더 의연하게 학생들을 만날 수 있고, 동료 교원과 다양한 학부모를 편안하게 만날 수 있을 것이다.

> "이대로 살아가기에는, 우리 아이들이나 우리 자신들에게나 인생이 너무나 짧고 소중하다. 진정 길은 없는가? 길이 없다고 갈 수 없는가? 아니다. 길은 만들면 되는 것이다. 어둠을 한탄하기만 할 것인가? 결코 아니다. 어둠은 밝히면 되는 것이다. 낫 한 자루로도 숲 속에 길을 만들 수 있고 작은 촛불 하나로도 큰방을 밝힐 수 있다."
>
> – 양희규, 『사랑과 자발성의 교육』의 '책머리에'서 –

그렇다. 이대로 주저앉아 세상 탓, 제도 탓이나 하면서 쉽고 편안한 길을 가려는 것은 스스로를 속이는 행위이다. 타인의 삶을 섣불리 판단하지 말고 우선 '있는 그대로' 관찰하고 이해하려고 노력부터 시작하자. 우선 나 자신의 관점과 태도부터 성찰하자. 세상에서 바꿀 수 있는 것은 나밖에 없다고 했다.

맑고 밝고 따뜻한 사랑

눈빛이 공허한 학생들이 늘고 있다. 꿈꾸지 않으면 사는 게 아니라고 했는데, 사랑하지 않으면 사는 게 아니라고 했는데, 가슴에 꿈과 열정을 품지 못하고 무기력하게 살아가는 학생들이 늘고 있다.

잠시라도 눈빛을 마주하고 대화하는 것을 힘들어하고 책상머리에 앉아 뭔가에 집중한다는 것 자체가 힘든 학생들. 어른들을 향한 적대감과 경계심으로 정서 불안과 우울증에 시달리며 게임 중독, 담배, 술, 폭력적인 말과 행동으로 영혼마저 어두워지는 학생들. 이 학생들을 어찌할 것인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 중 하나가 아이들의 눈빛이라고 했는데, 그 아름다운 눈빛들이 허무와 냉소에 젖어들고 있다. 태어날 때부터 이런 아이들은 없었다. 다들 축복받으면서 태어난 고귀한 생명들이다. 그런데 양육과정에서 아이들은 부모로부터 먼저 상처받는다. 듣기 싫은 말로, 흔히 말하는 '문제아'가 되고나면 대부분의 부모는 친구 탓, 교사 탓, 학교 탓, 세상 탓, 운명 탓으로 돌리기 십상이다. 물론 일정 부분 그럴 수도 있다. 그러나 성찰적인 눈매로 깊이 들여다보면 문제의 근원이 어머니, 아버지의 지혜롭지 못한 말 한 마디, 행동 하나에서 비롯된 것임을 숨길 수 없다.

가정교육에서 놓친 아이들을 학교교육이 온전히 품어낸다는 것은 처음부터 분명히 한계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책 없이 넋을 빼고만 있을 수는 없지 않은가. 가정의 기능이 약화된 마당에서는 학교, 마을, 지역사회, 정부가 나서서라도 돌봄과 치유의 기능까지 떠안아야 하는 게 지금의 현실이다. 언제까지 서로를 탓하면서 흔들리는 아이들을 외면할 수는 없다. 우리 어른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이 현실을 껴안아야 한다.

평소 학생들을 바라보고 이해하는 관점과 태도를 조금만 달리해도, 그다지 문제될 것도 아닌데 우리 어른들의 가치와 기준으로 섣부르게 판단하여 '문제아'니 '부적응아'니 낙인찍고 차별하는 경우가 많다. 우리 어른들의 무지와 편견과 오해가 아이들을 더 불행하게 한다는 사실을 망각할 때가 많다.

어쩌면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것은 고정관념일지도 모른다. 우리는 세상에 대해서 많은 것을 알고 있는 것 같지만 정작 내 자신에 대해서는 무지할 때가 많다. 내가 잘 안다고 생각하고 불쑥불쑥 행한 일들 때문에 몸서리치도록 부끄러워해본 사람은 안다.

그래서 중국의 루쉰은 '행이지난(行易知難)'이라고 했다. 멋모르고 행하기는 쉬워도 진정한 앎이란 지독히 어려운 문제이다. 소크라테스도 늘 자기는 아무것도 모르고, 다만 자신이 모른다는 것을 알고 있을 뿐이라고 했다. 그래서 논쟁의 결론은 늘 '아직 그것은 모른다'였다. 결국 진정한 앎이란 무지에 대한 반복적인 고백이다. 이 사실을 망각하니 우리는 시시때때로 앎에 속고 이념에 속고 산다.

인간이 이렇듯 무지하고 불완전한 존재이듯이 인간이 만들어낸 그 어떤 이론이나 프로그램도 불완전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 우리가 무엇을 절대적으로 믿고 확신할 수 있단 말인가. 인간이 창조한 종교도 마찬가지이다. 종교의 맹신은 예수님도 부처님도 원하는 바가 아니었을 것이다. 성인들은 하나같이 인간에 대한 조건 없는 사랑과 자비를 강조했을 뿐이다. 사랑과 자비가 행복의 가장 큰 원천이다. 최악의 경우에도 한 인간을 포기하지 않고 축복하고 또 축복하라고 가르쳤다.

그렇다면 나는 어떤 관점과 태도로서 아이들을 만날 것인가. 간디 선생은 "한 사람이 영적으로 성장하면 온 세계가 성장한다"고 했다. 또 "진리의 탐구자는 먼지보다도 더 겸손해져야 한다"고 했다. 이 말씀이 평소 내가 화두처럼 붙잡고 있는 관점과 태도이다. 훌륭한 교사는 문제의 해법을 사람에게서 찾고, 평범한 교사는 문제의 해법을 프로그램에서 찾는다고 했다. 학교에서 아무리 좋은 제도와 프

로그램을 적용한다고 해도 사람을 놓치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

그렇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참으로 소중하다. 반칠환 시인은 “노랑제비꽃 하나가 피기 위해 숲이 통째로 필요하다 우주가 통째로 필요하다”고 했다. 우리가 아이 한 명을 온전히 키워내는 일도 이와 같을 것이다. 그 어떤 탁월한 교육 프로그램보다도 아이들 한명 한명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품어주는 교사의 ‘맑고 밝고 따뜻한 축복과 사랑’이 더 소중하다.

온 몸을 낮추어 아이들 한명 한명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는 교사, 하여 그 아이들과 함께 삶을 나누며 나날이 성장하는 교사가 좋은 교사요 행복한 교사일 것이다. 오늘 하루도 나는 진정 그런 교사로서 살고 싶다.

편견과 오해 : 부적응아, 문제아라는 말에 대한 성찰

“어휴! 고생이 많겠습니다. 대안학교 아이들은 정말 지도하기 힘들지요?”

“대안학교는 부적응아나 문제아들 다니는 학교 아닙니까?”

내가 대안학교에 근무한다고 하면 대개의 사람들은 이런 반응부터 보인다. 그 말썽 많은 아이들 교육시키느라 얼마나 고생이 많겠느냐며 안쓰러워하는 눈빛이다. 그러면서 나를 격려한답시고 이런 말까지도 한다.

“선생님, 정말 좋은 일 하십니다. 참 대단하셔요.”

종종 이런 말을 들을 때면 참 당혹스럽고 안타깝다. 나는 그냥 교사로서 당연히 내가 해야 할 일을 즐겁게 할 뿐이다. 그런데 사람들은 왜 ‘부적응아’란 말과 ‘문제아’라는 말을 어찌 저리도 쉽게 할 수 있을까싶어 은근히 화가 날 때도 있다. 어쩌면 어른들이 무심결에 내뱉는 이런 편견과 오해 때문에 갈수록 ‘부적응아’와 ‘문제아’들이 더 많아지는 건 아닌지 모르겠다.

교사나 학부모 처지에서 학생을 보지 말고 그 학생의 처지에서 바라보면 그런 말을 그렇게 쉽게 할 수는 없을 것이다. 문제 많은 세상에서 아무런 문제의식도 없이 사는 게 오히려 더 큰 문제가 아니던가? 아무런 문제제기도 없이 앞만 보고 맹목적으로 달려가는 게 ‘적응’이라면, 차라리 사사건건 질문을 던지고 저항하는 ‘부적응’이 더 가치 있고 바람직한 일이 아니던가?

영국 서머힐학교 설립자 니일(Neill)의 메시지는 교사로서, 아버지로서 나를 성찰하게 하는 경구이다.

"이 세상에 문제아는 없다. 다만 존재하는 것은 문제 가정, 문제 학교, 문제 사회가 있을 뿐이다."

그렇다. 남 탓이 아니라 곧 내 탓임을 절절하게 깨우치게 하는 말이다. 사실, 우리가 문제라고 생각하는 대부분의 문제들은 문제라고 인식할 때부터 문제가 되는 것이다. 드러난 현상이나 결과부터 보지 말고 동기와 과정부터 이해하려는 태도를 지닌다면 그렇게 쉽게 사람을 분별하고 예단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 사실 우리가 염려하는 문제들은 개인 차원의 문제라기보다는 사회구조적인 문제에서 비롯되거나 어른들이 벌써 빚어놓은 문제의 연장선상에 있다. 그러니 어찌 한 아이들 두고 '부적응아'라는 말을 쉽게 입에 담을 수 있겠는가. 나는 그냥 '새로운 질문을 가진 아이'라고 생각한다. 그 어떤 경우에도 쉽게 '문제아'라고 낙인찍을 수가 없다. 나는 그냥 '새로운 꿈과 희망을 노래하는 아이'라고 생각한다.

우리가 진정으로 학교교육의 혁신을 바란다면 무엇보다도 먼저 위와 같은 인식의 전환이 절실하게 요구된다. 학교에서 아무리 좋은 제도를 도입하고 좋은 교육 프로그램을 적용한다고 해도 아이들을 바라보는 관점과 태도를 바꾸려는 노력이 없다면 우리가 꿈꾸는 행복한 학교는 이룰 수 없을 것이다. 교사나 학부모들이 겉으로 드러난 현상만 보고 분별하는 마음, 성적만으로 서열화하는 마음을 경계하고 성찰한다면 우리 아이들은 지금보다 훨씬 더 행복해질 것이다.

생활이 곧 교육 : "진정한 교사는 가르치지 않는다."

어떻게 하면 아이들의 가슴에 설렘과 열정을 불러일으킬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잠자는 아이들의 가슴을 설레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아이들의 공허한 눈빛을 다시 아름답게 빛나게 할 수 있을까? 내가 새로운 학교, 새로운 교육을 찾아 나선 계기는 바로 이런 질문에서 시작되었다.

간디학교는 늘 내 가슴을 식지 않게 하는 열정과 설렘의 대상이었다. 10여년을 드나들다가 마침내 2006년에 산청 간디학교 교사가 되었다. 그러나 18년 동안 일반학교에 습이 들었던 나는 대안학교 교사로 거듭나는 데 많은 고통이 따랐다. 일반 학교에서 화학 농법으로 농사를 짓던 사람이 이제 대안학교에서 유기농으로 농사를 짓겠다고 선언하고 나선 셈이니 어찌 일상이 힘들지 않았겠는가. 학생 앞에서, 동료교사 앞에서, 학부모 앞에서 나는 하루하루 새롭게 태어나야만 했다.

일반학교에서는 한 개 교과 수업만 맡았는데 간디학교에서는 첫해에 네 개 교과 수업을 했으니 노동의 강도가 엄청났다. 마흔 여섯 나이에 초보 교사로서 다시 시작한 것이다. 내가 예전에 간디학교를 드나들면서 학위논문 쓰고 단행본 책 출간한 일들이 모두다 '고정관념'이었다는 사실을 하나둘 깨달아 갔다. 지난날의 나는 내가 보고 싶은 대로만 보고, 듣고 싶은 대로만 들으며 살아왔던 청맹과니[1]였던 셈이다. 말이나 글로써는 그 어떤 현상과 진리도 온전히 설명할 수 없음을 거듭거듭 깨닫는 날들이었다.

일반학교 있을 때는 내가 꽤 좋은 교사요 괜찮은 어른인 줄 알았는데, 간디학교에서는 고루한 교사요 답답한 꼰대로 전락한 기분이었다. 꿈을 꾼다는 것과 그 꿈을 실제 삶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다른 차원인지 온몸으로 절절히 깨닫는 나날이었다. 나를 객관적으로 성찰하면서 또 다른 내 모습을 발견하는 그 과정은 고통을 넘어 차라리 희열의 순간이었다.

나는 평소 "가르친다는 교만을 버리자. 교사가 먼저 배움의 즐거움에 신이 난다면 우리 교직사회가 엄청나게 변화할 것"이라는 이야기를 자주 한다. 아이들이 배움으로부터 멀어지고 있다고 안타까워하지 말고, 우리 교사들이 먼저 배움이 즐겁고 신나는 일이라는 것을 온몸으로 보여주는 것보다 더 훌륭한 교육방법이 또 있을까 싶다.

인도의 사상가 비노바 바베는 "진정한 교사는 가르치지 않는다. 단지 학생은 그 교사와 함께 있으면서 스스로 배울 수 있다"고 했다. 교사의 존재 그 자체가 교육이 되어야 한다는 의미다. 누군가를 애써 가르치려고 궁리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하루하루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는 수밖에 더 무슨 대안적인 교육이 있겠는가. 삶이 곧 교육이다. 생활이 곧 교육이다.

3. 꿈과 감성을 일깨우는 행복교육

박근혜 정부는 '꿈과 끼를 살리는 행복교육'을 비전으로 내세우고 있다. 경남교육청도 '꿈을 키우는 학교 함께하는 교육'을 주창하고 있다. 우리 교육이 나아갈 방향을 아주 잘 잡았다고 생각한다.

---

1) 겉으로 보기에는 눈이 멀쩡하나 앞을 보지 못하는 눈. 또는 그런 사람. (출처 : 네이버국어사전)

나도 지난 4년 동안 어쩌다 강연 요청이 오면 '꿈과 감성을 일깨우는 행복교육'이란 제목으로 강의를 해왔다. 부제목이 '인문학적 소양과 상상력 기르기'다. 꿈·끼·감성·함께·행복, 이런 단어들을 나도 즐겨 써왔는데, 현재 교육당국이 내세우는 핵심 단어들이 평소 나의 생각과 똑같아서 친근감이 든다.

그렇다면 나는 왜 그동안 한결같이 '꿈과 감성교육' '행복교육'을 강조해 왔는가? 덴마크의 미래학자 롤프 옌센은 정보화 사회, 지식기반 사회 다음에 오는 사회는 '드림 소사이어티(Dream Society)'가 될 것이라고 예견했다. 우리말로 직역하면 '꿈의 사회'가 온다는 말이다.

사실 지금 우리는 한창 정보의 홍수 속에 빠져 살고 있지만, 이와 동시에 우리는 또 다른 형태의 사회를 맞이하고 있다. 지식과 정보가 돈이 되고 행복이 되는 시대에서 '꿈과 감성이 담긴 멋진 이야기'가 곧 돈이 되고 행복이 되는 시대로 들어섰다는 말이다.

드림 소사이어티의 세 가지 핵심 단어는 '꿈, 감성, 이야기'다. <드림 소사이어티>의 저자인 롤프 옌센은 인간의 기본적인 감성 욕구를 자극하는 시장의 사례를 잘 보여주고 있다. 요컨대 미래사회는 상품이 아니라 상품에 담겨 있는 '멋진 이야기'를 파는 사회가 펼쳐진다는 것이다. 그래서 미래의 조직에서 가장 존경받는 지도자는 그 조직의 문화와 이미지를 창조하는 '이야기꾼(storyteller)'이 될 거라고 말한다. 미래사회는 이러한 능력을 더 많이 요구할 것이다. 상품 하나하나에 담겨 있는 이야기가 곧 사람들의 꿈과 감성을 일깨우고 행복한 사람을 만들어간다는 말이다.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 교육현실에서 '꿈과 감성'을 강조한다는 게 너무 이상적이고 낭만적인 접근이 아닐까? 분명히 그런 측면이 있다. 지금 우리나라 교육시스템에서는 꿈과 감성이 풍부한 좋은 '이야기꾼'이 탄생되기는 어렵다. 상상력과 창의력은 지식만 강조하는 입시 위주의 교육환경에서 나오는 게 아니다. 안타깝게도 지금 한국 교육은 '학력 경쟁'이 아니라 '성적과 학벌 경쟁'에 매몰되어 있다. 마치 교육의 본래 목적이 상급학교 진학에 있는 것처럼 오해하고 있는 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철옹성같이 강건한 '입시교육의 우상'을 그대로 두고 '창의 인성교육'을 강조한다는 것은 모순이다.

그렇다면 꿈과 감성이 담긴 멋진 이야기는 누가 어떻게 만들어 낼 수 있을까? 그것은 '인문학적 소양과 상상력이 풍부한 사람'이 만들어 낼 것이다. 그래서 나는 미래형 학교의 교육과정은 바로 이런 점을 착안해서 구성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미래사회는 적어도 서너 가지 이상의 직업을 바꾸어가면서 살아야 하는데, 이때 직업이 자주 바뀌더라도 '공감능력'을 갖춘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행복하게 살 수 있다고 한다. 공감능력이 곧 감성능력이다. 우리가 미래세대에게 길러줘야 할 능력과 품성은 바로 이런 감성능력이다. 나는 이런 능력과 품성을 길러주는 수단이 바로 '인문학'에 있다고 본다. '인문학적 소양과 상상력'을 길러주는 것이 미래교육의 과제이고, 내가 꿈꾸는 '대안교육'이며 '행복한 학교'의 방향이다.

근래 대학에서는 문학, 역사, 철학이 인기를 잃어 인문학의 위기를 말한다. 그러나 학교 밖 사회에서는 일반인을 위한 인문학, 노숙인이나 교도소 재소자를 위한 인문학, 최고경영자(CEO)를 위한 인문학, 마을 인문학 등 다양한 형태의 인문학 강좌가 열리고 있다. 분명히 얼 쇼리스가 쓴 <희망의 인문학>이 새로운 꿈과 감성을 자극하고 있다.

요즘 교육계에서 떠오르는 핵심 단어가 '행복교육'이다. 학교폭력, 학교 중단, 청소년 자살이니 하는 우울한 용어들을 떨쳐낼 수 있는 근본 대책이 바로 행복교육에 있기 때문이 아니겠는가. 블로그 운영으로 유명한 박성숙씨는 독일에서 살면서 자녀들을 학교에 보내는 경험을 바탕으로 최근에 <꼴찌도 행복한 교실>과 <독일 교육 이야기>라는 책을 펴냈다. 이 두 권의 책이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는 간단하다. 한국 사회도 이제 그만 아이들을 무한경쟁으로 내몰고, 제발 '아이들이 행복한 학교'를 만들자는 것이다.

나는 "꿈과 끼를 살리는 행복교육"과 "꿈을 키우는 학교 함께하는 교육"이 헛구호에 머물지 않기를 간절하게 소망한다. 과감한 혁신과 실천이 요구된다. 나도 그 길에 기꺼이 동참하고 싶다.

4. 맺는 말 : 모든 학교는 '행복교육'으로 거듭나야 한다

대안교육의 궁극적인 목적은 '대안학교'라는 말이 없어지는 것이다. 그냥 좋은 학교, 행복한 학교만 있는 것이다. 일반학교다 대안학교다, 공립이다 사립이다, 일류학교다 삼류학교다 등으로 나누고 분별하는 마음부터 졸업해야 한다. 그리하여 대한민국 어디서나 아이들이 행복한 교육이 이루어지는 것! 그런 날이 오기를 간절하게 바라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진정으로 새로운 교육, 혁신교육, 대안교육을 꿈꾸는 사람이다.

사회 구조악을 만든 것도 사람이고 그 구조악을 뛰어넘는 것도 사람이다. 결국 누구 말대로 '사람이 희망이다.' 학교 현장에 한정하여 말하면, '교사가 희망이다.' 한 사람의 교사가 먼저 바뀌고, 한 사람의 교장이 먼저 바뀌면 바로 거기에서부터 우리 교육의 희망은 다시 싹틀 것이다. 뭐니 뭐니 해고 역시 '좋은 교사'가 교육의 '희망'을 만들어간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허구한 날 제도 탓, 세상 탓이나 하면서 말잔치만 벌일 게 아니라, 내가 먼저 일꾼으로 거듭나야 한다. 세상이 온통 흙탕물이라고 한탄하고만 있기에는 우리 아이들이나 내 자신에게 인생은 너무 짧고 소중하다. 내가 먼저, 우리가 먼저 참 좋은 샘물이 되어야 한다. 길은 여럿이 함께 걸어가면 길이 된다고 했다. 어둠을 탓하는 것보다는 촛불 한 자루 밝히는 게 더 낫다고 했다.

바로 이런 정신, 이런 용기, 이런 희망을 노래하는 사람들이 새로운 학교를 꿈꾸는 대안학교, 혁신학교에 모여든 사람들이다. 이들과 함께 '꿈과 감성을 일깨우는 행복한 학교 만들기'에 심혈을 기울일 수 있어 '나는 참 행복하다.' 매일매일 이렇게 '행복하다'고 외치면서 나는 오늘도 '행복한 학교'의 깃발을 흔들고 있다.

"세상의 평화를 원한다면 내가 먼저 평화가 되자."
"내가 먼저 우리가 먼저 참 좋은 샘물이 되자."

ytj747@hanmail.net

부록 : 토론 과제

아래 토론 자료는 여태전 저 <공립 대안 대안 태봉고 이야기>에서 가려 뽑음

공교육 속에서 대안교육, 어떻게 만들어갈까?

□ **태봉고는 설립 당시에는 이른바 학교 부적응아 중심의 학교로 만들려고 했는데, 선생님께서 아이들을 골고루 섞어 뽑아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하시는 바람에 선발 방침이 다소 바뀌었다고 들었습니다.**

■ 제 혼자만의 주장은 아니고요. 2009년 학교 설립 T/F팀 팀장이었던 김용택 선생님을 비롯한 많은 선생님들이 제 주장에 동의해주셨지요. 일반 학교 관리자나 교육청 관료들은 문제아나 부적응 학생들이 다니는 곳이 대안학교라는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었어요.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그분들 중에는 실제 현장경험이 전무하거나 교육의 본질적인 문제에 대한 깊은 고민도 없이 대안학교에 대한 오해와 편견부터 갖게 된 사람들이 많아요.

결국 학생을 바라보는 철학적 관점과 태도의 문제인 것 같아요. 문제아, 날라리, 꼴통, 학교 부적응아 같은 말을 우리는 참 쉽게 합니다. 그런 말로 아이들이 얼마나 상처를 입고 좌절하게 될지 깊이 생각해보지도 않고 무심결에 그런 말을 너무도 쉽게 내뱉는 것 같아요. 그렇게 아이들을 규정해버리면 그때부터 제대로 된 교육은 사실상 불가능해질 수밖에 없죠.

'낙인효과'라는 게 있잖아요. 우리는 너무 쉽게 아이들에게 낙인을 찍습니다. 아직 세상을 제대로 경험해보지도 않은 아이들에게 그런 굴레를 씌우고서 뭘 어떻게 하자는 건지 모르겠어요. 그러면서 새로운 교육 한답시고 대안학교 만들어서 아이들을 자기 맘대로 바꾸려고 하는 거죠. 그러면 소위 문제아들이 다시 '학교 적응아'로 변화될 수 있다고 믿는 거예요. 이 얼마나 안이하고 터무니없는 생각입니까. 사회에 나가기도 전에 학교에서 이미 그렇게 문제아 취급 받은 아이들이 얼마나 깊은 마음의 상처를 느끼게 될지 생각해보세요.

그래서 저는 절대 그런 용어를 쓰지 말자고 처음부터 강력히 주장했던 겁니다. 실제로 그런 친구들이 우리 학교에 온다고 할 때 교장인 저나 우리 선생님들부터 그런 용어를

입에 담거나, 그런 마음으로 아이들을 맞이한다면 이미 교육은 끝난 거라고 생각해요.

어떤 학교든 교육다운 교육을 하려면 다양한 학생들, 그리고 선생님들이 한데 어우러져 생활해야 합니다. 범생이와 날라리, 공부 잘하는 아이와 농땡이 피우는 아이, 잘사는 집 아이와 못사는 집 아이가 저마다 골고루 섞여서 서로를 용납하고 받아들이며 '함께 사는 법'을 배우는 게 제가 꿈꾸는 대안교육의 진짜 모습입니다. 저는 이런 가치와 신념을 학교 설립 첫걸음부터 분명히 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 설립 취지에 맞지 않게 학교를 운영한다는 오해도 많이 받았다고 들었습니다.

■ 네, 지금도 그렇게 오해하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대개는 대안학교의 설립 취지에 대한 견해 차이에서 빚어지는 오해들이지요. 재밌는 것은 처음부터 설립 과정에 동참했던 사람들은 그런 이야기를 안 한다는 겁니다. 대개 그 '주변인'들이 '대안학교는 이런 거야' 하며 막연하게 의미를 규정해놓고는 자기 기준에 맞지 않으니까 책임감 없이 한마디씩 툭툭 던지는 말로 '훈수'를 두는 거죠.

대안학교의 설립 취지를 좁게 보면 학교를 중도에 탈락한 학생을 구제하는 수단으로 볼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교육의 본래 목적을 회복하자는 '새로운 학교 설립 운동'으로 보는 게 맞지요. 단순히 문제아나 꼴통들만 다니는 대안학교를 설립하고자 했다면 저는 처음부터 이 길에 뛰어들지 않았을 겁니다. 그것은 또 하나의 소외집단이나 '수용소'를 만드는 일과 다를 바 없는 일이니까요.

물론 지금 당장 급하니까 치유나 돌봄센터 같은 곳을 만들자는 데는 저도 동의합니다. 다만 학교의 형태보다는 독일의 하임(Heim)처럼 또 하나의 가정형 돌봄시스템을 만들어 운영하고, 학교는 기존의 일반학교를 다니게 하자는 것이지요.

어쨌든, 처음에는 제가 간디학교에 있다가 왔기 때문에 '저 양반이 간디학교처럼 귀족학교를 만드는 거 아닌가?' 하는 근거 없는 오해도 받았지요. 허허 참, 이 선생님이나 제가 그곳에서 같이 지내봤지만 간디학교가 정말 귀족학교인가요? 가치관이나 삶을 공유해본 적도 없으면서 끊임없이 '훈수' 두는 '주변인'들이 만들어낸 '편견'이 무섭더라고요. 제가 지난 4년 동안 이곳에서 했던 소중한 작업 중 하나가 바로 그런 오해와 편견을 불식시키는 일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이제는 생각들이 많이 달라졌다는 걸 느낍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아이들이 바뀌었으니까요. 다시 말하지만 저는 교육에서 소외된 아이들, 이탈한 아이들을 다시 가르치는 가장 '행복한 학교'를 하나 만들어보고자 했던 것이지요. 그렇게 해서 한 명이라도 더 많은 아이들을 살리는 게 설립 취지에도 맞는다고 봅니다.

□ **이른바 문제아들만 다니는 대안학교를 만들면 또 하나의 '수용소'가 될지도 모른다는 취지의 말씀은 어떤 의미이신가요?**

■ 지금 경남만 해도 중간에 학교를 그만두는 아이들이 연간 2~3천 명 남짓 됩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그 아이들을 따로 모아서 특별히 교육하는 학교를 수십 개 만들어도 성공하기 어렵다고 봅니다. 그런 식으로 접근하는 것에는 근본적인 한계가 있기 때문이죠.

모든 문제는 그것을 문제라고 규정하는 순간부터 문제가 되기 시작합니다. 생각해보십시오. 문제 부모 없이 문제 자녀가 존재합니까? 문제 교사 없이 문제 학생이 존재합니까? 문제 사회 없이 문제 청소년이 존재합니까? 우리 어른들은 아이들을 그렇게 규정해버림으로써 어쩌면 문제의 핵심을 교묘히 비껴가고 싶어 하는 건지도 모릅니다. 그런 아이들을 모아놓으면 일반학교는 편할지 모르지요. 뭔가 문제가 생기면 그리로 보내버리면 되니까요. 그래서 제가 '문제아', '부적응아', '중도 탈락자' 따위 말들을 태봉에서는 함부로 쓰지 말자고 주장했던 겁니다.

학교 설립을 위한 첫 공청회 때가 생각나네요. 당시 발제자나 토론자로 나선 분들이 열정적으로 논의에 참여해주셨습니다. 저도 그때 간디학교 교감 자격으로 참석해 말석에 토론자로 앉아 있었지요. 그런데 저는 그 자리에서 논의되는 많은 이야기들을 경청하면서 내심 놀랐습니다. 소위 진보적인 교육자라고 자처하는 사람들조차 태연하게 그런 말을 내뱉었기 때문이죠. 무척 속이 상했습니다.

공청회 말미에 그만 흥분해서 제가 바른 소리를 좀 했지요. 아이들을 그렇게 쉽게 '문제아'니 '학교 부적응아'니 규정하고 판단하면서 어떻게 우리가 대안교육과 대안학교를 말할 수 있느냐고요. 우리는 모두 일반학교에 적응하지 못해서 대안학교를 만들려고 하는 거냐고요. 우리 어른들이 만들어놓은 오늘의 학교와 교육 시스템 하에서 아이들이 필연적으로 불행해질 수밖에 없는 원인을 먼저 성찰하고 반성하려 하지는 않고 끊임없이 아이들 탓만 하는 걸 듣고 있자니 화가 치밀어 올랐어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속에서 걸러지지 않은 말들을 쏟아냈던 것 같아요. 그날 제 말에 깊이 공감해주는 이들도 있었지만 적잖이 놀라는 분들도 많았던 것 같습니다.

□ **어떤 분들은 지금이 문명사적 전환기라고 말합니다. 단순한 정치사적 변화가 아니라는 거죠. 이런 조짐이 가장 뚜렷하게 나타나는 곳이 학교이고, 아이들이 아닐까요?**

■ 기존의 문화나 통념, 혹은 관행에 요즘 아이들이 맞지 않습니다. 무조건 맞추려고 하고 훈육하려고 하면 안 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벌써 '눈치 채'버렸다는 생각을

할 때가 많습니다. 예전에 서태지가 부른 <교실 이데아>의 노랫말은 "됐어, 이제 그만 됐어"로 시작하잖아요.

그 노래가 나온 지도 벌써 20년이 다 되갑니다. 학교가 의미 없는 공간이라고 신랄하게 꼬집은 노래잖아요. 물론 그 사이에 교육이 전혀 바뀌지 않은 건 아닙니다. 그 노래가 나올 무렵 아이들이 많이 죽었잖아요. 그러면서 대안학교들이 하나둘씩 생기기 시작한 거죠. 지금은 전국에 대안학교만 해도 200개가 넘습니다.

□ 조한혜정 교수가 "공략하지 말고, 낙후시켜라"라는 말을 그 무렵에 했었죠?

■ 그 말이 담고 있는 의미가 참 중요합니다. "어둠을 탓하는 것보다 촛불 하나 밝히는 게 더 낫다"라는 사티쉬 쿠마르의 말과 일맥상통하지요. 정치를 바꾸려는 노력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아예 기존의 권력이나 주류문화가 이야기하는 것들 자체를 구태의연하고 낡은 이야기가 되게 만들어버리라는 얘기였죠. 그게 진짜 혁명이라는 것이죠.

조한혜정 교수님은 저 개인적으로도 은혜를 입은 고마운 분입니다. 대안교육계에 끊임없이 창조적인 상상력을 제공해주시니까요. 누구보다도 먼저 아이들이 달라졌다는 것을 감지한 분이죠. 기존의 프레임에 가두고 훈육해서는 안 된다고 제일 먼저 나서서 말했던 분입니다.

□ 앞으로 전국에 공립 대안학교들이 여러 개 더 생길 예정이라고 합니다. 공립 대안학교의 운영 방향은 중도 탈락 학생과 가난하고 소외된 학생들을 우선적으로 챙기는 게 취지에 맞는다고 주장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 교육부나 교육청만 그런 게 아니고 실제 대안교육 운동을 하는 분들이나 진보적인 교사들도 그렇게 말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최근 초기 전교조 운동에 헌신했던 교장 선생님 한 분이 쓰신 책을 읽어보았는데, 그 분도 공립 대안학교의 역할은 바로 그런 아이들을 우선적으로 뽑아 혜택을 주어야 한다고 주장하시더군요. 물론, 저는 그 마음을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은 합니다.

그러나 저는 그게 그렇게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아이들을 위하는 그 마음은 이해하지만, 그렇게만 해서는 공립 대안학교가 확산되기 어렵습니다. 가난한 아이들, 소외된 아이들, 기존의 교육에서 탈락한 학생들만 모아서 교육하는 게 당장은 나무랄 데 없이 좋아 보이지만 오히려 더 비교육적일 수 있다고 봅니다. 교육적으로 이것은 말이 안 됩니다. 교육학자들도 이 점을 놓치고 있어요. 저는 심지어 이런 사고방식을 접할 때마다 진보교육의 교만함을 느낍니다. 공립 대안학교 설립 심포지엄

에 가보면 다 그런 소리를 해요. 지금 당장 힘든 아이들을 먼저 거두어야지, 어떻게 섞어서 뽑느냐는 겁니다.

다급하니까 하는 말인 줄은 알겠어요. 그러나 그런 방법은 교육의 본질을 외면하는 일이지요. 공립 대안학교의 정체성을 그런 관점으로 한정하여 설정한다면 앞으로 큰 시행착오를 낳을 거라고 봅니다. 아니, 벌써부터 그런 시행착오를 낳은 학교들이 있잖아요. 국가가 나서서 엄청난 예산을 투입하여 공립 대안학교를 새롭게 세웠지만 정작 그 학교는 당장 아이들이 오고 싶어 하지 않고, 부모들도 보내고 싶지도 않다면 이 일을 어떻게 설명하고 해석해야 합니까? 거기에 대한 책임을 누가 질까요? 아이들을 '선발'하기는커녕 해마다 정원 채우기도 어려운 상황이 반복된다면 그 문제는 무어라고 설명할까요? 아이들이 일반학교가 싫어서 학교를 떠났다면 그 아이들이 다시 스스로 찾아가고 싶은 학교, 부모들이 믿고 안심하고 보내고 싶은 학교를 열어주는 게 정부나 국가가 해야 할 일이 아닌가요? 그런데 그런 학생과 부모의 심정은 깊이 헤아리지 않고 여전히 가르치는 관점으로, 관리 감독하는 관점으로 교육과 학교를 생각하니 이런 시행착오를 반복하는 거라고 봅니다.

저는 우리가 이 점에 대해서 좀 더 섬세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방향으로 가면 학교를 게토(getto)[2]화할 수도 있습니다. 소외된 아이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친구들입니다. 다른 아이들과 우정을 맺고 싶어 하는 거죠. 우리가 그 점을 놓치면 안 되죠.

□ **그러자면 자기와 다른 존재를 만나야 하겠죠. 자기와 같은 처지의 아이들만 만나지 말고.....**

■ 그렇습니다. 이반 일리치는 "교육의 본질은 우정을 싹트게 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학교는 골고루 섞어야 합니다. 그래야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하고, 다른 존재를 상대할 줄 알게 되죠. 그게 교육 아닙니까! 잘난 놈들 따로 모으고, 못난 놈들 따로 모아서 교육하는 게 소외된 아이들을 위하는 일인가요?

□ **지금 선생님이 하시는 이야기는 공개토론 같은 걸 해 볼만한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공립 대안학교가 설립될 때마다 대단히 중요한 이슈가 될 것 같습니다.**

■ 평생을 진보교육 운동에 헌신하고 아이들을 위해 살아온 분들마저 그런 주장을 하시니 참 답답합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선생님들도 대안학교를 바라보는 인식 수준이 그 정도에 머물 수밖에 없습니다. '꼴통 학교', '문제아 학교'라고 말이죠.

---

2) 중세 이후의 유럽 각 지역에서 유대인을 강제 격리하기 위해 설정한 유대인 거주지역(출처 : 네이버두산백과)

다시 이야기하지만, 제가 그런 아이들을 구제하자는 데 반대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 식으로 학교를 제한해버리면 구제조차 안 된다는 게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겁니다. 교육의 목표를 구제에 둔다는 것도 사실 문제가 있죠. 그런 교육에만 매달리다 보면 교사들도 금방 지치고 맙니다.

아이들도 학교에서 차별받고 지내면서 상처가 있는데, 학교 자체가 차별화된 학교라면 아무리 좋은 걸 가르쳐도 변하지 않습니다. 이런 문제를 고민할 때 저는 '교육이란 무엇인가'라는 본질적인 질문을 놓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교육의 근본을 생각하지 않으면 교육은 금방 기능주의로 변질됩니다. 이걸 놓치니까 불쌍한 아이들을 거두어야 한다는 좋은 마음으로 학교를 세우는데도 성공하기가 그토록 힘든 겁니다.

□ 그런 대안학교라면 오히려 교육문제를 대신 처리해주는 곳으로 전락할 수도 있겠군요.

■ 그렇습니다. 공립 대안학교를 자꾸 지어서, 문제 있는 아이들은 그쪽으로 보내고, 문제없는 아이들만 일반학교에서 잘 가르치자는 발상이 의식의 밑바탕에 깔려 있는 것 아닙니까. 교육문제를 그런 식으로 해결하려고 하면 오히려 모순은 모순대로 남아 있고, 변명거리를 합법적으로 제공해주는 역할을 공립 대안학교가 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좋은 제도를 만든다면서 문제를 해결하기보다 더 확산하는 예는 지금까지 교육계에 수도 없이 많았습니다.

□ 선생님들도 힘든 아이가 있으면 공립 대안학교로 보내는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겠지요. 좋은 학교 하나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전에 인간이라는 존재를 어떻게 보는가, 사람을 가르친다는 것은 무엇인가 하는 문제에 대해 깊이 성찰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습니다.

■ 다른 문제에서는 통합 교육을 해야 한다고 하면서, 유독 이 문제만은 분리 교육을 주장하는 것은 논리적으로도 맞지 않습니다. 장애 아이들만을 위한 학교를 잘 지은 다음 모든 장애 아이들을 그 학교에 모아 가르치면 된다고 주장하는 것과 무엇이 다릅니까. 일반학교에도 장애 편의시설을 설치하고 통합 교육을 실시하는 이유가 뭔지 생각해보세요. 장애아들만 모아놓고 교육하는 게 좋은 교육이 아니라는 걸 이제는 다 인정하지 않습니까. 진보교육 진영에서조차도 공립 대안학교의 방향 설정에 대해 근본적으로 착각하고 있습니다. 책을 봐도 그렇고, 토론을 해봐도 그렇습니다.

□ 선생님은 '공립 대안학교 3퍼센트 설립 운동'을 제안하셨죠. 왜 3퍼센트입니까?

■ 바닷물이 썩지 않는 이유는 '3퍼센트의 소금'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게 좋은 상징으로 제 마음에 와 닿았습니다. 공립 대안학교가 3퍼센트가 된다면 공교육도 바꿔낼 수 있다는 믿음이 생긴 거죠. 어느 조직에 몸담아 봐도 항상 그 정도의 사람들이 있어서 그 조직이 건강하게 유지되고 굴러가는 걸 무수히 보았습니다.

3퍼센트의 소금 기능을 하는 학교가 있다면 저는 희망이 있다고 봅니다. 그런 학교가 희망을 보여주면 다른 학교 교사들도 대안을 고민하게 되고, 쉽게 좌절하거나 포기하지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

3퍼센트의 학교가 제대로 교육하고, 아이들을 차별하지 않고, 주체적으로 살아가는 아이들을 키우면서 가능성을 보여준다면 다른 학교들의 변화도 이끌어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학교를 이제는 굳이 '대안학교'라고 부를 필요도 없습니다. 제대로 된 교육을 하는 곳이라면 그런 용어조차 불필요합니다.

대안학교라는 말도 사용한 지 어느덧 20년이 다 되었습니다. 이제 좀 낡은 말이 된 감이 있죠. 이 용어 때문에 쓸데없이 생기는 오해와 편견도 적지 않습니다. 저는 경남에 태봉고 같은 학교를 초등학교 열 개, 중등학교 열 개, 고등학교 열 개 정도 만드는 게 꿈이자 목표입니다.

□ 실제로 권한을 갖고 있는 교육청의 교육감이나 교육 관료들이 이런 학교를 확산시키는 데 적극적으로 협조하리라고 보십니까?

■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설득하고 가능성을 보여준다면 그들의 의식도 바꿀 수 있습니다. 교육 관료들을 너무 경원시하면 안 됩니다. 끝까지 설득하고 비전을 보여주면 얼마든지 바뀌어갈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 그러니까 태봉고의 사례가 참 중요하겠군요. 보여줄 수 있는 게 있으니까.

■ 우리 학교 지원자 중 2/3는 탈락합니다. 어쩔 수 없는 일입니다. 태봉고의 잘못이 아니죠. 대안학교가 부족하니까 이런 일이 생기는 겁니다. 이런 교육을 받고자 하는 아이들을 다 품어 안을 수 있을 정도로 학교를 더 만드는 일밖에 다른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선 급한 대로 두 개 정도는 더 하루라도 서둘러서 만들자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새 학교를 짓자면 비용이 많이 듭니다. 그러니 폐교 직전에 있는 학교를 개조해서 대안학교로 전환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위

해 학교가 반드시 시골에 있을 필요도 없습니다. 대도시에도 있고, 도시 근교에도 골고루 하나씩 있어야 합니다.

그러려면 교사들을 재교육하는 게 무엇보다 급한 일입니다. 수업을 바꾸고 학교 운영을 새롭게 하려면 교사 재교육은 필수적입니다. 태봉고의 사례를 통해 가능성을 제시하면 교사들도 차츰 변화해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학교 선생님들은 벌써부터 걱정합니다. 이런 교육을 하다가 일반학교에 가서 다시 입시교육을 어떻게 할지 걱정스러운 거죠. 교사들을 위해서도 공립 대안학교가 더 많이 생겨야 합니다. 아이들에게나 교사들에게 학교 선택권을 폭 넓게 주어야 합니다.

대안학교 설립 운동은 인문계를 없애자는 게 아닙니다. 그런 교육이 필요한 사람은 그런 학교에 가고, 이런 교육을 원하는 사람은 이런 학교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게 해야죠. 학교를 다양화해야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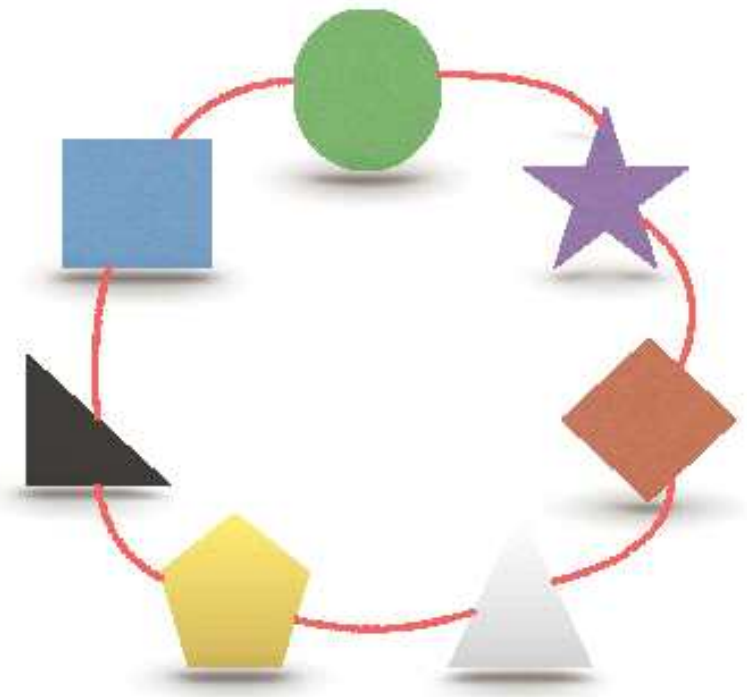
학교 내 대안교실 :
학생 맞춤형 교육기획

이 승 주

웅상고등학교 교사

대안교육 프로그램 기획과 운영

- 교실을 포기한 담임 선생님...



일반학교 내 대안교실 운영 선생님들께...

2016년 봄, 간절한 마음으로...

교육부

차 례

서론

대안교육의 정당성

본론

학교 내 대안교실 기획 및 운영에서 피해야 하는 것

웅상고등학교 대안교실

'바람의 학교' 대안교육 프로그램

웅상고등학교 대안교실 프로그램의 전환

제안

대안교실 운영 프로세스

대안교실 운영의 원리 Fun fUn fuN

서론

대안교육의 정당성

대한민국 교육부는 2014.4.1.에 학업중단과 관련된 보도자료를 발표하였다. 주된 내용은 2013년에 비해서 학업중단 학생이 크게 줄었다는 것이다. 정확하게 전년대비 7,620명이 줄었다. 2013년도에는 학업중단학생이 68,188명이었는데, 2014년도에는 60,568명으로 약 11.2%가 감소하였다. 상당히 고무적이고 기쁜소식이다. 도대체 뭘 어떻게 했길래, 이러한 획기적인 성과를 올릴 수 있었을까? 교육부와 시도교육청, 단위 학교의 노력에 박수를 보낸다.

그런데 통계를 자세히 살펴보면 고등학교의 학업중단률은 여전히 심각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014.4.1. 자로 초등학교 15,908명, 중학교 14,278명, 고등학교 30,382명이 학업을 중단하였다. 초등학교와 중학교의 학업중단 학생수를 합친 것보다 더 많은 수가 고등학교에서 학업을 중단하고 있다. 한해 3만명 이상의 고등학생이 무장해제된 채로 야생으로 내동댕이 쳐진다는 이야기이다. 이러한 학업중단 학생들을 막아야 하는 이유에 가장 큰 힘을 실어주는 데이터는 범죄자 중 약 75%가 학업중단 학생이 차지하고 있으며, 고교졸업자가 고교 학업중단자보다 일생동안 약 3억원 가량을 더 번다라고 하는 High School Dropout statistics(2013) 통계자료이다.[1] 이 자료에 근거해서 많은 교육학자들과 사회학자들은 학업중단 학생을 막는 것이 사회적 비용을 줄이는 것이고, 비록 학업중단 위험군에 놓인 학생들에게 일반학생들보다 더 많은 돈을 투입하더라도 학업중단만 막을 수 있다면 그렇게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인다. 이들의 주장은 사실에 근거했기 때문에 설득력을 가질 수 밖에 없고 또한 학교에게는 학업중단학생을 반드시 줄이거나 zero로 만들어야 한다는 사명감을 심어주는데 전혀 부족하지 않다.

흔히 근대 철학의 실수에 대해 논할 때, 무어(G.E.Moore)의 '자연주의적 오류'는 빠지지 않는다.[2] 자연주의적 오류를 간단히 설명하자면, '사실이 당위를 이끌어낼 수 없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서 내가 대머리라는 사실 때문에 대머리 협회에 가입해야하는 것은 아니다. 마찬가지로 고등학교 학업중단 학생이 한해 3만명이 생기고 그에 따른 사회적 비용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간다고 해서 학업중단을 당연히 막아야 한다는 것은 아니다.

---

[1] High School Dropout statistics(2013). http://www.statisticbrain.com/high-school-dropout-statistics/

[2] 선을 어떤 종류의 자연적인 성질이라고 주장한다든가 혹은 그런 성질들의 복합체라고 주장할때 발생하는 오류로 무어(G.E.Moore)가 제창하였다. 무어는 그의 책 「Principia Ethica」(Cambridge: Cmgridge University Press, 1903.P.10.)에서 "너무나 많은 철학자들이 다른 성질을 지칭하면서 선을 실제로 정의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사실상 이러한 성질들은 '다른' 성질이 아니라 절대적으로 그리고 완전히 선과 동일한 것으로 생각한다. " 이러한 무어의 주장과 더불어 사아키안(W.S.Sahakian)은 그의 책 「Ethics: An Intrduction to Theories and Problems」(New York : Harper & Row, 1974, p.250.)에서 "선이란 단지 욕구의 대상에 불과하다고 말하거나 다른 어떤 형태의 윤리학적 자연주의를 제창하는 것도 자연주의적 오류를 범하는 것이다."라고 주장하였다.

이에 근거해 보면, 앞서 언급한 교육학자들과 사회학자들의 경제적 논리에 따른 학업중단예방 주장은 '자연주의적 오류'에 함몰되어있다. 그런데 조금 더 깊이 생각해보면, 단순히 철학적 오류라고만 보기에는 어려운 교육적 문제가 내포되어 있다. '학업중단예방'을 경제적 논리로 바라 볼 때 생기는 교육적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학업중단학생들이 미래에 벌일 엄청난 사회적 비용을 줄여야 한다는 생각은 교육을 경제적 논리로 보겠다는 뜻이다. 학생 한 명 한 명을 돈으로 환원할 수는 없다. 학생은 돈으로 환원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 어떠한 비용이 들더라도 우리 사회 모든 구성원이 품어줘야 할 대상이다.

둘째, 경제적 논리에 따른 학업중단예방 교육 프로그램은 학업중단에 관련된 데이터를 생산하는데 급급할 수밖에 없다. 경제는 데이터에 아주 민감하게 반응하기 때문이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데이터 수치 속에 숨겨진 서사(narrative) 곧 이야기를 알기 어렵다는 데에 있다. 데이터로 가리워진 학생들의 속 이야기들은 다시 곪아서 언제 터질지 모른다.

셋째, 경제적 논리로 학업중단예방 교육 프로그램에 접근하다보면 학생들이 왜 학업을 중단하려고 하는지에 대한 본질을 놓치게 될 가능성이 크다. 즉 학업중단의 근본을 치료하기 보다는 드러나는 현상을 바꾸려는 교육적 시도가 늘어날 수 있다. 만약 학업중단이 많은 어떤 특정한 학교에 학업중단을 막기 위한 예산을 내려주게 되면 학업중단 위기에 놓인 아이들에게 임시방편적인 갖가지 대안 프로그램을 적용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상부에서 특수한 현상을 막기 위한 목적으로 돈을 내려줬기 때문이다. 하부 기관에서는 현상 이전의 본질을 생각하기가 어렵다. 학업중단 위기에 놓인 학생들을 단지 1학기나 1년정도 학교를 더 다니게 하기 위해서 일반 교육과정에서 빼서 여행을 가거나 직업 체험을 하는식의 땜빵식 교육을 할 가능성이 크다. 이는 좀 더 근본적인 논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본론에서 구체적으로 다루도록 하겠다.

그렇다면 대안교육의 정당성을 어디에서 찾을 것인가?

최근 SBS 창사특집 바람의 학교 제작진은 전국 1천명의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48%의 학생들이 평소 학교를 그만두고 싶다는 생각을 한다고 보고되었다. 절반 가량의 학생들이 학교를 그만둘 수 있는 잠재적 대상자라는 것은 놀랄만한 사실이다. 더욱 놀라운 사실은 성적 상위권 학생들이라고 할지라도 희망진로가 없다면 희망진로가 없는 성적 하위권 학생들과 비슷한 학교 부적응도를 보인다는 것이었다. 반면에 성적은 하위권이라도 희망진로가 뚜렷한 학생들은 학교적응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결론적으로 학교 적응 수준은 성적과는 무관하며 희망진로의 여부에 따라서 학교 적응 수준이 결정된다는 사실이 확인되었다. 이는 초,중,고등학교에서 특히 고등학교 학생들이 학업을 중단하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학교에서 학생이 자신의 미래 비전을 발견할 수 없기 때문이라는 연구가 있다.

그렇다면 48%의 학생들이 자신의 희망진로를 학교 교육을 통해서 찾지 못하고 있다는 것인데, 그 이유가 무엇일까? 다양한 학생들의 특성과 관계 없이 획일화된 성적대로 줄을 세우고 이에 따라 대우하는 줄세우기식 교육문화 줄세우기식 교육은 교육을 경제로 바라볼 때 만들어지는 대표적 산물이다. 아직도 수많은 교육현장에는 산업혁명 시기에 만들어진 교육철학과 교육방식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교육과정에서는 구성주의를 표방하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교실의 학습목표는 철저하게 행동주의로 점철되고 있다. '이번 수업시간이 끝이나면 방적식을 풀 수 있어야 한다.' 우린 동물이 아니다. 미국 메트스쿨의 설립자 데니스 릿키는 '학생들마다 학습의 방식이 다르다.'라고 주장한다. 들어서 학습하는 학생, 읽어서 학습하는 학생, 오히려 말하면서 학습하는 학생, 쓰면서 익히는 학생 등 학생들은 여러 다양한 방식에 따라 학습하기 때문에 획일적인 교육방식은 가히 폭력적이라고도 할 수 있다. 이러한 차원에서 본다면 오히려 우리의 교육이 학생들로 하여금 학업을 중단하게끔 몰아가고 있는 것은 아닐까? 학교를 그만둔 학생들은 차치하고서라도 학교 안에 있는 학생들은 학교에 잘 적응하고 있을까? 현재 대한민국의 학교 교육과정은 학생들에게 희망진로를 심어주기에 적합할까? 어쩌면 대안교육의 정당성은 바로 여기에서부터 찾아야 될지 모른다.

본론

학교 내 대안교실 기획 및 운영에서 피해야 하는 것

일반 학교 내 대안교실은 특수한 임무를 지니고 있다. 첫째, 학업중단을 예방하는 것이다. 이는 일상의 삶이 무너져서 낮과 밤이 바뀌었거나, 감정조절이 안되어서 폭언이나 폭력을 일삼는다거나, 가정에서 충분한 보살핌을 받지 못해서 매사에 우울하고 무기력하며 자살 충동을 느끼거나, 게임이나 인터넷 등에 중독되어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이유 등으로 일반적인 학교 교육과정을 이수하기 어려운 아이들에게 또 다른 교육과정을 제공해서 학업을 계속 이어나갈 수 있도록 돕는 것이다.

두번째 대안교실의 특수한 임무는 입시교육이라는 하나의 트랙만을 제공하는 교육과정에 또 다른 트랙들을 제공해서 같은 트랙에서 일렬로 학생들을 뛰게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트랙에서 함께 뛸 수 있게 만드는 것이다. 이를 통해서 대학입학이나 획일적인 꿈과 비전을 제공할 수밖에 없는 일반 교육과정을 탈피하여 학생들이 다양한 꿈을 꿀 수 있도록 돕고 학생 스스로 학교에서 자존감을 높일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는 것이다.

이것은 일반적인 대안학교에서 학생들에게 제공하는 다양한 트랙 즉 교육과정과 흡사하다고 할 수 있는데, 대안교실의 트랙은 그 의미가 조금 다르다. 대안학교는 그래도 집에서 아이에게 관심이 있거나 아니면 아주 특별한 대우를 해줘야 하는 아이들이 모여있거나 하는 등 소수의 아이들에게 제공되어질 수 있는 교육과정이 운영된다. 물론 좋은 대안학교가 많이 생겨서 많은 아이들이 다양한 교육과정을 경험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현실이 그렇지 않다. 따라서 일반 학교내 대안교실은 어떻게 보면 대안교육을 받아야 하지만 여러가지 이유로 받지 못하는 아이들에게 대안교육을 할 수 있는 유일하면서도 최적의 교육조직이다.

대안교실의 두가지 특수한 임무들을 잘 생각해 보면, 이 막중한 임무를 어떻게 할 수 있을까하는 걱정이 앞 설 수 밖에 없다. 이 걱정은 한마디로 '이걸 혼자서 어떻게 해?'라고 요약될 수 있다. 따라서 학교 내 대안교실 운영을 위해 해서는 안되는 것 중에 제일은 **'혼자하기'** 이다.

필자가 생각하는 가장 이상적인 대안교실 운영 지도인력 구성은 3명이다. 먼저 대안교실 업무를 추진할 수 있는 전담교사가 필요하다. 이 교사는 대안교실의 행-재정적 업무와 프로그램 기획, 학교 내 도움을 주실 선생님 섭외 등을 담당하며, 대안교실의 담임교사 역할을 맡는다. 무기력하거나 때론 거친 아이들과 함께 잘 어울릴 수 있으면 좋다. 이 말은 교육의 본질이 아닌 부분에서는 상당히 허용적이고 관대한 태도를 유지하되 대안교실의 학생이 교육의 본질을 침해하는 행위를 했을 시에는 과감하게 지도를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다음으로 상담교사가 필요하다. 상담교사는 WEE 클래스 업무를 맡고 있고 매일 매일 과중한 상담을 해내고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대안교실의 업무

를 전담할 수는 없지만 대안교실 상담업무 지원은 얼마든지 가능하다. 왜냐하면 WEE클래스에서 관심을 가지고 상담해야 하는 학생들이 대안교실 학생들과 교집합을 크게 이루기 때문이다. 상담교사는 대안교실의 교육 프로그램 실시 전 학생들의 심리적, 관계적 상태를 파악하여 대안교실 프로그램을 기획하는데 큰 도움을 줄 수 있다. 마지막으로 대안교실 업무를 총괄할 수 있는 인성부장이나 학생생활부장이 필요하다. 업무부장은 학교 내 대안교실 업무과 흡사한 예산이나 프로그램 등을 조율하고 학년부장들에게 대안교실 학생들의 교육과정에 대한 이해와 협조를 구하며 나아가서 대안교실 학생들이 학교 밖 지역기관 혹은 유관기관에서도 좋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조정하는 역할을 한다

학교의 여건에 따라서 대안교육 전담팀을 3~5명까지 꾸릴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과연 이 전담팀만으로 대안교실을 운영할 수 있을까? 대안교실을 꾸준히 운영해 온 선생님들 중에 학교 내 동료교사들이 오히려 대안교실의 방해꾼이라고 하소연 하시는 분을 종종 만나게 된다. 심지어 어떤 담임교사는 반일제 대안교실에 아이를 일부러 보내지 않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필자가 만난 어떤 선생님은 왜 이렇게 상태가 안좋은 학생들에게 많은 예산을 쓰냐며 질문하기도 했다.

학교 내에서 운영되고 있고, 운영 되어야만 하는 대안교실은 학교 내 작은 학교라고도 볼 수 있다. 그런데 만약 몇몇 선생님들만 대안교실을 운영에 참여한다면 이 작은 학교는 존재 이유가 없어져 버릴 수 밖에 없다. 또한 험난한 아이들이 속해있는 대안교실을 몇몇 선생님들만 감당하다보면 그 선생님들이 금방 지칠 수 밖에 없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대안교실 연수를 일반 선생님들에게까지 확대할 필요가 있고, 학교장 연수를 3월 중에 열어서 학교 교직원들의 전반적 인식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필자가 제시하고 싶은 것은 단순한 인식의 전환보다 더욱 적극적인 태도의 전환이다. 즉, 모든 선생님들을 대안교실 프로그램에 참여시킴으로서 대안교육을 경험하게끔 하는 것이다.

전 교직원이 함께 대안교실을 운영하는데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적어도 대안교실 운영에 관심과 지지, 격려를 보내주는 교사 그룹을 만들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대안교실에서 해서는 안되는 것은 **'대안프로그램의 병렬식 나열'**이다. 대안교실을 처음 시도했던 2014학년도에는 정말 각종 학교의 좋은 프로그램을 가져오기에 급급했던 것 같다. 도대체 어떤 교육 프로그램을 해야 아이들이 바뀔 수 있을까? 고민하며 전국 여러 대안학교들을 답사했다. 다양하고 창의적인 여러 프로그램들 중에서 웅상고에 적용 가능할 만한 것들을 병렬식으로 교육하였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절에서 언급하겠다. 이러한 병렬식으로 프로그램을 나열했을 경우에 발생하는 가장 큰 문제점은 아이들의 요구를 프로그램에 반영하기가 어렵다는 것에 있다. 대안교육 프로그램일수록 아이들의 요구를 교육과정에 삽일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아이들의 교육적 동기를 끌어내고 흥미와 지속성을 불러 일으키기에는 아이들이 스스로 선택한 교육과정만한 것이 없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것은 쉽지 않다. 웅상고 대안교실 운영 시 겪었던 어려움과 바람의 학교에서 겪었던 고난?의 모든 것은 여기에서부터 시작되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웅상고등학교 대안교실

움직이는 교실

교실은 '잠자는 곳', '감옥과 같은 곳', '강압적인 학습 요구만 있고 나의 이야기가 전달되기 어려운 곳' 이라는 정의는 학생들의 입에서 나온 말들을 정리해 본 것이다. 물론 모든 학생들이 교실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을 가진 것은 아니겠지만 대부분의 학생들이 느끼는 것은 교실은 답답한 곳이다. 특히 교실에서 한없이 무기력한 아이들은 수업 시간에 잠만 잔다. 차라리 떠들거나 활발했으면 좋겠는데, 밤에 뭘 했는지, 낮과 밤이 바뀌어서 낮-학교의 교육과정이 진행되는 시간에는 계속 잠만 잔다. 어떻게 깨울 수 있을까? 라는 고민 끝에 내린 결론은 교실을 움직여 버리자였다. 마치 TV프로그램 '러닝맨'처럼 학생들이 교실 곳곳, 학교 곳곳을 돌며 미션을 수행하게하는데 미션의 내용이 교과내용 혹은 다양한 공동체 체험 프로그램이 되는 형태이다.

이 대안 프로그램의 장점은 먼저, '아이들이 잠을 잘 수가 없다.'이다. 팀별로 미션을 빨리 수행해 내야 승리하기 때문에 잠잘 틈이 없다. 일단 잠을 자지 않아야 뭐든 할 것 아닌가? 두 번째로, 움직이는 교실은 팀별로 협동을 해야 미션을 수행해 낼 수 있기 때문에 unit화 되어 있는 아이들을 unity로 만들 수 있다. 철저히 개인화 되어있는 학생들은 함께 어떤 일, 프로젝트를 해 본 경험이 현저히 부족하다. 아이들로 하여금 공동체가 어떤 힘을 발휘하는지에 대해서 경험해 보게 하여 사회성을 키울 수 있다는 것이 움직이는 교실의 두 번째 장점이 있다. 세 번째로 학습에 대한 흥미도 제고이다. 움직이는 교실의 미션은 다양하게 구성될 수 있다. 예를 들면 국어 선생님을 찾아서 그분이 주는 미션을 팀이 함께 수행해 내는 것이 미션이라면 국어 선생님이 제시하는 미션은 어떤 시를 팀원들이 함께 빠른시간내에 암송하는 것이다. 이러한 방식은 전 교과목에 적용될 수 있다. 하나 더 예를 들자면 꼭 교과내용이 아니더라도, 컴퓨터실에서의 미션은 게임을 아주 잘하는 선생님과 게임을 붙어서 이겨야만 통과되는 미션이다.

Learning Through Internship(Interest)

L.T.I. 프로그램은 미국 매트스쿨에서 시작된 인턴쉽 프로그램이다. 단순히 직업체험을 위한 것이 아니라 직업현장의 멘토선생님과 좋은 관계를 맺어가면서 자신이 스스로 프로젝트를 설정하고 그 프로젝트를 달성해 나가는 과정에서 얻을 수 있는 배움에 주된 목적을 두고 있는 교육 프로그램이다. 우리나라에서는 경남 창원에 위치한 태봉고등학교에서 전교생들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다.

태봉고등학교를 방문하면서 웅상고등학교 대안교실에 이 프로그램을 접목시켜보는 것이 어떨까하는 생각을 했다. 그런데 너무나도 큰 장벽이 존재했는데, 바로 지역사회에서 어떤 멘토선생님들을 구할 수 있을까하는 문제였다. 웅상고 대안교실에 들어온 아이들은 미용사, 도서관사서, 바리스타, 목공장인, 컴퓨터 게임 프로그래머, 자동차 디자이너, 중국어 통역사 등이 되고 싶다고 조사되었다.

사실 아이들의 각종 희망사항을 만족시키려고 생각하니, 너무 막막했다. 그래서 무작정 학교 인근 미용실, 도서관, 커피숍, 목공소, 카센터, 지역아동센타를 다니면서 아이들의 멘토 교사가 되어줄 것을 부탁드렸다. 이런 일이 다들 처음이시라서 그런지 매우 어색해 하셨다. 하지만 학교가 정말 아이들을 생각한다는 마음이 잘 전달되었는지, 웅상고 아이들을 맡아서 멘토가 되어줄 것을 약속해 주셨다. 인턴쉽 초기에는 모든 아이들을 인턴쉽 현장에 데려다 주었다. 안전이 걱정되기도 했지만 과연 아이들이 그 현장에서 잘 해낼 수 있을까하는 걱정때문이었다. 학교에서도 잠만 자거나 문제를 일으키는 아이들이 멘토 선생님들께 혹여나 폐를 끼치진 않을까? 하지만 그런 걱정은 기우였다. 학교에서와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인턴쉽에 참여하는 아이들의 태도가 너무 놀라웠다. 청소 등 허드렛 일도 해야 하는데 마냥 즐거운 표정이었다. 무엇이 이 아이들을 바꾼 것일까?하는 생각 이전에 학교에 대체 아이들에게 어떤 짓?을 하고 있는 것인가 하고 생각하게 되었다.

그 외 웅상고 대안교실에서 했던 일!

1) 강아지 키우기 프로젝트

꿈키움 교실 학생 부모님으로부터 강아지 3마리를 분양받았다. 진돗개이기는 하나 혈통이 아주 복잡해 보였다. 강아지를 분양 받아 오는 그날 부터 순조롭지 않았다. 비가 너무 많이 와서 운전은 커녕 강아지들을 차에 싣기조차 어려울 정도였다. 아니나 다를까 이날 오후, 학교 인근의 모 아파트 축대가 폭우를 견디지 못하고 무너지는 사건이 발생하기도 하였다. 강아지들을 교무실 복도에서 하루를 재우려고 했으나 심각한 냄새 때문에 결국 밤 9시경에 학교 운동장 근처에 비를 피할 수 있는 곳으로 거처를 옮겨야 했다. 당장 다음 날부터 설학줄 교장 선생님은 강아지들의 보금자리를 만들어 주기 위해 동분서주하셨고, 학교운영위원 중 한 분이 울타리 공사를 무료로 해주어서 학교 뒷편 꽤 넓은 공간이 강아지들의 놀이터가 되었다. 목공소에서는 개집 하나를 선물로 만들어 주었다.

학교에서 키울 강아지들의 예방접종은 필수적이다. 그런데 문제는 예방접종 비용이 만만치 않다는 것이다. 일반적인 동물병원에서는 강아지 한 마리당 30만원을 요구했다. 학교의 교육적 목적을 이해한 00백화점 인근 동물병원에서 강아지들을 데리고 오는 조건으로 한 마리당 10만원에 모든 종류의 예방접종을 다 해주기로 했다. 10일에 한 번 씩 총 5번을 강아지를 차에 싣고 양산 덕계에서 부산 동래까지 다녀와야 했다. 다행히 도움반 선생님들과 나누어서 다녀왔지만, 강아지들은 여지없이 차에다가 토를 했다. (강아지를 차에 싣고 이동할 때에는 강아지 케이지와 물티슈는 반드시 갖추어야 한다.) 강아지들 밥은 학교 식당 영양교사와 조리사 분들의 도움으로 비교적 쉽게 해결되었다. 주말에는 꿈키움 교실 학생들 중 한 명이 맡아서 밥을 주러 학교에 나왔다. 목욕과 산책은 쉬는 시간마다 학생들이 돌아가면서 실시하였다. 그러나 매일 매일 확인하지 않으면 강아지들은 방치되었고 모든 것이 담당교사의 일이 되었다. 그렇게 강아지들과 꿈키움 교실 학생들간의 동거는 계속되었다. 초코, 웅이, 상이라고 이름도 지어주었다.

학교에서 강아지를 키운다는 것은 학교와 관련된 많은 사람들의 협조가 필요하다. 학생들에게 정서적으로 많은 도움이 된다는 것이 분명하지만, 행정적 측면이나 교육기관의 차원에서는 여러가지 어려운 점이 많기 때문이다.

2) 합창, 기악, 목공

공동체 의식 함양을 위해 우리는 합창, 기악연주, 목공예와 같은 이성이 아닌 정서를 자극하는 교육 프로그램을 도입하였다. 다른 여러 가지 정서 함양 프로그램이 있지만 굳이 합창, 기악, 목공을 선택한 이유는 일반적인 고등학교에서 운용하기가 쉬우면서도 효과가 클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이다.

'합창'은 하모니 연습을 하는데 아주 중요한 교육 방법이다. 하모니를 위해서는 학생들은 나와는 다른 소리를 들어야 하고 이를 통해 자연스럽게 타인의 말에 귀기울이는 연습을 하게 된다. 이러한 '다른소리듣기'가 일상에서도 일어날 수 있다면, '배려'라는 덕목이 내면에서 자라기 시작하는 것으로 봐도 될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대안교실 학생들 대부분이 노래 부르기를 극도로 싫어한다는 것이었다. 그래서인지 합창반은 잘 운영되지 않았고, 강사 선생님의 스트레스도 이만저만이 아니었다. 평소 수업시간에도 소극적이고, 누군가 앞에서 무엇인가를 말하는 것을 해 본 적도 없고 심지어 생각도 해 본 적이 없는 아이들이 자신의 목소리를 높여서 노래를 부르고 다른 소리를 들어서 자신의 소리를 그것과 맞추는 것이 참 어렵겠다라는 생각도 들었다. 2학기 때에는 좀 더 젊고, 성악을 전공했을 뿐만 아니라 합창지도에 경력이 있는 강사를 어렵게 섭외하였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자 똑같은 문제가 발생하였다. 그래서 우리는 합창 외에도 기악(건반, 기타, 카혼)을 섞어서 가르치기로 하였다. 마침 성악 선생님의 남편이 기타와 카혼 연주가 가능해서 틈틈이 꿈키움 교실 학생들을 지도하였다. 학생들은 가만히 앉아서 무엇을 하는 것보다 몸을 조금이라도 움직이는 것을 선호하였다.

전북 동화중학교의 대안교육프로그램인 목공 수업이 학생들의 정서와 행동 변화에 효과적이라는 보도가 있었다. 이에 우리는 전북 동화중학교를 방문하여 목공의 교육적 효과성에 대해서 직접 눈으로 확인하였다. 목공수업이 대안교실 프로그램에 의미가 있다고 결론을 내렸지만, 막상 목공 프로그램을 운영하자니 목공전문강사 문제는 둘째치고라도 일반 학교에서 목공 도구 및 재료를 놔두고 목공수업을 할 장소가 없다는 것이 가장 큰 걸림돌이었다. 그래서 학교 인근 목공소를 물색하였고, 학업중단 위기에 놓인 학생들 교육에 관심을 보인 '우다다 목공소'에서 목공 프로그램을 실시하였다. 목공 프로그램은 학생들 전원이 큰 흥미를 나타내었고 특히 2학년의 권00, 박00, 이00 학생은 L.T.I. 프로그램도 목공소에서 실시하기로 했다. 연필이 아닌 못과 망치를 들고 뭔가를 뚝딱뚝딱 한다는 것이 재미있어 보였다. 목공강사의 이론적인 설명에도 한 명도 졸지 않고 듣고 있는 모습이 기특하고 신기했다. 매주 목요일 2~3시간 운영하였고 욕실 발판, 책상 발받침 등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이 생산되기도 하였다. 본교 근무 교사들이 주로 구매하였고 모아진 돈은 연말 독거노인을 돕는 데 사용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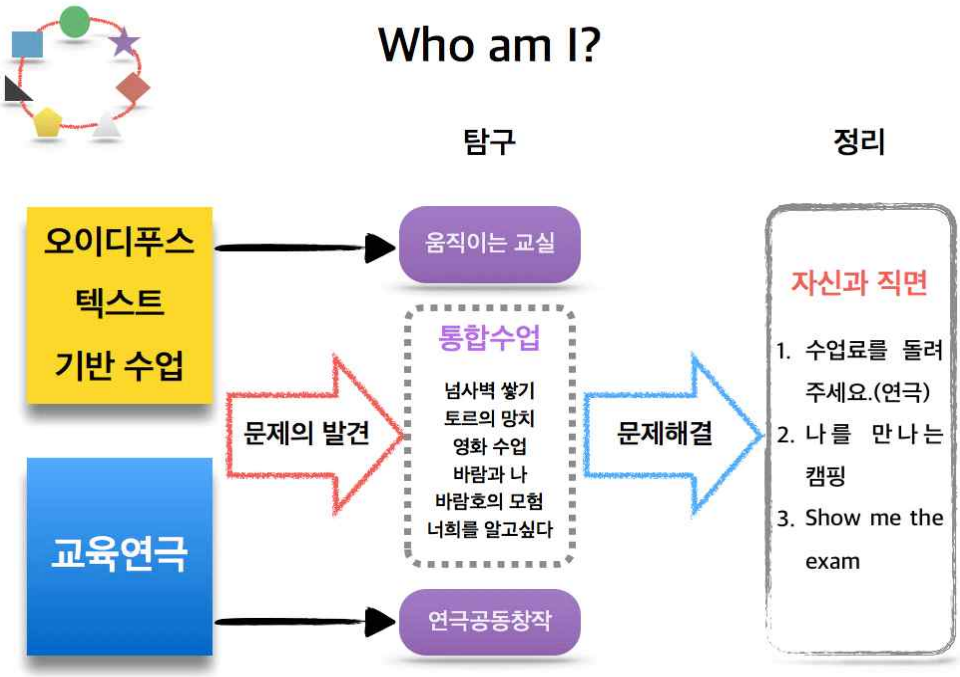
'바람의 학교' 대안교육 프로그램

1. 바람의 학교의 기본 컨셉(수업 BASE)

위 클래스	대안교실(바람의 학교)
대부분 문제의 원인은 학생이고 개인의 문제로 귀결된다. 학생에 초점	학교 교육, 교육과정에 문제가 있다. 즉, 구조의 문제를 지니고 있다. 학교에 초점
상담 BASE	수업 BASE

2. 대안수업의 방향 및 내용

두가지 수업 방향을 설정하였다. 먼저 정체성 수업이다. 이를 위해 기본 텍스트를 '오이디푸스'로 정하였고, 움직이는 교실, 통합수업, 연극을 실시하였다.



움직이는 교실이란?(목적)

첫째, 움직이는 교실은 학생들을 잠에서 빠져나오게 하기 위한 일종의 알람의 목적을 지니고 있다. 움직이는 교실에 들어온 대부분의 학생들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학습된 무기력, 게임중독, 학습흥미정설, 집중력 부족, 지나친 흡연 등 우리 교사가 보기에 학습과는 전혀 멋지 않는 습성을 아주 많이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학생들에게 정지된 교실은 잠자기 딱 좋은 침실과도 같다. 이제 더 이상 정지된 교실에서 학생들의 무기력함만 탓하고 있을 수는 없다. 집에서 깨어야 될 때도 할 것 아닌가? 하지만 우리는 단순히 잠에서 깨어 있는 것을 원하지는 않는다. 우린 초롱초롱한 눈빛을 가진 아이들을 원한다.(to be alert)

둘째, 움직이는 교실은 철저히 개별화(unit)된 학생들을 연합(unity) 시키는데 목적이 있다. 대안교실학생들이 학대에서 보여주는 두 번째 특징은 '이기적'이라는 것이다. 폭력이 심한 아이도 철저히 자기 중심적이고, 학습이나 동료로부터 소외된 아이들도 상담해 보면 철저하게 자기만의 세계를 구축하고 다른 사람이 그 세계에 들어오는 것을 차단한다. 이것은 외부적인 치료나 도움도 필요하지만 개인의 내부적 노력도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말해준다. 내부적 노력을 위해 공동체의식, 협동심, 배려하는 마음, 친절함 등을 배울 필요가 있다.(to be united)

셋째, 움직이는 교실은 학습의 흥미를 불러 일으키는데 목적이 있다. 대안교실에 있는 학생들에게 늘 언제나 그리고 계속해서 심리적 상담, 힐링, 디톡스 프로그램 등만 제공할 수는 없다. 이것 또한 싫증을 낼 수 있고, 대안교육 프로그램 운영자들도 금방 지칠 수 있다. 그래서 지적인 기쁨을 느끼게 해 줄 수 있는 무엇인가를 찾아내어야 한다.(to be interested)

넷째, 움직이는 교실은 모든 교사가 참여하여 학대 구성원들의 공감과,지지, 협조 등을 이끌어 내는 데 목적이 있다. 대안교실은 학교 교육과정에서 소외될 수밖에 없고 이로 인해 대다수의 교사들로부터 관심을 받지 못할 수 있다. 그러나 학교 전체가 관심을 가지고 함께 할 때 대안교실은 성공할 수 있다. 따라서 움직이는 교실 프로그램을 모든 교직원(생정심 포함)이 가진 계능을 포섭할 수 있는 구조로 만들어야 한다.

[1] 움직이는 교실 내면에 목적은 학교의 구조적 문제와 관련이 있다. 대안교육은 학생들의 문제만이 아닌, 교사와 학교의 문제와도 관련되어 있다.

움직이는 교실 - 오이디푸스 2

오이디푸스를 몸으로 익혀라!

오이디푸스 이야기를 재구성하여 새로운 오이디푸스 new ver. 을 만드는 것이 최종 목표이다. 이를 위해 오이디푸스 이야기를 실종적으로 이해하고 몸으로 체험한다. 직소의 방법을 사용하여 팀원들이 각 캐릭터를 경험하게 한다.

팀 조직

미션코스	A 팀	B 팀	C 팀	D 팀
오이디푸스 코스	a	a	a	a
라이오스 코스	b	b	b	b
테이레시아스 코스	c	c	c	c
이오카스테 + 크레온 코스	d	d	d	d

코스별 스토리 라인

오이디푸스 : 출생의 비밀을 풀어라 -> 스핑크스의 수수께끼를 풀어라 -> 오이디푸스 이동경로는?
-> 부어오른발 미션(왕 자리를 차지하라!-라이오스와 버블슈트 대결-)

라이오스 : 신탁의 저주를 풀어라(아폴론의 신탁 제가-국궁-) -> 오이디푸스의 박대기를 피해라
-> 왕좌를 지켜라(오이디푸스와 버블슈트 대결)

테이레시아스 : 육체의 눈은 감고 마음의 눈을 떠라 -> 진실을 함구하라(but 몸으로 말해요)
-> 이오카스테와 크레온은 대체 내게 왜 그러는 거야?(버블슈트 대결)

이오카스테+크레온 : 신탁을 뒤 엎어라(카드 뒤집기) -> 오이디푸스를 알고 싶다.(Phone Bomb)
-> 우린 테이레시아스가 싫어(테이레시아스와 버블슈트 대결)

코스공통미션 : 캐릭터 표현하기, 테베를 점령하라, 친불로 하나되기, 신탁을 숨겨라(신탁지도,암호문

A, B, C, D 팀 최종 미션 : 우린 어떤 관계일까?(a,b,c,d), 오이디푸스 new ver. 만들기

코스별 스토리 라인 미션번호

미션코스	미션1	미션2	미션3	미션4
오이디푸스 코스	수수께끼를 풀어라	오이디푸스의 이동경로	버블슈트대결	캐릭터 표현
라이오스 코스	[illegible]	[illegible]	버블슈트대결	캐릭터 표현
테이레시아스 코스	마음의 눈을 떠라	[illegible]	버블슈트대결	캐릭터 표현
이오카스테 • 크레온 코스	[illegible]	[illegible]	버블슈트대결	캐릭터 표현

코스별 이동 경로(장소)

미션코스	미션1	미션2	미션3	미션4
오이디푸스 코스	주 교실	학교 복도	족구장	연극실
라이오스 코스	국궁장	운동장	족구장	연극실
테이레시아스 코스	학교 건물입구	옥상	족구장	연극실
이오카스테 • 크레온 코스	도서관	주 교실	족구장	연극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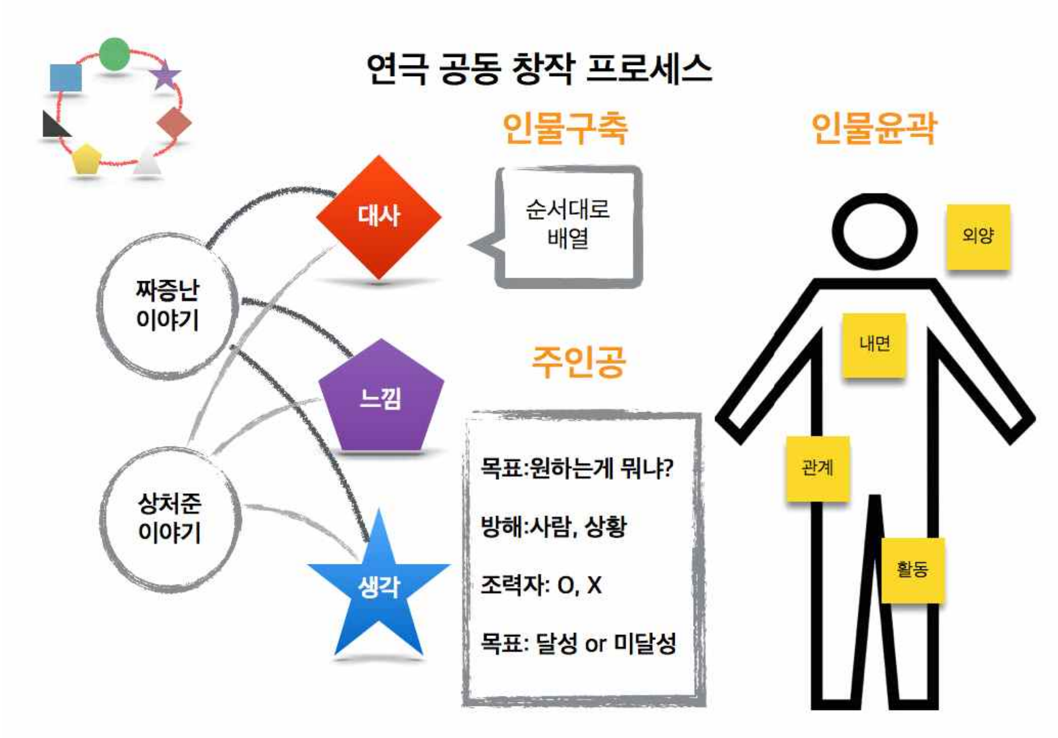
코스별 이동 경로(순서)

미션진행순서	1	2	3	4	5	6
오이디푸스 코스	주 교실	->	학교복도	연극실	교무실 옥상	족구장
라이오스 코스	연극실	교무실 옥상	국궁장	운동장	->	족구장
테이레시아스 코스	학교 건물 입구	교무실 옥상	옥상	족구장	->	연극실
이오카스테 • 크레온 코스	도서관	->	연극실	족구장	교무실 옥상	주 교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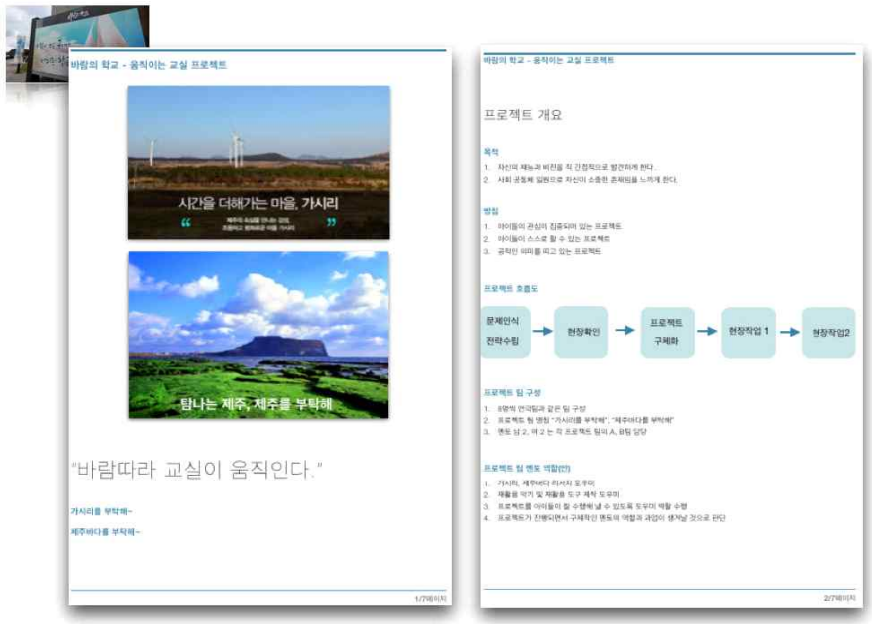
움직이는 교실 - 오이디푸스 4

오이디푸스 코스 세부 사항

시간	장소	담당교사	미션	미션 상세 내용 및 준비물
14:00-14:20	주 교실	이승주	각 팀에게 미션지전달 및 움직이는 교실 설명	
14:20-14:50	주 교실	이승주	수수께끼를 풀어라	스피드 퀴즈 형식의 오이디푸스 왕
14:50-15:20	학교 복도	김장호	오이디푸스의 발걸음	복도에 붙여져 있는 그리스 지도에 오이디푸스의 이동경로를 표시한다. 지도의 경로 표시가 맞게 완성되면 멘토는 다음 이동 코스를 안내한다.
15:20-16:00	연극실	구민정	연극	눈감고 여행하기 오이디푸스 캐릭터 연기 등
16:00-16:30	교무실 옥상	조찬휘	공동체 게임	킨볼로 하나되기, 테베를 점령하라
16:30-17:00	족구장	곽윤찬	라이오스와 대결	왕좌를 지켜라! 뺏어라!(버블슈트)
17:00-18:00	주 교실	이승주	오이디푸스왕 new ver. 만들기	A(a,b,c,d), B(a,b,c,d), C(a,b,c,d), D(a,b,c,d)
				킨볼, 신문지(16절), 버블슈트(8개), 전지(2절), 스피드 퀴즈용 스케치북(1개),



다음으로 '바람이 부는 곳은 어디나 학교다.'라는 수업을 디자인 하였다. 이는 배움이라는 것이 학교 밖에서 더 많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 아래 내용은 학교 밖 프로젝트 수업을 두 팀으로 나누어서 계획한 케이스이다.



3. 바람의 학교 운영 중 발생한 어려운 점들과 느낀 점(에피소드 형식으로)

'바람의 학교'는 한달간만 진행되기 때문에 일반적인 학교에서 3월 한달동안 진행하는 학생파악, 상담 등을 할 수 없다. 그래서 우리가 선택한 것은 상담선생님과 학생이 상담한 문서기록 및 상담 과정 비디오를 보는 것이었다. 바람의 학교 선생님들과 제작진은 개별 인터뷰, 상담을 토대로 학생들을 파악했고 이를 교육과정에 반영하였다. 교사들은 충분하지는 않았지만 어느 정도 학생들을 파악했다고 생각했었다. 그런데 우리가 간과한 것은 한 사람이 단독적으로 인터뷰, 상담할 때의 생각과 행동양식이 공동체 내에서는 완전히 달라질 수도 있다는 것이었다. 실제로 바람의 학교가 시작되면서 개인 상담 및 인터뷰만 가지고 판단했던 학생의 실체가 공동체 내에서는 많이 다르다는 것이 수시로 드러났고 이것은 실제 바람의 학교 교육과정을 정상적으로 운영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가져다 주었다. 학교는 항상 공동체라는 것, 그리고 공동체 내에서 교육이 이루어진다는 것은 당연하지만 너무 당연해서 간과하기 쉽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바람의 학교 입학식을 진행할 때는 망치로 한대 맞는 기분이었다. 당연히 바람의 학교 규칙에 모두 동의하고 일사천리로 진행될 줄 알았던 입학절차는 흡연과 핸드폰 문제로 한 없이 길어지고 말았다. 이 때 비디오로만 보던 학생들이 집단에서는 어떻게 바뀔 수 있고, 평범한 인터뷰가 아닌 자신의 실익과 맞닥드리는 상황에서는 행동과 생각, 말이 어떻게 변하는지 실감하였다. 이러한 학생들의 기본적 가치관, 생활습관, 경향성, 관성이 우리의 생각보다 굉장히 복잡하게 꼬여있고 이것들을 풀어내지 않고서는 교육적인 접근 특히 수업으로 학생들의 삶을 바꾼다는 것은 불가능해 보였다. 아니나 다를까, 이튿날 부터 호준이와 혜림이 소영이는 학교에 나오지 않으려고 했다. 이 학생들과의 씨름은 교사들의 에너지를 방전시키기에 충분했다. 또한 학생들의 흡연문제와 핸드폰 중독 문제는 심각했다. 당연히 모든 수업들은 잘 진행될리가 없었다. 난 이 때 '어디까지 참아야 하는가?'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하였다. 우선순위를 따져보니 바람의 학교는 학생들의 변화에 초점 맞추어져 있고 이를 이끌어내기 위한 목적이 가장 최우선순위였다. 또한 학생들의 생활태도문제가 그대로 드러나서 학부모들이나 한국사회에 던져지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았다. 그래서 첫 주까지는 모든 것을 참기로 했다.

교육적 변화를 기대하며 계속 참았다. 모든 선생님들의 수업 시간은 그야말로 전쟁이었다. 잠자는 학생들을 깨우고, 하기 싫어하는 것을 달래가며 수업을 진행하였다. 그러다가 '자유란 무엇인가?'라는 주제로 토론 수업을 하였다. 학생들은 또 토론이냐며, 왜 계속 '왜?'라고 물어보냐며 따졌다. 심각하게 고민하기 싫어했고, 자신들 앞에 닥쳐진 '연극 대본' 외우는데 정신이 없다고 푸념했다. 그러면서도 '자유'는 '내가 하고 싶은대로 하는 것'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라는 말을 되풀이했다. 학생들의 결론은 자신이 하고 싶은대로 하는 것 그것이 곧 자유이다. 그래서 바람의 학교는 다른 학교와 마찬가지로 자유가 없는 학교다. 이런 학교는 정말 싫고 떠나고 싶다였다. 이런 수업을

하는 내 자신이 한심했고, 또 생각하기 싫어하는 학생들에 대해서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너희들이 하고싶은대로 하는 것이 자유야?'라는 나의 고함소리와 함께 수업은 끝이났다.

이 수업 이전에 '오이디푸스의 수수께끼'라는 수업을 언급할 필요가 있다. 이 수업 역시 토론수업이었는데, 오이디푸스는 자신의 눈을 찌르고 테베를 떠날 하등의 이유가 없다가 토론의 결론이었고 나아가서 학생들은 이 사건을 모든 책임은 오이디푸스의 아버지 라이오스에게 있다고 주장하였다. 원래 교사들이 오이디푸스를 기본 텍스트로 정한 이유는, 오이디푸스가 모든 잘못을 스스로에게 묻고 현실에 직면하여 책임있는 판단과 행동을 한 것처럼 학생들도 자신의 환경, 삶을 탓할 것이 아니라 자신의 내면의 문제를 스스로 극복하고 직면하여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을 얻기를 기대했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학생들은 라이오스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함으로서 오이디푸스처럼 자신의 운명의 굴레를 수긍하려하지 않았고, 스스로에게서 잘못이나 책임을 발견하려고 하기 보다는 쉽게 남탓을 해버리고, 현실을 회피하려고 했다. 이것은 곧 본인이 학교라는 현실에 적응하기가 어려운 이유는 학교와 부모 나아가서 이 사회에 있는 것이다. 이러한 생각들이 무조건 틀린 것은 아닐 것이다. 하지만 교사로서 '이런 학생들은 변화될 가능성이 지극히 낮다. 왜냐하면 자신의 문제를 보지 못하기 때문이다. 또한 이들에게 자신의 정체성을 찾아라라고 말하는 것도 무의미하다.'는 판단이 들었다.

교사들은 하루 일과를 마치고 밤마다 한 방에 모여 앉아서 속을 끓여야 했다. 어떻게 할 것인가? 이 학생들에게 어떻게 다가갈 것인가?를 놓고 깊이 고민했다. 교사들의 공유된 마음은 학생들을 향한 측은한 마음(측은지심=인=사랑)이었다. 우리는 이 측은한 마음 곧 사랑하는 마음을 전하기 위해서 교육적 철학, 교육적 질서 등 학생들에게 벽이 될 수 있는 것들을 다 내려놓고 '진실된 마음으로', '거짓없는 마음으로', '있는 모습 그대로' 다가가기로 했다.

2주차로 접어들면서 결국 호준이는 집으로 돌아가겠다고 선언하였다. 너무나도 강경한 모습에 난 어떤 이야기도 할 수 없었다. 결국 모든 선생님들이 소집되었고 호준이와 교사들은 교무실에서 만났다. 호준이는 어떤 이야기도 듣고 싶지 않고 그냥 집에 가겠다는 말만 되풀이했다. 그리고 난 앞으로도 이렇게 살것이고 꿈도 없고 결혼도 안할 것이다라고 선포하듯이 말했다.[3] 이때 구민정 선생님이 울음을 터뜨리고 말았다. "우리는 네가 결혼도 안하고 직업도 없이 살고 싶다는 말을 듣고 싶지 않아. 우리는 네가 행복하게 잘 살았으면 좋겠어, 조금만 더 견디면서 우리를 믿고 따라와 준다면 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줄텐데 왜 자꾸 우리의 손을 뿌리치는 거야~" 구민정 선생님은 감정에 북받쳐서 하염없이 울었다. 이 때 난 '한 사람의 영혼을 전적으로 바꾸는 것은 불가능하다.' 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그리고 그냥 같이 울어야 한다. 이런 아이들을 붙잡고 함께 울어야 한

3 사실 호준이는 낮과 밤이 뒤바뀌어서 낮에는 늘 잠을 자고 밤에는 컴퓨터와 핸드폰에 빠져있었다. 이러한 생활적 문제가 바람의 학교에서 그대로 나타나면서 적응하기 힘들어했다. 선생님들도 호준이의 문제 때문에 수업과 생활지도에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

다는 생각에 사로잡혔다. 호준이는 구민정 선생님의 울음에 주춤했고, 집으로 가는 것을 잠시 보류했다.

그날 밤 학생자치회의를 하면서 호준이는 반장으로 뽑혔다. 그리고 다시는 집에 간다고 하지 않았다. 물론 수업시간에 잠을 이겨내지 못했고 팀프로젝트와 연극에서 부정적인 언행을 일삼았지만 집으로 돌아가겠다는 말은 하지 않았다. 교사들의 진실된 마음과 학생들간의 관계성이 호준이를 떠나지 못하게한 것으로 생각된다. 실제 호준이가 반장에 뽑히게 된 이유는 친구들이 호준이가 반장이 되면 바람의 학교를 떠날 수 없을 것이다라고 기대했기 때문이었다.

호준이의 문제는 대부분의 바람의 학교 학생들에게 일반적인 문제였다. 뭔가 멋있는 미래를 그리고 싶은데, 현재 자신의 삶은 처참히 무너져있고 무엇부터 고쳐야 할지 모르겠고, 안다고 하더라도 용기가 없거나 하기 싫은 상태에 빠져있는 모습들이 학생들의 일반적인 상태였다. 방송에는 모든 것이 담기지 않았지만 하루가 멀다하고 학생들간의 다툼이 있었다. 그리고 생활태도의 문제는 매일 매일 반복되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 수록 호준이가 그랬듯이 마냥 힘들기만 할 것 같았던 다른 학생들도 성장하고 있고 교사의 말을 듣고 있고 변화, 성장하려고 한다는 느낌을 받았다. 결국 우리들은 좋은 관계 형성에 비교적 성공했다.

제주 학생들 앞에서 연극 공연을 성공적으로 마치고 우리는 곧 바로 캠프를 떠났다. 캠프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쓴소리'였다. 캠프를 떠나기 전 교사들과 제작진은 그동안 학생들이 보여준 모습들과 약한 부분들이 무엇인지 고민했다. 그리고 한 문장으로 각 학생들이 들어야 하는 쓴소리를 만들었다. 캠핑장에 도착하자마자 16명의 학생들을 한명씩 방으로 불렀다. 그리곤 아픈 부분, 드러내고 싶지 않은 부분, 그동안 몰랐던 부분들을 교사들이 집어내기 시작했다. 상처가 낫기 위해선 상처를 드러내야 했다. 교사들은 학생들의 상처를 드러내면서, 학생들은 자신의 상처가 드러나면서 함께 울었다. 학생들은 교사를 신뢰했고, 교사들은 진실된 마음으로 학생들에게 다가갔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이렇게 바람의 학교 한달이 훌쩍 지나가 버렸다. 졸업식을 하면서 '이제 수업을 하면 좀 될 것 같은데?'라는 생각이 들었다. '한 보름만 더 하면 좋겠다.'는 말을 제작진에게 했더니 제작진 대부분이 그냥 웃으셨다. 나도 함께 웃고 말았지만 교사, 멘토, 제작진 모두 혼신의 힘을 다해서 진이 다 빠진 상태라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었다. 바람의 학교 학생들을 교육하는데 교사만 있었던 것은 분명히 아니다. 학생들의 생활을 담당했던 멘토들 그리고 SBS '바람의 학교' 제작진들 모두 바람의 학교 교육과정 구석구석에 관여했다. 마찬가지로 학생들 교육은 학교만 하는 것이 아니다. 동네 형, 누나, 아저씨, 아줌마, 공공기관, 마을이장 할 것 없이 모두 필요하다.

개인적으로는 어떻게 보면 임상적으로, 한달동안 함께 먹고 자면서 교육을 한다면 학습을 할 수 있는 관계를 형성할 수 있고 또한 생활태도 변화를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되었다. 마치 축구선

수들이 전술훈련을 하기전에 몸을 만드는 운동을 하듯이 말이다. 이런 단순한 교육적 과정을 토대로 대안교육과정에 대해서 고민할 수 있었다. 뿐만 아니라 내가 앞으로 어떤 교사가 되어야 할지, 어떤 일을 해야 할지에 대해서 방향을 잡을 수 있는 소중한 기회였다. 처음 바람의 학교에 참여하기로 마음 먹었을때는 학생들을 변화시키고 이 사회에 교육의 진정한 방향성에 대해서 제시하려고 했었다. 거대한 기대감과 자부심으로 바람의 학교 교육에 임했었다. 그런데 솔직히 바람의 학교 학생들이 얼마만큼 변했고, 성장한지에 대해서는 물음표이다. 그리고 바람의 학교 방송을 통해서 이 사회가 어떻게, 얼마만큼 바뀔지에 대해서도 미지수이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바람의 학교를 통해서 내가 어떤 교사가 되어야 할지에 대해서 알게 된 것이다.

웅상고등학교 대안교실 프로그램의 전환

앞서 간단히 언급했던 것처럼 웅상고등학교 대안교실과 바람의 학교를 기획 및 운영하면서 범했던 가장 큰 실수는 아이들의 요구를 교육과정에 반영하지 못했다는 것이었다. 이 때문에 웅상고는 다음과 같은 문제점에 직면했었다.

1. 대안교실 참여 학생 선정의 어려움 : 교육과정이 유연하지 못하고 경직되어 있다보니 학부모, 담임교사 뿐만 아니라 학생들도 대안교실 참여에 선뜻 나서지 못했다. 왜냐하면 대안교실에 참여하는 순간 일반교육과정에서 멀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였기 때문이다.

2. 움직이는 교실의 질적 저하 : 모든 선생님들을 한시간씩 대안교육에 동참토록 하려다 보니 모든 선생님들이 준비하시는 대안수업에 대한 피드백이 부족했고, 따라서 발전적인 움직이는 교실 운영에 어려움을 겪었다.

3. L.T.I. 현장 멘토 선생님들의 어려움 : L.T.I. 프로그램은 멘토 선생님들의 삶의 현장으로 아이들이 찾아가서 배움을 얻는 교육이다 보니, 현장 멘토 선생님들의 부담감이 상당히 심했다. 그래서 일주일에 1~2회 교육으로 다운 시켰다.

이러한 문제점들에 근거해서 2016학년도부터 대안 교육 프로그램의 전환을 시도했다.

1. 움직이는 교실 -> 프로젝트형 움직이는 교실(교외형) : 바람의 학교에서 진행했었던 프로젝트 수업을 응용해서 움직이는 교실 프로젝트를 3종류로 구성하고 각각의 프로젝트를 외부 강사 선생님들과 진행할 수 있도록 하였다.

2. 고정형 반일제 프로그램 -> 선택형 프로그램 : 웅상고 대안교실은 반일제 유형이었는데, 학생들이 모든 오후 정규수업을 빠지게 되는 구조였다. 이에 대한 교사, 학부모, 학생들의 부담이 상당히 크다는 것을 알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학생들이 요일별로 선택해서 대안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3. 예비 대안교실 : 이는 1월 정도에 1~2학년 잠재적 대안교실 대상자들을 대상으로 예비 대안교실을 열어서 웅상고 대안교실 프로그램에 대해서 홍보도 하고 미리 아이들의 요구를 수용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이를 통해서 대안교실 사전 기획이 가능해 진다.

4. 맞춤형 과외 프로그램 : 대안교실에 참여하는 학생 중 일부는 정규교육과정에 미련을 못 버릴 수있다. 일반교실로 돌아가면 가장 좋으나 그렇지도 못하는 경우에는 개인별로 과외 프로그램을 진행해서 일반교육과정을 이수할 수 있도록 조치할 필요가 있다.

제안

대안교실 운영 프로세스

1. 프로그램 기획 전제 : 학생들의 요구파악

2. 기본적인 대안교실 아이들의 특징 : 무뎌진 감정, 탓하기

3. 일반적인 프로세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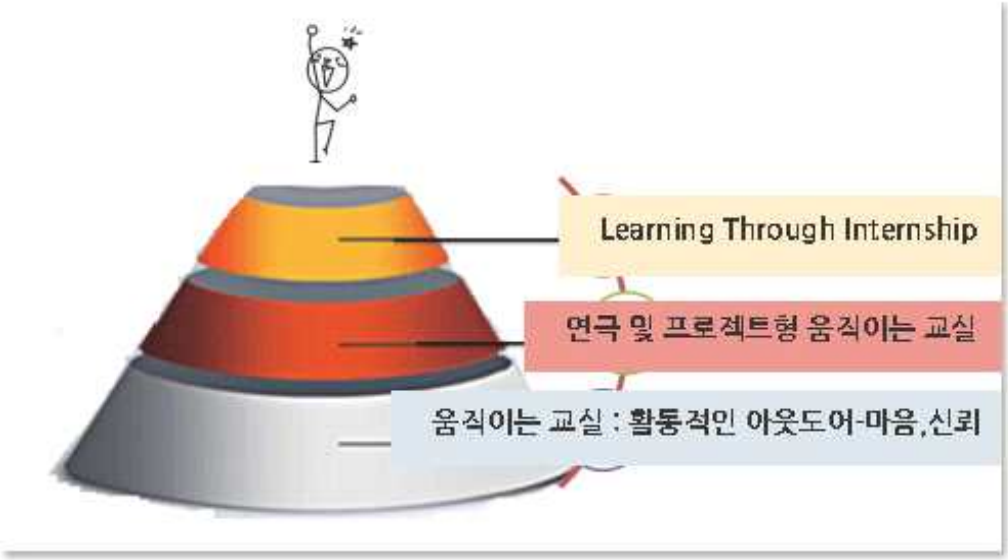
   1) 몸열기-마음열기

   2) 자기알기1 : 연극(최대한 우회적인 방법으로 자신의 내면 알기)

   3) 자기알기2 : 프로젝트형 움직이는 교실

   (최대한 우회적인 방법으로 자신의 외적 특성 알기)

   4) L.T.I. : 배움의 영역 확장을 통한 삶과 마주하기(직면)



대안교실 운영의 원리 *Fun fUn fuN*

1. Fun : Facilitator

대안교실 담당자는 '교사' 보다는 '선생'일 필요가 있다. 교사는 말그대로 가르치는 사람이다. 대안교실에 참여하는 아이들은 일반교실에서 완벽한 부적응을 보이는 경우가 허다하다. 이런 아이들에게 대안교실 담당자가 또다시 '교사'가 될 필요가 없다. '선생' 즉 먼저 난 자로서 아이들을 대해야 한다. 먼저 난자의 주된 특징은 경험이 많고 인내심이 많으며 배려심이 깊다. 왜 선생으로서 대안교실 아이들에게 접근해야 할까? 그것은 아이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이다. 그리고 서로의 신뢰를 쌓기 위해서이다. 교사로서 위치를 정해버리면 아이들은 '함께' 그리고 '소통'이라는 관계에서부터 멀어질 수밖에 없다.

2. fUn : Unity

대안교실에 참여하고 있는 아이들은 지극히 개인적일 가능성이 높다. 개인성으로부터 시작하는 좋지 않은 관성, 습관은 공동체를 파괴시키고 결국 자신의 삶을 망가뜨리게 된다. 필자가 바람의 학교와 웅상고 대안교실을 운영하면서 느낀 것은 아이들의 영혼을 흔들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진심으로 대하기'와 '좋은 친구 관계' 였다. Unity를 통해서 대안교실 아이들은 '좋은 친구 관계'를 경험할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대안교실 대부분의 교육프로그램은 '함께하기'로 디자인 되어야 한다. 이것은 대안교실이 왜 상담베이스가 아닌 수업베이스여야 하는 이유와도 닿아 있다.

3. fuN : Net-work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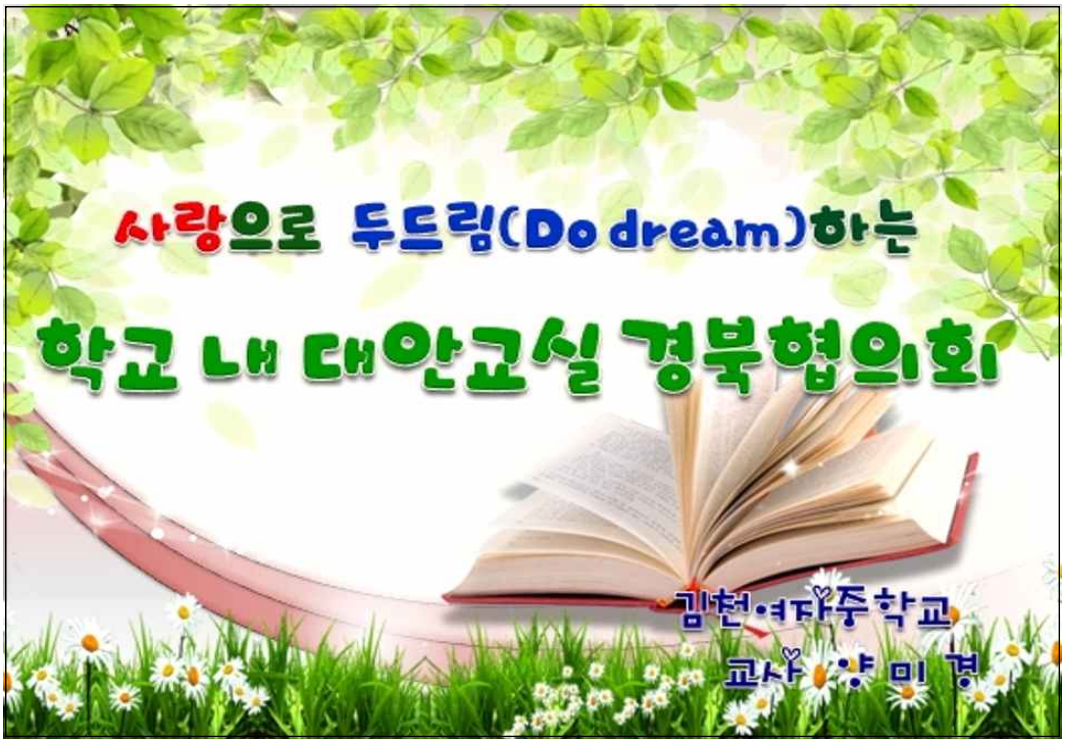
배움은 어디에서든지 일어날 수 있다. 바램(바람)이 있는 곳은 어디든 배움이 있을 수 있다. 따라서 학교내에서만 대안교실 프로그램은 운영해야 한다고 생각할 필요가 없다. 반대로 대안교실 운영비를 외부활동 한 두개로 일소해버리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은 정말 바람직하지 않다. net-work은 지속성과 의미-가치가 함께 만날때 그리고 여기에 학교 밖의 새로움이 만날 때, 빛을 발할 수 있다. 대안교실 담당자가 학교 밖 지역사회, 유관기관을 연계해서 대안교실 아이들을 교육한다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일 수 있다. 웅상고등학교 역시 굉장한 어려움을 겪었었다. 하지만 연차가 쌓일수록 외부기관과의 교육적 연계는 쉬워지고 빨라졌다. L.T.I.를 시작한 메트스쿨의 담당자도 똑같은 이야기를 했던 적이 있다. LT.I. 외부 연계에 대해서 질문했던 '나'로서는 절망적인 답변(시간이 지나면 L.T.I. 연계는 쉬워지게 됩니다. 인프라가 쌓이게 되니까요.) 이었지만 그 말이 정답인것 같다.

학교 내 대안교실 담당자의 소통과 공유

- 2015년 대안교실 담당자 협의회 운영사례1 : 경북지역 -

양 미 경

김천여자중학교 교사


사랑으로 두드림(Do dream)하는
학교 내 대안교실 경북협의회
김천•혁신중학교
교사 양 미 경

생각열기
학교 내 대안교실
경북협의회

CONTENTS
1 대안교실 운영교사협의회
2 경북협의회 운영 사례
3 문제점 및 개선 방안
4 경북협의회 행복바라기

대안교실 운영 교사 협의회란?

협의회 역할

- 시·도별 대안교실 담당교원 워크숍 진행
- 대안교실 모범사례 및 강사 인력 공유
- 학습동아리 교재 제작, 학습동아리 운영 등

지원 내용

- 지역 단위 워크숍 비용
- 학습 교재 제작 비용
- 협의회 회의 및 운영 경비 등

학습동아리란?

대안교실 교원 간의 대안교실 운영에 관한 연구를 목적으로 하는 네트워크

활동 내용

- 대안교실 모범사례 공유
- 대안교실 운영 노하우 공유
- 강사 등 전문가 인력pool 공유
- 대안교실 학습 교재 공동개발, 연합체험학습 추진 등

대안교실 운영 교사 경북협의회 조직표

지역	학교명	직	성명	지역	학교명	직	성명
김천	김천여중	교사	양미경	경산	경산여상고	교사	김상보
문경	점촌중	상담교사	이은정	영덕	강구정보고	교사	이창훈
포항	포항영도중	상담교사	손소영	청도	모계고	상담교사	권숙희
경주	신라고	교감	박수호	고령	고령고	상담사	홍선애
안동	영문고	교사	홍성광	성주	명안정보고	교사	서홍수
구미	도개고	교사	이용석	칠곡	순심고	교사	최이환
영주	영광중	교사	황재일	예천	대창중	상담교사	조규식
상주	함창중	교사	권기환				

경북협의회 운영 사례

경북협의회 활동 소개
대안교실 수업주제 발굴 공유
대안교실 모범사례 공유
강사 등 인력pool 공유
대안교실 운영 노하우 공유
연합체험 힐링연수 추진
경북협의회

경북협의회 운영의 문제점

문제점

- 경상북도 각 시를 대표하는 학교 내 대안교실 담당교사들이 모여 활동하고 있는데, 거리상으로 가깝지 않은 지리적 여건과 과다한 업무로 인해 협의회 운영과 활동에 어려움이 있었음

- 한정된 예산 지원으로 인해 학교 내 대안교실 담당교사들이 다양하고 유용한 교원역량 강화를 위한 알찬 연수를 준비하기 어려운 면이 많음

경북협의회 운영의 개선 방향

개선 방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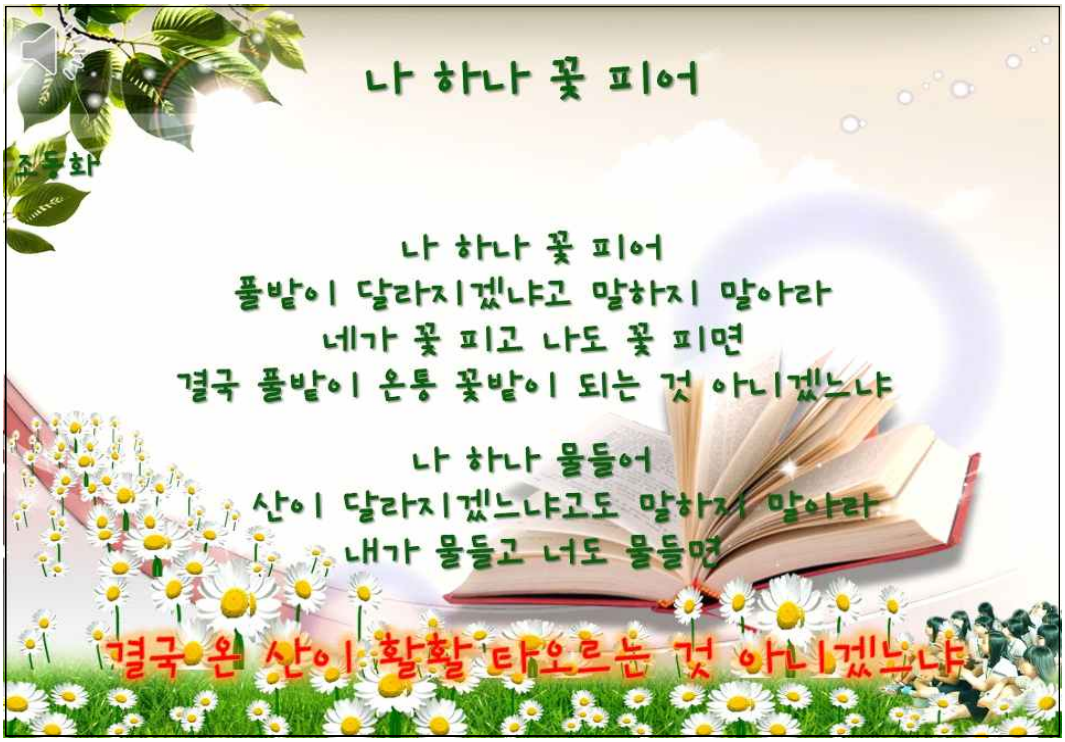
- 지역 단위 워크숍 비용 지원이 다양한 연수 활동이 가능할 수 있도록 현실성 있게 추진되었으면 함
- 대안교실 운영 교사 수업 시수 인정 및 우수 활동에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가산점 제도 수립이 필요함
- 바쁜 일상 속에서도 사랑으로 두드림(Do dream)할 수 있도록 자기연찬을 위해 힘쓰는 봉사적 자세가 요구됨

마치며……
학교 내
대안교실
경북협의회

홍보 동영상 … 선생님의 한 마디 …
행복한 경북협의회
THE BEST

학교 내 대안교실의 교사상
'멀티플라이어'
아이가 지닌 성장 가능성을
발견하여 성장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는 선생님

우리 희망과 미래인
아이들이
사랑의 힘으로
두드림(Do dream) 하여
힘차게 날아오르기를 소망합니다.


나 하나 꽃 피어
조동화
나 하나 꽃 피어
풀밭이 달라지겠냐고 말하지 말아라
네가 꽃 피고 나도 꽃 피면
결국 풀밭이 온통 꽃밭이 되는 것 아니겠느냐
나 하나 물들어
산이 달라지겠느냐고도 말하지 말아라
내가 물들고 너도 물들면
결국 온 산이 활활 타오르는 것 아니겠느냐

늘
행
복
하
세
요!
김천여중 양미경
mi.mi@hanmail.ne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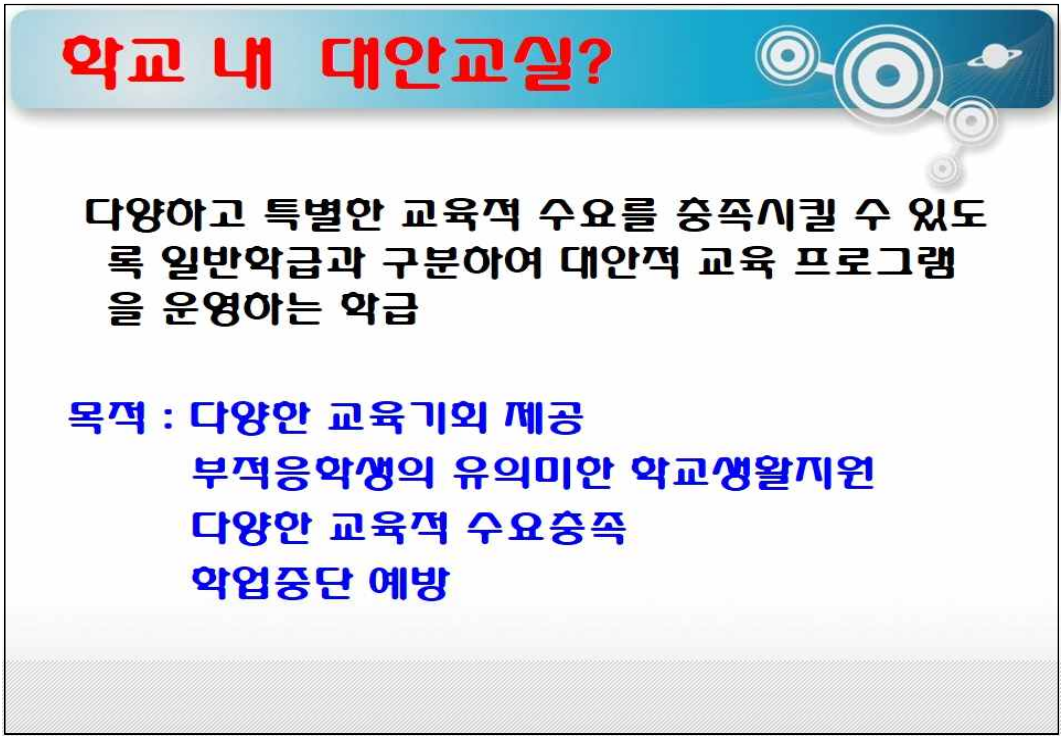
학교 내 대안교실 담당자의 소통과 공유

- 2015년 대안교실 담당자 협의회 운영사례2 : 서울지역 -

조 광 희

종암중학교 교사

2016 학교 내 대안교실 담당자 연수
2015년 학교 내 대안교실 지역 협의회 운영 결과
1. 학교 내 대안교실?
2. 학교 내 대안교실 지역협의회 활동 내용
3. 학습동아리 구성 및 운영 사례
4. 지역 협의회 운영 시 애로점
5. 향후 지역 협의회 활동 제언
010-7937-8848
bogobogo33@sen.go.kr


학교 내 대안교실?
다양하고 특별한 교육적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일반학급과 구분하여 대안적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학급
목적 : 다양한 교육기회 제공
부적응학생의 유의미한 학교생활지원
다양한 교육적 수요충족
학업중단 예방

학교 내 대안교실 추진 방향?

- 자율적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

- 학생의 소질과 적성을 반영하는 다양한 욕구에 수용적 대응

- 학교외 기관과 유기적 협력관계 구축
  공공기관, 평생교육시설, 청소년수련관, 직업훈련기관, 산업체, 문화예술기관 등

학교 내 대안교실 지역 협의회

목적 :

○ 대안교실 활성화를 통한 공교육 대안교육 기회 확충

○ 대안교육 담당교원의 전문성 제고 등 공교육 내 대안교육 질 관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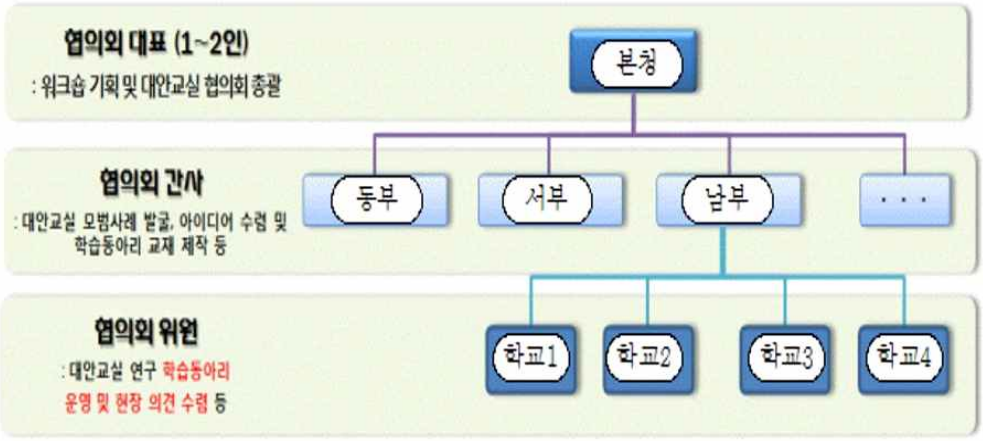
기본방침 :

○ 교육지원청당 1개 이상의 대안교실 학습동아리 운영

○ 교육지원청별 대안교실 운영 담당자 협의회 실시

○ 월1회 이상 학습동아리 활동 및 협의회 실시 권장

협의회 구성 체계도



협의회 활동내용(시스템 구축)

1. 지역대표자 활동 활성화를 위한 협의회 개최 : 정보교류의 의미 (2회)
2. 운영위원회(집행부)구축 : 회장, 부회장, 총무, 집행위원

-단합과 헌신의 태도로 참여-실질적 운영의 주체

-워크숍 기획및 행사 총괄 진행

3. 자문위원 구축 : 서울시협의회 시야 확대

정보교류시스템 확보

-집행부 단톡방 개설 운영

-서울 학교 내 대안교실 담당자 단톡방 (밴드)운영

- 학교 내 대안교실 카페 운영 : 자료탑재

대안교실 담당자 워크숍

-새로운 희망 출발 -

○ 기간 : 2015. 9. 4(금) 13:30 ~ 2015. 9. 5(토) 17:00 [1박 2일]

○ 장소 : 서울유스호스텔

○ 대상 및 인원 : 학교 내 대안교실 담당자 (총 70명)

• ※ 참가자에게 12시간 연수 이수 인정

워크숍 활동내용

특강1 : 학교 내 대안교실은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가?(조벽교수)

특강2 : 모험놀이 상담의 실제 : 4모둠 으로

– 참여식 실습(모험놀이 상담 연구회)

모둠활동 : 분임토의 및 모둠활동 : 7모둠

–분임별 토론과 나눔 –

–우수사례 발표와 관련 미팅 : 6모둠

대안교실 운영 Q & A

활동사진

워크샵 운영 결과(좋았던점)

1. 짜임새 있는 프로그램 운영(선생님의 니즈에 부응)
2. 놀이로 하는 집단 상담
3. 내실 있는 분임토의와 생생한 실무 정보 공유
4. 조벽 교수 특강
5. 대안교실 연구회 발족

(2016년 연구회 등록, 특수 직무연수기관 지정)

워크샵 운영 결과(아쉬운점)

1. 1박2일 열심히 하였는데 연수시간 12시간 인정(교육청과의 소통 문제)
2. Q & A 시간이 짧았다
3. 숙소에 모기가 많았다.
4. 토요일은 피했으면.

총평 : 연수장소, 프로그램 운영 등 선생님들의 만족도가 매우 높게 나타남(95점정도)

혁신교육박람회-대안교실컨퍼런스

제목 : "양극화 시대의 교육희망? 대안교실!" 사례발표 및 토론회

주최 : 서울 학교 내 대안교실 협의회

일시 : 11월 18일(수) 낮 2시~5시

장소 : 서울시청 서소문 별관 13층 강당

참가 : 대안교실 담당자, 대안교실 프로그램강사, 차후 대안교실 희망자, 청소년수련관, 청소년단체, 대안학교, 대학생(예비교사), 관심있는 모든 국민

학습동아리 구성 및 운영 사례

구성 : 서울 지역교육지원청 (11개)

- 월간 , 혹은 격월간 동아리 활동 진행
- 주요 활동
- 학교간 정보 공유, 사례공유 및 컨설팅, 상처나눔, 문화체험활동 공유 등

* 학교 내 대안교실 담당자 협의회와 같이 구성

학습동아리 활동 내용

1. 교재 또는 프로그램자료집, 운영 사례집 제작(6개 지역)

   – “나의 행복일기”

학생이 학교생활을 스스로 관리하고, 자기 자신과 환경 속에서 감사할 일을 찾고, 자기 자신과 자신이 만나는 사람 가운데 감사와 칭찬을 할 일을 성찰해봄으로써 바람직한 관계와 소통의 힘을 키워서 행복한 학교생활을 하는 데 도움이 되는 워크북 형태의 책자

2. 자료 도서 구입 : 독서 동아리활동

학습동아리 운영사례

3. 외부 대안교실, 대안학교 방문 및 유관기관 체험활동 : 7지역

월 1회 이상 학습 동아리 활동

가. 서울시립청소년드림센터 방문 : 기관장 인터뷰, 기관 탐방

나. 더유스 지역아동센터 방문 : 대안교실 학생 인터뷰 및 기관 탐방

다. 잠원동 지역센터 방문 : 담당자 인터뷰

학습동아리 운영사례

4. 각 학교별 지원 지역사회 기관연계
- 정보 공유와 연계
- 강북청소년수련관
- 창동청소년 수련관, 등 지역 수련관 연계
- 노원상상이룸센터,
- 도봉 꿈나누리센터
- 후원25시 등

학습동아리 운영사례

5. 학습동아리 회원 연수 및 워크숍개최 : 2 지역(당일, 1박2일 운영 :)

가. 대안교실을 위한 인성프로그램 운영 사례 연구

나. 중고 학교급별 대안교실 프로그램 운영 협의

다. 자연휴양림 학습원과 숲 체험 프로그램 개발 협의

(대전 만인산 자연휴양림, 살레시오 청소년 수련원, 강북 청소년 수련원, 등)

학습동아리 활동 후

서울시립청소년드림센터 방문

고등학생을 위한 대안 교육 시설은 네트워크가 잘 구축되어 있으나 중학생을 위한 체계적인 대안 학교 시스템 연구에 대한 필요성 인식. 대안 교육을선택했으나 기대에 미치지 못한 학생들이 되돌아 오거나 방황하는 사례의 원인을 파악하고 그들의 요구를 면밀이 조사하여 공통의 대안 학교 정신을 잇되, 중학생을 위한 인가 대안 학교와 비인가 대안 학교 별로 현실적이고 특성화된 대안 학교 프로그램을 계발에야 할 필요성을 절감함.

협의회 운영의 긍정적 요인

1. 정보교류 시스템이 정착되어짐(담당교사들간의 소통과 공감 확산 및 정착)
2. 워크숍의 성공적 개최와 연장 활성화의 온상
3. 학습동아리 활동으로 연구하고 프로그램개발, 지역유관기관 연계 등 다양하고 실질적인 운영이 이루어짐.
4. 담당교사의 자발적 모임으로 발전 하였고 “학교 내 대안교실연구회”를 발족

협의회 운영 시 어려운 점

제도화의 미흡으로 한,두사람의 열정과 희생으로 담당교사 소진됨 (자주 만나서 공감하고 소통함)

학교현장 관리자나 일반 교사의 지지나 이해가 미흡(관리자의 무관심과 교사의 편견)

대안교실이 교육과정으로 정착되는 것

교육청과의 공감과 소통

협의회 활동 제언

관리자의 이해와 공감의 연수가 절실함.(성패의 key)

대안교실 운영예산의 조기 배정과 집행의 개선(협의회비 및 학생 급식비 탄력 운영필요: 대안교실 운영의 현실성 감안)

학교 내 대안교실 정착을 위한 담당교사 양성 (연수, 수업시수 인정, 담임인정, 특별활동비 지급, 1정 연수 필수교과목으로 추진)

제언2

1. 대안교실 연구회 지원
2. 협의회와 학습동아리 지속적 운영(시스템화): 통합운영

– 자체적으로 프로그램 개발 및 공유

–좋은 강사풀 구성 학교연장 지원

– 지역협의회 간 학교 내 대안교실 운영에 필요한 인적 자원(전문강사, 지원인력 등)과 프로그램, 운영 경험의 활발한 공유를 위한 시스템 구축 필요

학교 내 대안교실 담당자를 위한 힐링 톡!톡!

- 통합예술심리치료(실습) -

김 상 만

쉼힐링센터 소장

통합예술심리치료

김 상 만
쉼힐링센터 소장, 전)전주대 예술치료학과 외래교수

1. 통합예술심리치료 프로그램(120분)

1) 프로그램 목표

가. 통합예술심리치료 전 과정을 직접 경험해 본다.
나. 워크숍 경험 전과 경험 과정, 그리고 경험 이후의 변화를 느끼고 표현해 본다.
다. 통합예술심리치료 경험을 바탕으로 저변확대에 기여한다.

2) 준비물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공간과 열린 마음, 편한 복장, 오일파스텔 24색, A4 개인당 1장, 8절지 개인당 1장, 명찰, 테이프, 물티슈 테이블당 1개

3) 프로그램 세부 내용

가. 워밍업단계(Worming-Up) 25분

- 가벼운 인사하기(머리-어께-가슴-배 “안녕하셨습니까? 반갑습니다.”)
- 몸과 마음 체크하기(Here & Now)/현재 감정을 표현하기
- 집단 규칙 확인하기(행복한 곳이라 상상하기, 자유롭게 표현하기&패스, 비밀보장)

- 의사소통 기술(갓 태어난 아이를 바라보는 엄마의 눈빛으로 상대를 바라보기)
- 모아관계의 원리(Smiling, Touching, Hugging, 신뢰감, 안전감, 친밀감)
- 4B : 4가지 B(Brakes, Breathing, Brains, Body)
  ① 브레이크-에너지를 손으로 잡는다. 가슴 앞에서 수평으로 점점 세게 민다.
  ② 숨쉬기-손을 천천히 올려서 머리 위로 올리고 깊은 복식호흡을 한다.(7/11)
  ③ 뇌-머리에 손을 올리고 이완한다. 그리고 자기 암시를 통해 안정을 취한다.
  ④ 몸-손으로 중앙에서 밖으로 털어낸 후 가슴을 감싸고 몸을 이완한다.
- 7M : 7가지 움직임(Movement)
  ① 몸이 자유롭게 날아다니는 **비행기**라고 상상하고 자유롭게 움직인다.
  ② 큰 탑에 매달린 **종**의 줄을 수직으로 힘껏 바닥까지 잡아당긴다.
  ③ 힘차게 **말**을 타고 달리는 장면을 상상하면서 자유롭게 움직인다.
  ④ 하늘 높이 큰 **방패연**이 있다고 상상하고 선채로 줄은 천천히 잡아당긴다.
  ⑤ **취객**이 주유소 앞 풍선처럼 몸과 발을 주춤주춤 움직인다.
  ⑥ 몸이 **코브라**라고 상상하고 천천히 척추를 올리고 왼쪽 오른쪽을 바라본다.
  ⑦ 이마에 **유니콘**의 뿔이 있다고 상상하고 딱딱구리처럼 가상의 벽에 찍는다.
- 별칭 짓기 : 다른 사람이 불러주면 아주 행복할 것 같은 이름(예, 행복이, 아롱이 등)
  현재 차고 있는 명찰 뒷면에 세 글자 기준으로 편하게 짓는다.

나. 실행단계(Exercise) 80분

- 마음을 대변하는 세 가지 색을 고르고 왜 그 색깔을 골랐는지 돌아가면서 설명한다.
- 눈을 감고 잠시 편하게 있다가 떠오르는 이미지를 낙서하듯이 편하게 그린다.
- 돌아가면서 그림을 설명하고, “아 그렇구나”로 지지적 공감을 한다.
- 상대가 말을 할 때는 진지하게 경청하고, 피드백은 무조건 긍정적으로만 한다.
- 모든 색을 사용해서 선물그림1,2 오른쪽 방향의 사람이 그려주고 설명한다.

다. 마무리단계(Cooling Down) 15분

- 느낌점 다양하게 표현해 본다.
- 힘이 나는 기운은 몸에 담아가고 힘들거나 나쁜 기운은 공중에 버린다.

- 서로 인사하기(머리-어께-가슴-배 “수고하셨습니다.”)

2. 통합예술심리치료의 이해

1) 통합예술심리치료란 무엇인가?

통합예술심리치료란 심리치료의 목표와 그 효과를 얻기 위해 미술을 비롯한 음악, 무용/동작, 사이코드라마 등 예술 매체를 통합적으로 활용하는 현대 심리치료의 한 형태이다. 각종 예술매체를 통합적으로 활용한 심신치료활동이면서 심신의 성장과 발달을 목표로 하는 “치료 예술 활동”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그러나 통합예술심리치료를 한 마디로 정의하기란 쉽지가 않다. 예술이 갖고 있는 광의적 의미를 이해하고, 그 바탕 위에서 심리치료와의 관계성을 논해야 하기 때문이다. 예술 그 자체를 하나의 범주에 담기도 어렵지만 미술, 음악, 춤, 드라마 등 각 개별적 요소들 또한 하나의 개념으로 정의하기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현재 지구상에 명칭을 달리하는 심리치료법이 무려 4백 여 개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물론 체계적인 이론과 구체적인 기법을 잘 구비하고 있는 주요한 치료이론은 10여 개로 압출할 수 있다. 하지만 예술심리치료가 심리치료로서 이론적 맥락을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이 또한 어려운 과제가 아닐 수 없다. 긍정적 차원에서 본다면 그 만큼 열려 있다는 뜻이기도 하고 시대와 상황의 변화에 따라 다양하게 변모해 갈 수 있다는 측면도 있다. 통합예술심리치료는 예술치료, 표현예술치료, 통합적 예술치료, 창의적 예술치료, 창의적 통합예술치료 등의 용어로 사용된다.

2) 통합예술심리치료의 목적

심리치료로서 통합예술심리치료 목적은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심리적 문제를 지닌 사람을 돕는 전문적인 활동을 말한다. 심리치료는 “공적인 국가보건제도의 규칙과 범위 내에서, 학문적인 기초가 있고 경험적으로 검증된 병리이론과 치료이

론에 근거해서 효과적인 절차와 방법을 사용하여 신뢰성 있는 진단이 내려진 후 공식화된 치료목표 하에 공인된 자격을 갖춘 전문적인 심리치료자에 의해 실시되며, 윤리적인 규범과 규칙에 따라 정신적/심리적 원인으로 생기는 질병과 장애를 지닌 환자를 치료하는 활동"이라고 정의된다. 심리치료는 병원과 같은 임상장면에서 비교적 심각한 심리적 문제, 즉 심리장애나 정신질환을 지닌 사람을 치료하는 활동을 지칭하는 반면, 상담은 학교나 기업과 같은 비임상장면에서 비교적 심각성이 경미한 심리적 문제나 적응 과제를 돕는 활동을 지칭한다. 따라서 다른 상담활동과 구별하여 심리적 문제나 장애를 극복하도록 돕는 전문적인 상담활동은 "심리상담"이라고 지칭한다. 예술심리치료는 치료와 심리상담 두 가지 차원을 허용하고 있으나 최근 우리나라에서는 예술심리치료보다는 예술심리치유 또는 예술심리상담이란 표현을 권장하고 있다.

3) 통합예술심리치료의 의의

(1) **창작과정으로서 예술심리치료는 의의를 갖는다.** 심리적으로나 물리적으로나 진정으로 자유로울 수 있는 환경에서의 창작과정은 그 자체가 치유과정이 될 수 있다. 수용적이고 지지적인 분위기 내에서 내담자가 자유롭게 새로운 재료나 도구를 탐색하고 어떤 결과물을 만들어내기 전에 놀이하는 과정을 제공해줌으로써 몸과 마음을 이완하여 자신의 진정한 창조성을 경험토록 돕는다. 이러한 과정은 정신분석의 자유연상과 같은 효과로서 자연스럽게 무의식에 접근하는 것을 도와 억압되어 있는 내면을 표현하고 갇혀 있던 정신세계를 환기시키도록 돕는다. 이는 언어로 표현할 수 없는 내면세계가 외부세계와 만나 소통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여 줌으로 개인에게 신선한 바람을 쐰 듯한 경험을 줄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창작과정의 치유성만으로 예술치료가 정의된다면 모든 예술가들은 심리·정신적인 건강을 유지해야만 한다는 결론이 나오게 된다. 치료과정은 반드시 주관적인 창작과정을 심리학이라는 객관적 맥락으로 이해하고 창작과정이 치료과정으로 전환되도록 돕는 역할을 할 치료자가 필요하다.

(2) **예술매체로서 예술치료가 갖는 의의가 있다.** 예술은 반드시 매체와 재료 또는 도구를 통해서만 존재하게 된다. 가령 미술치료에서 사람들은 나타난 이미지를 통하여 사고하며 심상이 창작품이 되기 위해서는 각종 매체와 재료들이 필요하다. 무용/동작치료 역시 음악이나 그들의 몸 자체가 매체 또는 도구가 되어 심상을 표현한다. 이 때 매체에 대한 여러 가지 정서적, 지적 반응이 있을 수 있고 이러한 반응들은 각 사람의 내면세계의 투사라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미술치료 시 점토를 던지는 활동은 잠재된 공격성을 불러일으켜 어떤 사람에게는 막힌 것을 뚫는 듯 한 시원함을 줄 수 있으며 어떤 사람에게는 감히 할 수 없는 금지된 일로 느껴질 수 있다. 또한 예술매체는 언어 이전의 단계로 내려가 여러 가지 상황으로 인하여 말로 내면을 표현할 수 없는 사람들에게 매우 효과적으로 접근한다. 인간은 직접적인 신체감각차원에서 상징적인 차원을 거쳐 자유로운 언어구사가 가능한 언어적인 차원을 향하여 발달하게 되는데 무용·동작과 음악은 신체감각차원을, 미술과 놀이는 상징적 차원으로 돌아가 언어 표현의 한계를 뛰어넘도록 도와준다. 이러한 예술치료의 치료성은 개인의 의견을 자유로이 말할 수 없는 체제 내의 대상에게 더욱 효과적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3) **예술창작품(결과물)의 의식화로서의 예술치료는 의의를 갖는다.** 결과물의 의식화를 통하여 치료를 돕는 측면은 창작품이 시각적으로 남는 미술치료에 주로 해당될 것이다. 자유로운 창작과정을 통하여 무의식에 접근하고 언어적으로 표현할 수 없는 무의식의 내용들을 매체를 이용하여 풀어낸 뒤 필요한 것은 나온 결과물을 의식화하는 것이다. 이러한 과정은 불확실하던 내면을 외면화하는 상징화 과정이라고 볼 수 있는데 내담자는 또 다른 자기상이라 볼 수 있는, 창작품이라는 확고한 증거 앞에서 내면을 통찰하고 확인하며 알 수 없던 긴장을 해소하여 심리적인 발달을 촉진하게 된다. 예술치료에서의 결과물은 한 개인의 고유한 정신세계에 근거하여 탄생한 자기표현으로서 예술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평가되어지는 기준으로 평가하지 않는다. 또한 결과물은 명료하게 알 수 없는 내담자의 내면을 효과적으로 전달해주는 재료로서 치료자나 다른 집단원은 창작의 결과를 통해 내담자 또는 다른 이들과 소통할 수 있다.

4) 통합예술심리치료의 효과

다양한 예술매체를 통한 접근의 필요성은 다원적인 인간정신 세계의 탐구와, 고유한 개체인 내담자들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요구에 부응하고 주로 생의 초기에 만들어졌다고 보는 인간의 심리적인 문제를 효율적으로 접근하기 위한 것에 있다. 대부분의 현대 심리학자들이 개인의 인성과 정신, 심리적인 문제가 생의 초기단계인 첫 3-5년에 형성된다고 보는 이론이 예술치료의 효율성을 확고하게 뒷받침한다고 볼 수 있다. 심리적인 문제가 생의 초기단계, 즉 유아기의 경험은 언어차원의 경험이 아니고 언어이전의 차원(감각운동, 리듬, 색상, 이미지 등)이고 이러한 비언어적, 언어이전 형태로 만들어진 심리적인 문제를 언어만을 통한 심리치료로 접근하는 것에 한계가 있을 수 있다고 가정할 수 있을 것이다. 반면 예술치료에서 사용하는 감각운동, 리듬, 색상, 이미지 등의 매체는 생의 초기의 경험과의 상호소통을 가능하게 하기 때문에 안전하면서도 효율적으로 심리적인 문제들에 접근하고 치료할 수 있다. 물론 언어, 미술, 음악, 놀이, 동작, 무용, 연극 중 하나의 매체만으로도 이러한 이슈에 도달할 수가 있지만 그 효율성에 있어서 차이가 난다. 이러한 실용성 때문에 하나의 장르에 머물지 않고 매체의 폭을 넓혀 가는 것이 예술치료 분야의 전반적인 추세이다.

이러한 예술심리치료의 효과를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1) 해결 받고자 하는 문제와 그와 관련된 갈등이나 증상이 감소하고 바람직한 대안행동의 증가를 기대할 수 있다. 신체적인 건강의 증진, 긍정적 정서·사고·행동반응의 증가 등 친밀성과 생산성의 증가 효과가 있다.
2) 정서적 불균형이 감소되고 정서적 안정이 증진되는 효과가 있다.
3) 자신의 있는 그대로의 경험을 수용 및 개방하며 경험과 일치 및 통합된 방향으로 나아가려는 동기와 행동이 증가하는 효과가 있다.
4) 긍정적 관점에서 현상이나 의미를 바라보는 효과가 있다.
5) 행동의 긍정적 동기, 경험의 잠재적 가치나 의미에 대한 인식 및 표현행동이 증가하는 효과가 있다.
6) 현상 및 문제, 원인, 대처방안에 대한 알아차림이 증가하는 효과가 있다.
7) 정신적 가치나 의미를 인식하고 이를 표현하는 행동이 증가하는 효과가 있다.

8) 개인적 욕구나 가치, 사회적 요구나 가치에 순응하는 행동이 증가하는 효과가 있다.
9) 무의식적인 충동이나 강요에서 벗어나 상황적 요구에 따라 욕구성취를 지연 및 승화시키려는 동기와 행동이 증가하는 효과가 있다.
10) 자기이해, 자기수용, 자기개방, 자기주장이 증진되는 효과가 있다.

5) 통합예술심리치료를 사용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

기본적으로 예술치료는 치료사에 의해 사용되어야 한다. 심리치료로서 통합예술심리치료는 예술 매체와 심리치료 이론에 대한 기본적 이해를 전제로 한다. 치료사는 전문적 자질과 인간적 자질을 갖추어야 한다. 전문적 자질로 예술치료이론에 대한 이해, 치료방법에 대한 숙달, 치료경험 및 훈련, 그리고 인간적 자질로 치료적 도구로서의 치료사, 본보기로서의 치료사라고 한다. 인간적 자질의 내용으로 자신에 대한 이해와 수용, 타인에 대한 관심과 존중, 원만한 성격과 인내심, 삶에 대한 열정과 부단한 노력이라고 한다. 개인적 자질과 관련하여 인간에 대한 선의와 관심, 자신에 대한 각성, 용기, 창조적 태도, 끈기, 유머 감각을 말하기도 한다. 또 치료사가 갖추어야 할 자격과 조건으로 1) 자신의 문제를 먼저 해결하는 것, 2) 어떤 유형의 내담자가 와도 응대할 준비, 3) 치료사 자신의 성격, 장단점, 정신건강에 대한 정확한 이해, 4) 자신에 대해 과장, 자랑, 숨기지 않아야 하고, 5) 솔직히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자세, 6) 타인에 대한 관심과 존중, 진심어린 애정, 인간존중 7) 원만한 성격과 인내심, 때론 단호한 자세, 8) 비밀 준수의 의무 등이라고 한다.

아래 제시된 참고문헌을 통해 다양한 예술심리치료 사례와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1. 국내문헌

강진령. (2011). **집단상담의 실제**. 서울:학지사

_____ (2012). **집단상담과 치료**. 서울:학지사

_____ (2012). **집단과정과 기술**. 서울:학지사

권석만. (2012). **현대 심리치료와 상담이론**. 서울:학지사

_____ (2013). **현대 이상심리학.** 서울:학지사

김상만. (2004). **예술심리치료를 적용한 이야기심리학이 내담자에게 미치는 효과연구**. 연세대 연합신학대학원. 석사논문

김선현. (2010). **집단미술치료의 이론과 실제.** 서울: 이담

김수동, 이우경 . (2004). **사이코드라마의 이론과 적용.** 서울: 학지사

김정일. (2004). **사이코드라마.** 서울: 살림

김진숙. (2001). **예술심리치료의 이론과 실제.** 서울: 중앙적성출판사

김형태. (2005). **집단상담의 이론과 실제**. 동문사

류분순. (2000). **무용 동작치료학.** 서울: 학지사

_____ (2004). **마음치료의 열쇠 춤・동작치료.** 서울: 학지사

이근매. (2008). **미술치료 이론과 실제.** 서울: 양서원

이근매, 최인혁. (2008). **매체경험을 통한 미술치료의 실제.** 서울: 스그마프레스

이은진. (2008). **미술치료.** 서울: 동문사

이은진, 장선철. (2008). **미술치료.** 서울: 동문사

이은진, 최애나, 임용자. (2008). **예술심리치료의 이해.** 서울: 창지사

이현길, 하만석. (2011). **미술치료 해석도구.** 서울: 행복플러스

이형득 외. (2003). **집단상담.** 서울: 중앙적성출판사

이후경 외. (2013). **집단정신치료.** 서울: 하나의학사

임용자. (2004). **표현예술심리치료의 이론과 실제.** 서울: 문음사
전정민. (2010). **통합적 미술치료 프로그램 및 평가.** 서울: 이담
정광조, 이근매, 최애나, 원상화. (2009). **예술치료.** 서울: 시그마프레스
정여주. (2001). **상호작용놀이를 통한 집단상담(이론과 실제)**. 학지사
_____ (2003). **미술치료의 이해.** 서울: 학지사
정현주, 김갑숙, 전종국. (2006). **음악치료 기법과 모델.** 서울: 학지사
_____ (2005). **음악치료학의 이해와 적용.** 서울: 이화여자대학교출판부
주리애. (2010) **미술치료학.** 서울: 학지사
최선남 외(2007). **집단 미술치료.** 서울: 학지사
최헌진. (2010). **사이코드라마 이론과 실제.** 서울: 학지사

2. 번역본

Ann Arge Natha, Suzanne Mirviss. (2011). 박희석, 류정미, 윤명희 역. **창조적 예술치료기법.** 서울: 학지사
Adam Blatner. (2005). **사이코드라마기법.** 서울: 시그마프레스
Fran J. Levy. (2012). 고경순, 김나영, 남희경, 이상명, 최희아 역. **무용동작치료 치유의 예술.** 서울: 시그마프레스
Joan Chodorow. (2003). **춤・동작 치료와 심층심리학.** 서울: 물병자리
Judith, Rubin. (2006). 김진숙 역. **미술치료학 개론.** 서울: 학지사
Judith. Rubin. (2008). 김진숙 역. **예술로서의 미술치료.** 서울: 학지사
Gisela Schmeer.(2011). 정여주 외 역. **정신분석적 미술치료.** 서울: 학지사
Kenneth Aigen. (2011). 이경숙, 류리 역. **음악중심 음악치료.** 서울: 학지사
Stephanie L. Brooke. (2010). 류분순 역. **창의적 예술치료 매뉴얼.** 서울: 하나의학사.
Suzanne Darley & Wende Heath. (2012). 이근매, 조용태, 차명호 역. **예술심리치료 전문가를 위한 표현예술치료활동.** 서울: 시그마프레스
Susan l. Buchalter. (2011). **미술치료 기법과 적용.** 서울: 시그마프레스
Susan Hadley. (2008). **정신역동 음악치료.** 서울: 학지사

학업중단 위기학생의 이해

- 학생 무기력의 원인과 해결책 -

구 본 용

강남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수

청소년 무기력의 원인과 지도방안

강남대학교 교육대학원
구본용 교수
(kbyco@kangnam.ac.kr)

무기력한 아이들…

<이미지 출처 : 오마이뉴스>

학습 무기력의 이해

1. 무기력의 구성요소

1) 통제신념의 결여
- 아무리 공부해도 지금보다 저 잘할 수는 없다.

2) 학습동기 결여
- 공부를 왜 해야 하는지 관심도 없다. 열심히 하는 이유를 모르겠다.

3) 긍정정서 결여
- 공부나 학교생활에서 행복함을 느끼지 못한다.

4) 능동수행 결여
- 스스로 알아서 공부하지 않는다.

2. 무기력의 원인

- 좌절, 낙담, 의욕과 용기의 결여

무기력과 변화에 대한 기대

1. 낮은 중요성, 낮은 자신감
   - 변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지도 않으며, 변화를 시도해도 성공할 수 있으리라고 믿지도 않음
2. 높은 중요성, 낮은 자신감
   - 변화의지에는 문제가 없으나 변화에는 자신이 없음
3. 변화의 전제조건

1. 의지:변화의 중요성 인식
2. 능력:변화에 대한 자신감
3. 준비 : 우선순위 인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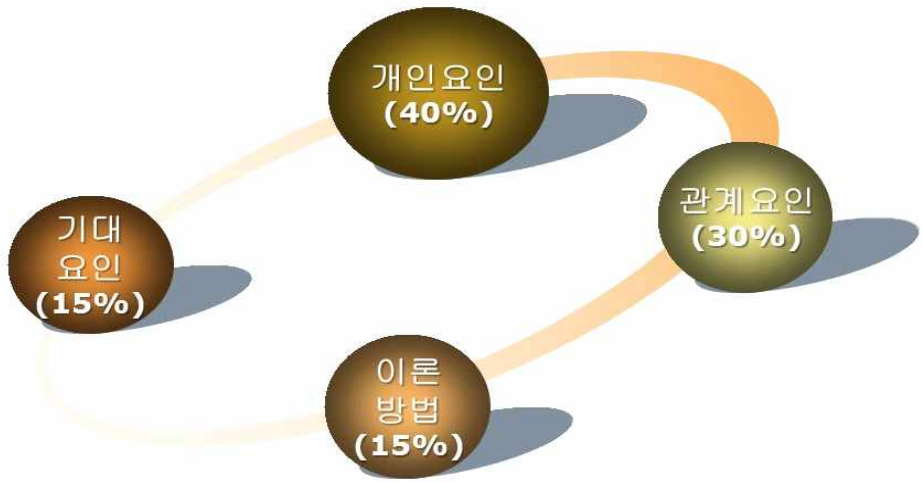
무기력한 청소년 지도의 과제

1. 가능성 확인해 주시
2. 양가감정에서의 승리

잘못된 지도의 원인

1. 학생들의 잘못을 논리적으로 설득하기
   - 학생들이 자신의 입장이 얼마나 비논리적인지를 깨닫게 되면 변화할 것이다.
2. 원하지 않는 강의나 조언하기
3. 죄책감 유발시키기
   - 네가 네 어머니를 얼마나 힘들게 하고 있는지 알고 있니?
4. 강요할 수 없는 것을 강요하기
   -의지를 가지고, 더 많은 책임감을 갖고, 열정을 보이라.
5. 승패 게임으로 간주하기
6. 처벌수위를 높이기
7. 문제의 근본 이유를 학생 마음에서 찾으려 하기

성공적 변화를 이끌어 내는 상담요소



무기력한 학생 상담지도의 기본원리

1. 행동변화를 서둘러 요구하기 말 것.
2. 학생의 관점을 인정할 것
3. 학생에게 의미 있는 상담지도의 목표를 정할 것
4. 학생이 이야기 하는 쉬운 주제를 중심으로 대화하기
   - 학생들의 독특한 힘(Strength), 믿음, 가치
   - 독특한 삶의 기술(Life Skills)
   - 이미 나타나고 있는 변화(Pretreatment change)
   - 위험요소를 극복하는 힘: 탄력성(Resilience)
5. 학생의 특성을 긍정적으로 해석해 주기
6. 학생에게 도움이 되는 것은 확대하고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은 버릴 것

무기력한 학생의 변화를 끌어내는 기술들

1. 학생들이 덜 부담스러운 방식으로 관계 맺기
   - 산책, 학습관련 대화피하기, 바람작한 행동관련 대화 피하기, 학생의 흥미 관련 대화하기 등
2. 기적 질문을 통해 학생의 변화동기 유도하기
   - 기적이 일어나서 모든 것이 네가 원하는 대로 된다면 10년 후의 네 모습은?
3. 예외질문을 통한 학생의 문제해결능력 살려내기
   - 아주 조금이라도 좋았던 일 중에 기억나는 것은?
4. 학생의 자원활용하기
5. 유발적 질문하기
   - **현상유지의 불이익** : '현 상태에 대해 걱정되는 것은 무엇인가?'
   - **변화의 좋은 점** : '지금부터 5년 뒤에 너의 인생이 어떤 모습이면 좋겠니?' '체중을 줄이면 좋은 점이 무엇일까요?'
   - **변화에 따른 낙관론** : '원하기만 한다면 변할 수 있게 용기를 주는 것은 무엇인가요?', '무엇을 어떻게 하면 변화할 수 있나요?'
   - **변화의 중요성** : '이렇게 하는 것이 너에게 얼마나 중요한가?'

변화대화를 끌어내는 방법들

6. 결정저울 탐색하기
   - 현재 상태 혹은 행동의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 측면 모두를 이야기 할 수 있도록 함
7. 좀 더 자세하게 이야기 하게 하기
   - 변화해야 하는 이유 하나가 거론되면 좀 더 자세하게 이야기를 하도록 도와 줌
     - 명료화 요구, 어떤 방법으로? 얼마나 많이? 언제?
     - 구체적 예시를 요구
8. 미래를 예상해 보기
   - 내담자의 변화된 미래를 상상해보도록 함
     - '지금부터 10년 뒤에 어떤 상황이 당신을 기다리게 하고 싶습니까?'
   - 변화하지 않았을 때 앞으로의 예상하도록 함
     - '변화 없이 지금처럼 살아간다면 5년 후의 당신의 모습은?'

진척 없는 상담과정에서 고려사항

1. 학생들이 자신들의 문제를 변화시키는데 얼마나 관심을 보이고 있는가?
2. 상담에서 논의된 상담목표가 있는가?
3. 상담목표가 구체성과 분명함과 성취 가능하게 설정되었는가?
4. 그 목표는 누구의 목표인가?
5. 학생이 변화에 대해 염려하는가 혹은 양가적인가?
6. 학생이 상담과정을 뭔가 다른 것으로 경험하고 있는가? 아니면 같은 것으로 경험되고 있는가?
7. 학생에 대한 교사 자신의 관점이 이들에게 도움이 되고 있는가 아니면 방해를 하고 있는가?
8. 학생은 자신의 문제와 상담자, 상담과정에 대해 어떻게 보고 있는가?
9. 학생에 대해 새로운 관점을 제공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이 있는가?

수고하셨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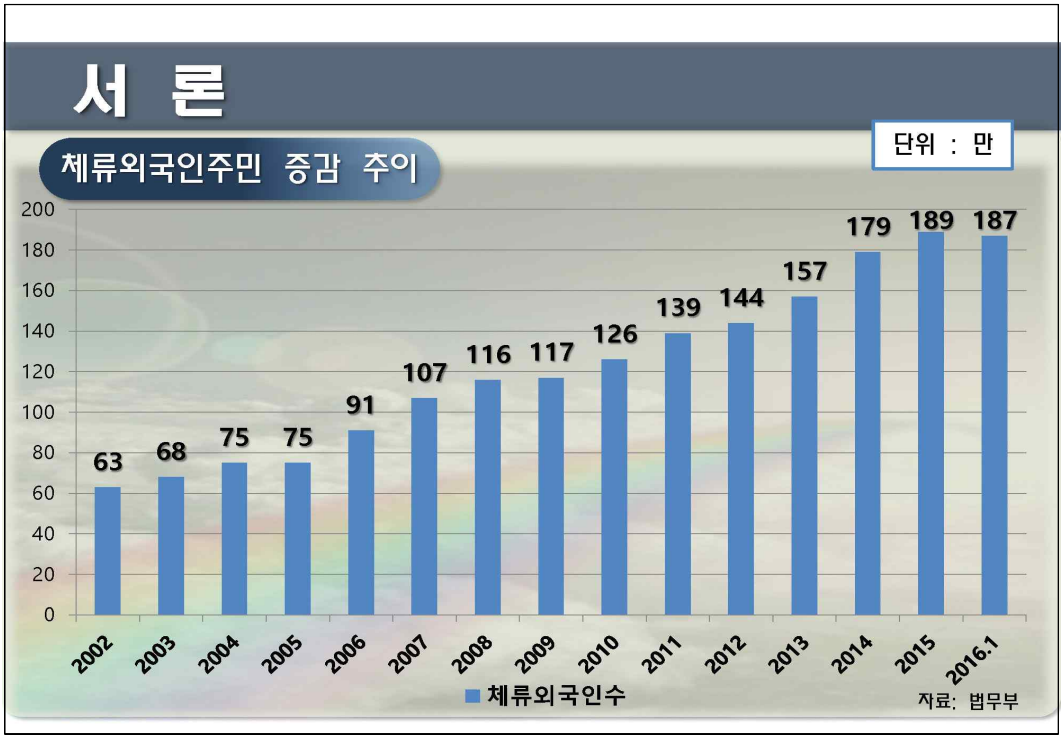
학업중단 위기학생의 이해

- 다문화 학생의 특성과 학교적응 -

오 성 배

동아대학교 교수

다문화 학생의
특성과 학교적응
오 성 배
(동아대학교 교육대학원
다문화교육전공 책임교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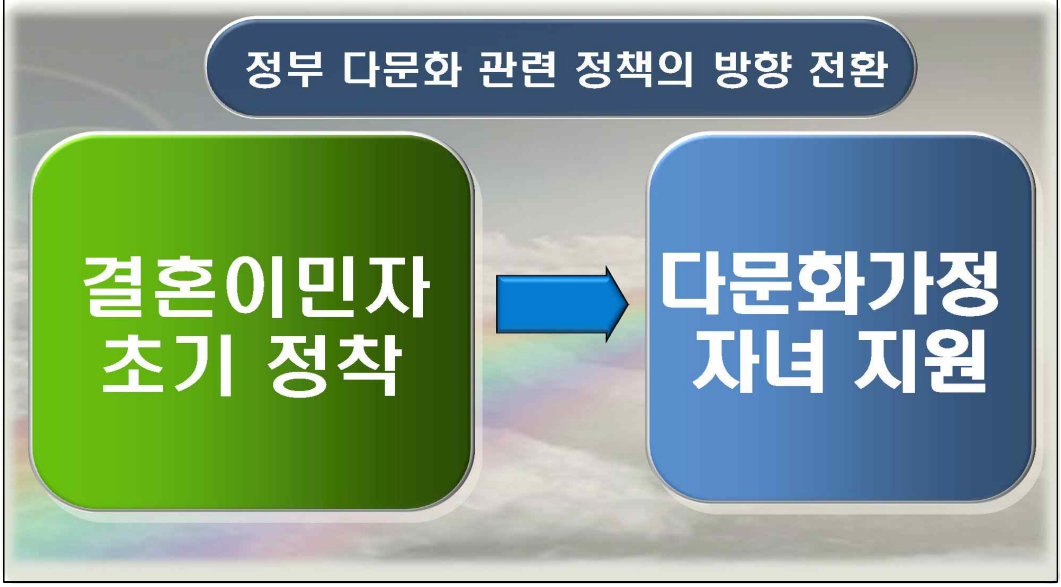

서 론
체류외국인주민 증감 추이
단위 : 만
200
180
160
140
120
100
80
60
40
20
0
63
68
75
75
91
107
116
117
126
139
144
157
179
189
187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1
체류외국인수
자료: 법무부

서 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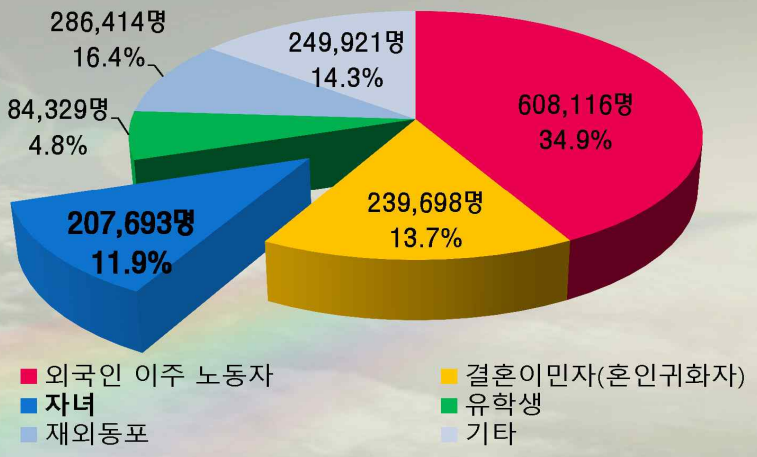
다문화가족 정책 방향 전환

정부의 다문화가족 정책이 방향 전환 하고 있다. 지금까지 '결혼이민자 초기 정착'에 초점을 맞췄다면 앞으로는 '자녀 지원'에 무게를 두기로 했다. 다문화 2세들이 취업과 군입대 문제에 맞닥뜨릴 만큼 성장했지만 우리 사회에 녹아드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판단에서다(국민일보. 2016년 3월 9일자 기사).

서 론



서 론



자료: 행정자치부. 2015년 지방자치단체 외국인주민 현황 조사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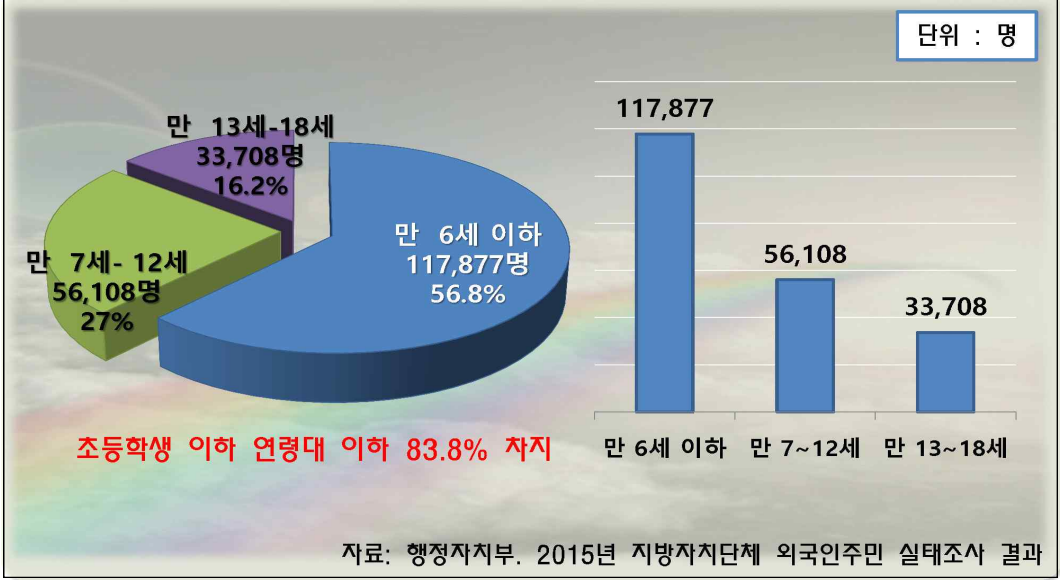
서 론

다문화가정 자녀의 증가(0세-18세)

단위: 천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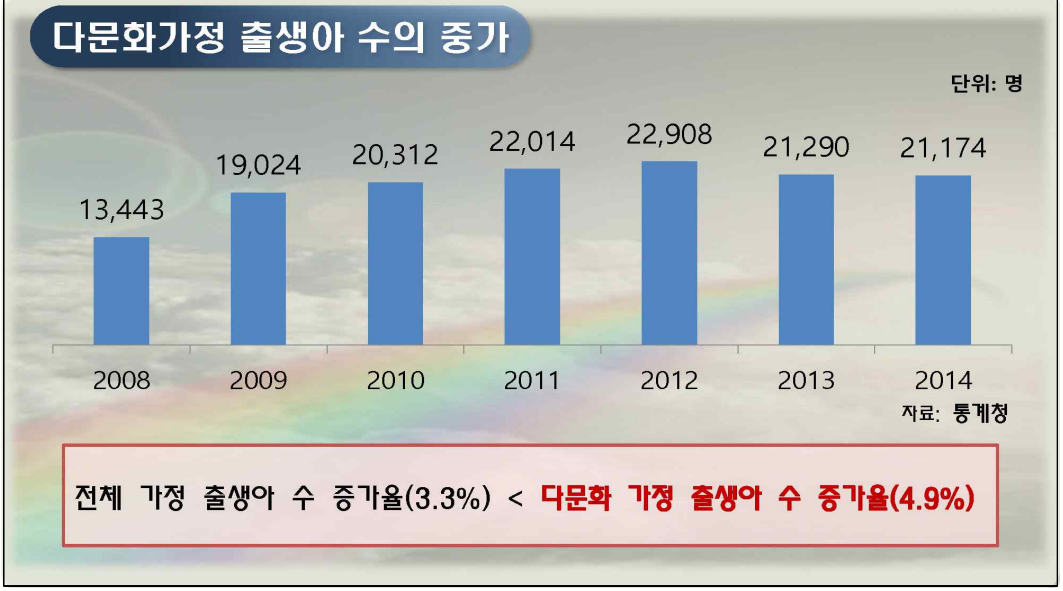
자료: 행정자치부. 2015년 지방자치단체 외국인주민 실태조사 결과

서 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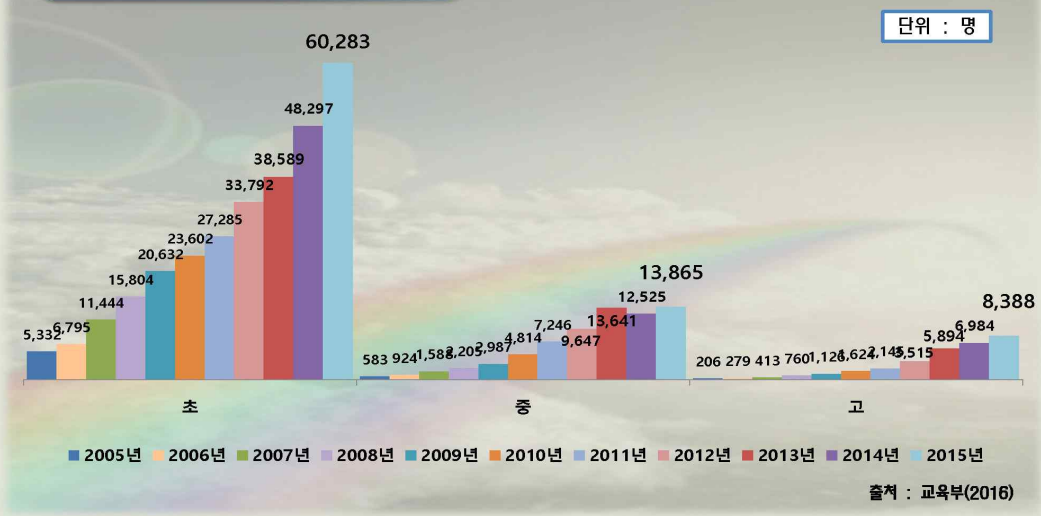
자료: 행정자치부. 2015년 지방자치단체 외국인주민 실태조사 결과

서 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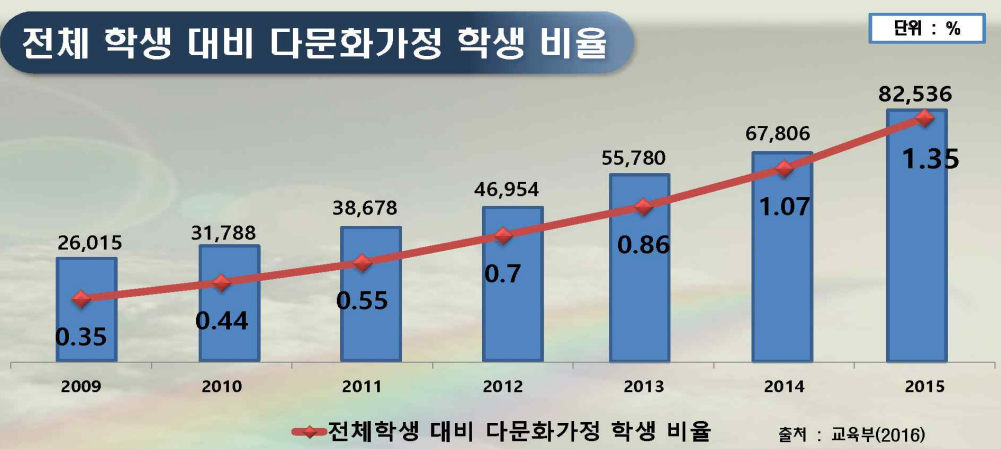
서 론

다문화가정 학생의 증가



서론

전체 학생 대비 다문화가정 학생 비율



- 전체 학생 가운데 특수교육 대상자의 비율은 약 1% 정도임.
- 2015년 전체 초등학생 가운데 다문화학생 비율 2% 넘어섬.
- 전체학생은 매년 20만명씩 감소, 다문화가정 학생은 1만명 이상 증가

서론

울산 다문화가정 학생 수 전망

➢ 전체 학생 대비 다문화가정 학생 비율 :
2012년 0.42% > 2017년 1.33% > 2022년 3.4% > 2027년 5.6% > 2032년 7.4%.

서 론

교육기회의 이론적 관점 : Rawls vs Nozick

구 분	Rawls	Nozick
철 학	정의(正義)론	자유주의
성장 환경	출생에 의한 우연한 결과	노력에 따른 차이
배분 방식	역진적 배분 (보상적 평등주의)	동일한 배분
교 육 관	완전한 공교육	완전한 사교육

서 론

교육기회의 의미

보상적 평등관의 정당성

능력과 수완이 우연하게 천부적으로 또는 환경적으로 얻어진 것이라면

소외된 계층에게 더 많은 기회나 혜택을 제공
출발점을 같게 만들어줌

일정 수준에 다 같이
도달할 수 있는
여건 조성

교육의 기회균등

다문화가정 유형의 다양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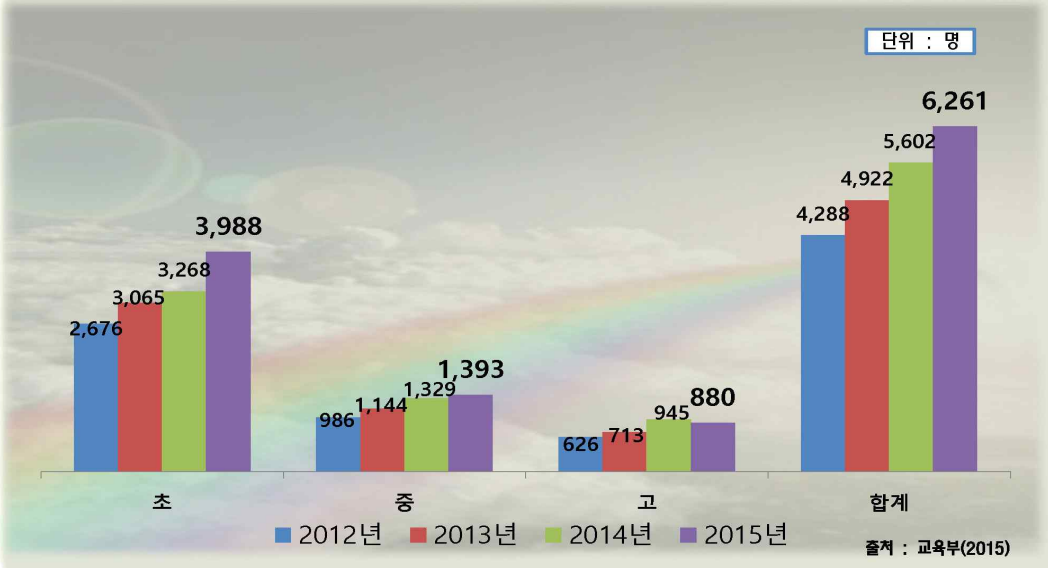
가정 유형		자녀 유형
국제결혼 가정	초혼가정	한국 출신 母 + 외국 출신 父의 자녀
		한국 출신 父 + 외국 출신 母의 자녀
	이혼가정	**외국 출신 母 홀로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재혼가정	전처 소생의 한국출신 자녀
		외국 출생 후 한국에 입국(귀화)한 자녀 ('중도입국 자녀')
외국인 가정		**외국 출생 자녀**
		한국 출생 자녀(무국적 자녀)
북한이탈 주민 가정		새터민 자녀
		비보호 자녀
난민 가정		난민 가정 자녀

다문화교육 허브 기관

중앙다문화교육센터

- ❒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산하 기관
- ❒ 교육부가 지정한 다문화교육 추진체계 중추기관
- ❒ 역할 : 다문화 친화적 교육환경 구축지원
  - 다문화교육 정책 연구 수행
  - 다문화교육사업 관리(컨설팅) 및 지원 : 우수 사례, 학부모 교육 등
  - 다문화 인식 제고를 위한 콘텐츠 개발
  - 다문화교육 관계자 역량 강화
  - 다문화교육 네트워크 구축

중도입국 학생 현황



중도입국 자녀의 특성

언어 및 문화 부적응

- 국내출생 국제결혼 가정 자녀와 처한 상황이 다름
- 출생국의 언어와 문화 체득
- 다른 국가에서 출생, 성장 도중에 한국으로 입국
- 문화적 혼란(의식주, 한국문화)

중도입국 자녀의 특성

낯선 가족의 형성

- 출생국 부모와 떨어져 있는 기간: 3 – 7년
- 별거 기간 소통의 단절, 부모에 대한 원망과 자존감 상실
- 입국 후 새로운 가정 구성원과 관계 정립
- 새로운 가정 구성원과 갈등(특히, 양부)

중도입국 자녀의 특성

자아정체성 혼란

- 자신의 의지보다는 부모의 재혼으로 한국에 입국 후 국적 변경
- 가정의 해체, 별거, 재결합, 타국으로의 이주 경험
- 심리, 정서적 불안과 위기 경험
- 진로 관련 도움이 필요한 시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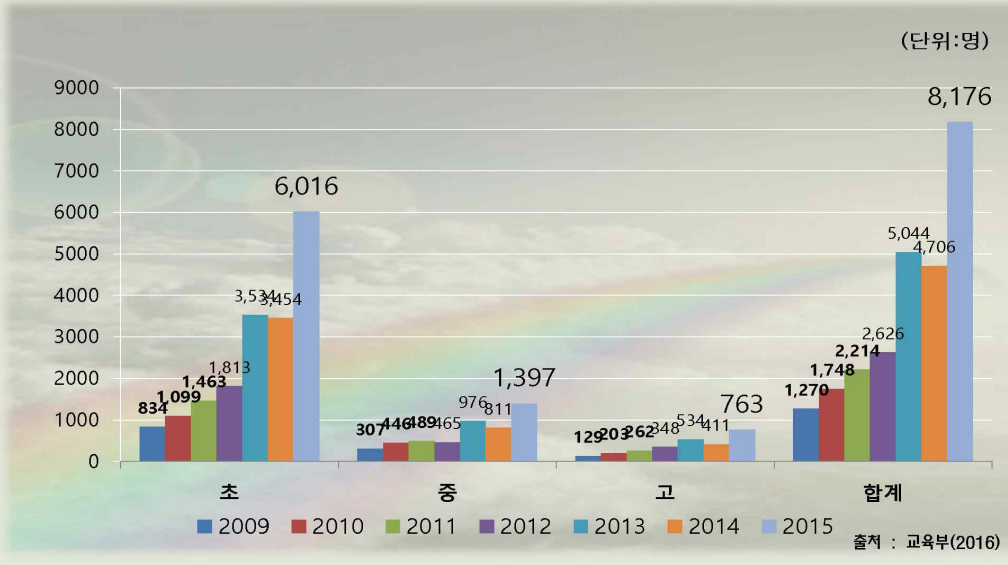
중도입국 자녀의 특성

중도입국 청소년 지원 사례

제천 폴리텍 다솜학교 '다문화청소년을 위한 직업 대안학교'

- ❒ 교육 목표 : 자주, 자조, 자립능력을 갖춘 민주시민 육성
- ❒ 대상 : 다문화가정 학생(주 대상은 중도입국 청소년)
- ❒ 교육 내용 : 보통교과, 전문교과, 창의적 체험활동
  한국어 수준별 학습 운영
- ❒ 학교특색사업 : 한국어 배움터 '다래교실' 운영, 학생상담프로그램 운영
- ❒ 중점주진사업
  - 한국사회에 정착할 수 있는 소양과 소질 함양
  - 기술을 연마하여 전문 직업능력 갖춤
  - 한국어교육을 통한 의사표현능력 향상
  - 공동생활, 문화체험, 사회적응력 증진

외국인 가정 자녀 재학 현황



외국인 가정 자녀 교육 지원 사례

서울재한몽골학교

- ❒ 1999년 12월 설립(중학교 단계까지 설립)
- ❒ 몽골 교육부 인가
- ❒ 한국에 정주 가능성, 몽골로 귀국 가능성 모두 감안한 교육과정 운영
- ❒ 교육과정 : 한국어, 몽골어, 보통교과, IT, 태권도 등
- ❒ 수준별 한국어 수업 진행
- ❒ 자연관찰학습, 현장견학, 체험학습 병행
- ❒ 부모의 90% 출신국 몽골, 대부분 3D업종에 종사

예비학교의 목적

◆ 다문화가정 자녀 가운데 한국어 미숙, 학교문화 부적응 등으로 정규 학교에 적응하기 어려운 학생 등을 대상

◆ 한국어 및 한국문화에 초점을 둔 교육 프로그램을 집중적 제공

◆ 이들의 원활한 공교육 진입을 지원

예비학교의 대상과 역할

대상

- ◆ 외국출생 중도입국 자녀
- ◆ 외국인가정 자녀
- ◆ 한국어 부족으로 의사소통이 불가능한 다문화 가정 자녀

역할

- ◆ 한국어 및 한국문화 집중교육을 통한 원적학교 또는 원적 학급 복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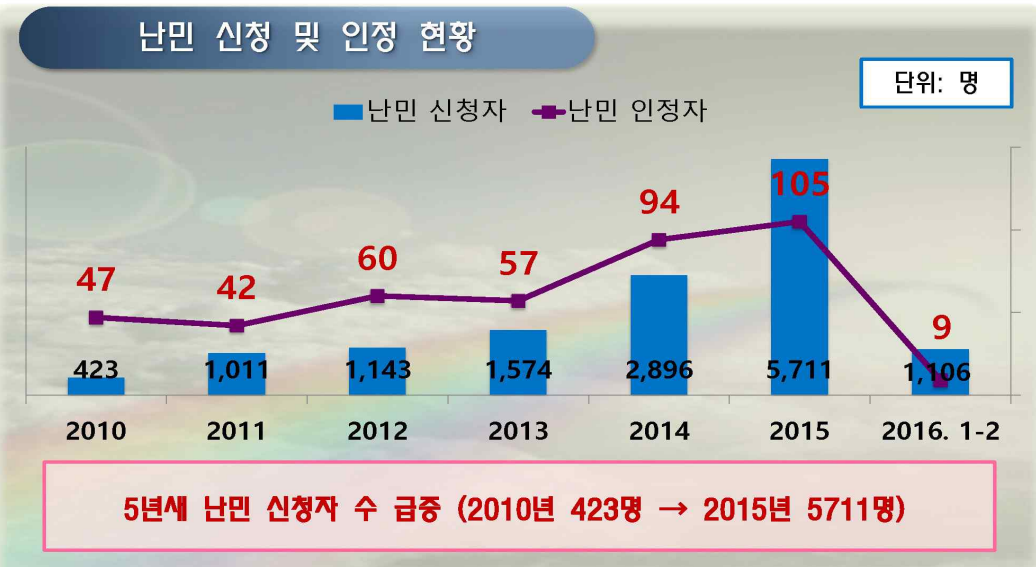
예비학교의 운영

예비학급	일반학급
▪ 한국어능력 진단> KSL 과정 ▪ 한국문화의 이해 ▪ 모국언어 및 문화의 이해	▪ 수강 가능한 교과목 수강 ▪ 예체능 교과 우선 수강

- 예비학교에 예비학급을 설치하여 한국어, 한국문화 집중 교육
- 예체능 등 통합교육 가능 교과는 일반학급에서 교육

➢ **찾아가는 예비학교 프로그램 활성화 : 교육부 기본 계획**

다문화가정 유형의 다양화



다문화가정 유형의 다양화

다문화 가정 유형의 다양화

유형별 특성과 요구의 다양화

교육적 접근 방식의 다양화

다문화가정 자녀의 교육실태

15~25세 다문화가족 자녀 활동 현황

단위 : %

자료: 2012 전국 다문화 가족 실태조사(여성가족부)

다문화 가정 자녀 교육지원

문제 극복의 가능성

- 유아기 언어 문화적응 교육 충실히 이루어진 경우 학업적응 원활
- 부모의 적극적인 자녀교육 참여 : '아버지 학교' 등의 부모교육
- 자녀대상 양질 특별 프로그램 지속 참여
- 담당(담임) 교사의 열정과 체계적 노력
- 인프라 구축 : 지역 다문화교육센터, 예비학교, 중점학교, 전문교원 양성, 연계협력체제 구축 등

한국사회의 다문화 수용 태도

사회 구성원의 시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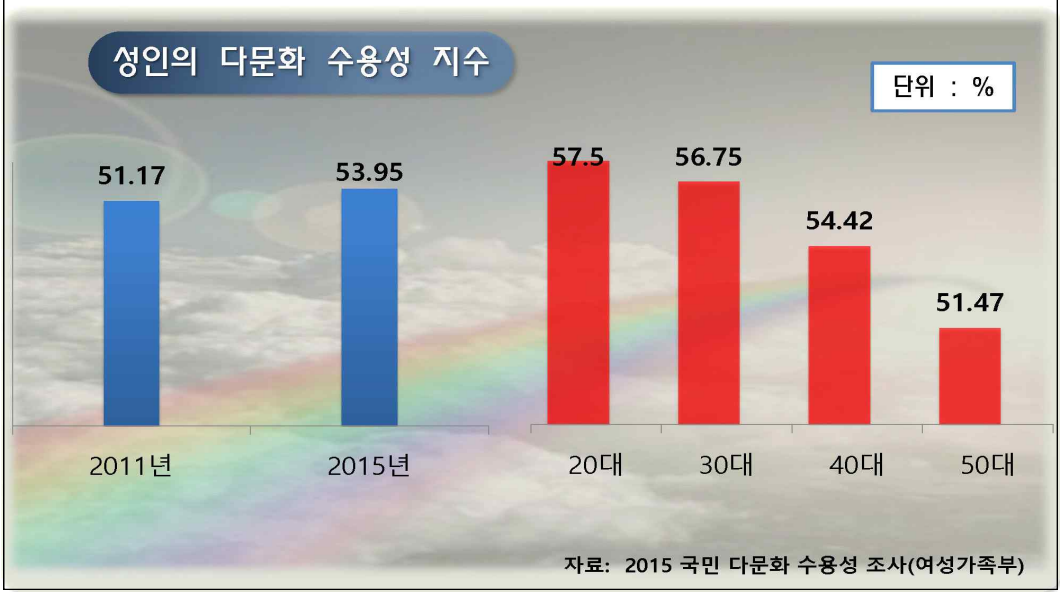
- '단일민족국가'라는 문화적 배타성 : 소외와 차별
- 비백인종 혼혈인과 동남아시아계 외국인에 대한 부정적 인식

한국사회의 다문화 수용 태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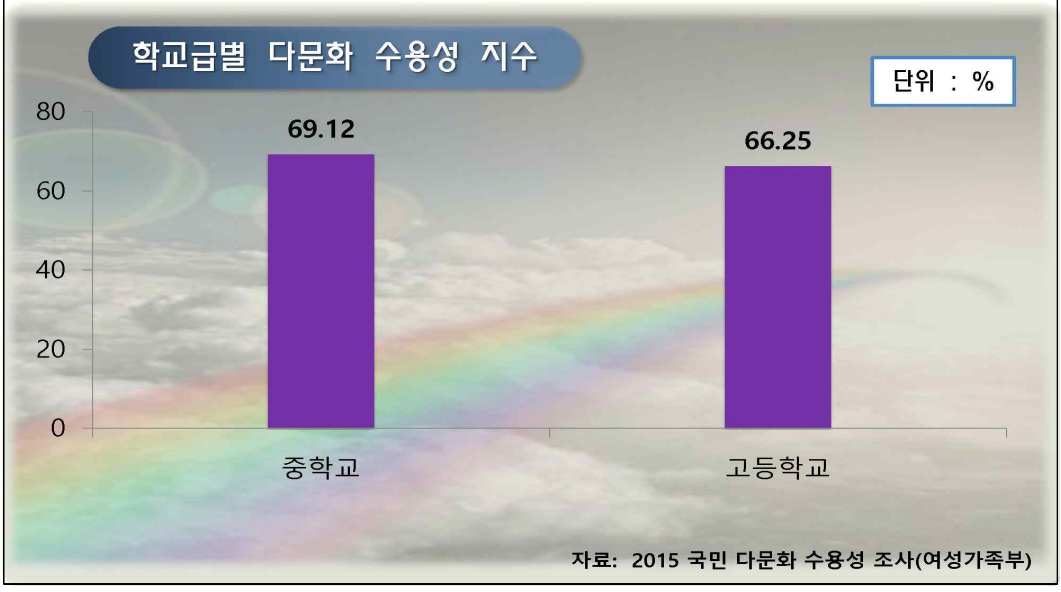
한국 사회의 다문화 수용 의식

- **표면적(이성적) 의식 vs 잠재적(정서적) 의식**
- **성인/고학력의 편견 : 사회주도층**

한국사회의 다문화 수용 태도



한국사회의 다문화 수용 태도



다문화교육의 방향

다문화 통합의 핵심 열쇠 "다문화 교육"

새로운 이주자
언어·문화 부적응

다문화가정
자녀 교육 격차

사회의 배타적 시각

다문화 교육

언어와 문화 적응

교육격차 해소

다문화 수용 태도 증진

다문화교육의 방향

다문화 통합의 핵심 요소는 "교육"

다문화 교육

- 다인종 다문화 사회로 접어들고 있음을 사회구성원들이 이해
- 소수 집단과 그 자녀에 대한 배려
- 다문화가 평화적으로 공존할 수 있도록 시행하는 모든 교육

결 론

제 언

다문화 사회 교사의 역할

- 본인과 주변 교사의 다문화 문제의식 제고
- 다문화가정 자녀의 성장실태 면밀한 확인과 지원
- 학부모교육 프로그램 다문화가정 부모(아버지) 적극 참여 유도
- 비다문화가정 자녀의 다문화 수용태도 증진 노력
- 다문화교육 연수 참여와 지역다문화교육센터 등 인프라 적극 활용
- 교사간 다문화교육 연구와 실천 네트워크 형성
- 다문화 전문 교원 도전

감 사 합 니 다.
오성배
동아대학교 교육대학원
다문화교육전공
책임교수
ohsb@dau.ac.kr

학업중단 위기학생을 위한 대안교실 운영 프로그램 사례 1

- 행복충전 꿈키움교실 -

박 선 애

대현초등학교 교사

대안교실 운영 현황

학교명	학교 내 대안교실														
	운영형태			주제별								지역별			
				동기유발 중심						진로직업중심	학업지원중심				
	전일제	반일제	주말및방학	상담중심	체육활동	문화예술	만들기활동	생태활동	기타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대현초등학교		❍		❍	❍	❍			❍	❍		❍			
	대안교실 명칭			참여인원			운영기간			주관부서		급별			
	행복충전 꿈키움 교실			25명(1기)			1년			생활 지도부		공립			

행복충전 꿈키움 교실 운영사례

대안교실 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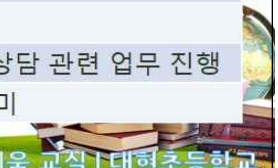
학 생 : 정서행동검사결과
"관심군&학교생활 부적응 학생"

◆ 1학년 - 3명, 4학년 - 4명,
◆ 2학년 - 3명, 3학년 - 2명

행복충전 꿈키움 교실 운영사례

대안교실 운영 학교공동체 구성

담당업무	직위	담당내용
자문위원(2명)	교장 교감	대안교실 운영 프로그램에 대한 자문활동, 대안교실 운영에 대한 교직원 인식 전환 나눔
총괄(1명)	생활지도 부장	대안교실 전반적인 활동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전문담당교사와 협조체제 구축 및 업무결재 수행
프로그램 컨설팅(1명)	수석교사	운영 프로그램 컨설팅 및 학부모 연수
담당교사(1명)	교사	대안교실 학생, 학부모, 담당과목 강사 및 교사수급 담당, 대안교실 학생 담임교사의 협조로 전반적인 업무
대안교실 교사(7명)	담임교사	대안교실 사회성 프로그램에 참여 및 공연 프로그램 지원 및 동아리 운영
강사(6명)	외부강사	프로그램 수업 운영
상담지원(1명)	전문상담사	대안교실 학생, 학부모 개인 집단 상담 관련 업무 진행
학부모(11명)		대안교실 외부공연 프로그램 도우미



행복충전 꿈키움 교실 프로그램 사례
대안교실 운영목표
다양한 대안교육 기회 제공
학업 중단 예방
심리적 지지력, 자신감 향상
행복충전 꿈키움 교실 | 대현초등학교

행복충전 꿈키움 교실 프로그램 사례
프로그램 구성
자존감을 높이는 문화, 체육 활동 위주
일체감과 소속감을 느끼는 치유중점
일반 학생들과 함께 참여
행복충전 꿈키움 교실 | 대현초등학교

행복충전 꿈키움 교실 프로그램 사례

세부운영 프로그램

- 연간 운영 : 38주 142회 프로그램 1회기
- 대상 학생 : 1~4학년 25명
- 수업 일시 : 수(5, 6교시), 금(6교시), 매일(8~9시)

행복충전 꿈키움 교실 프로그램 사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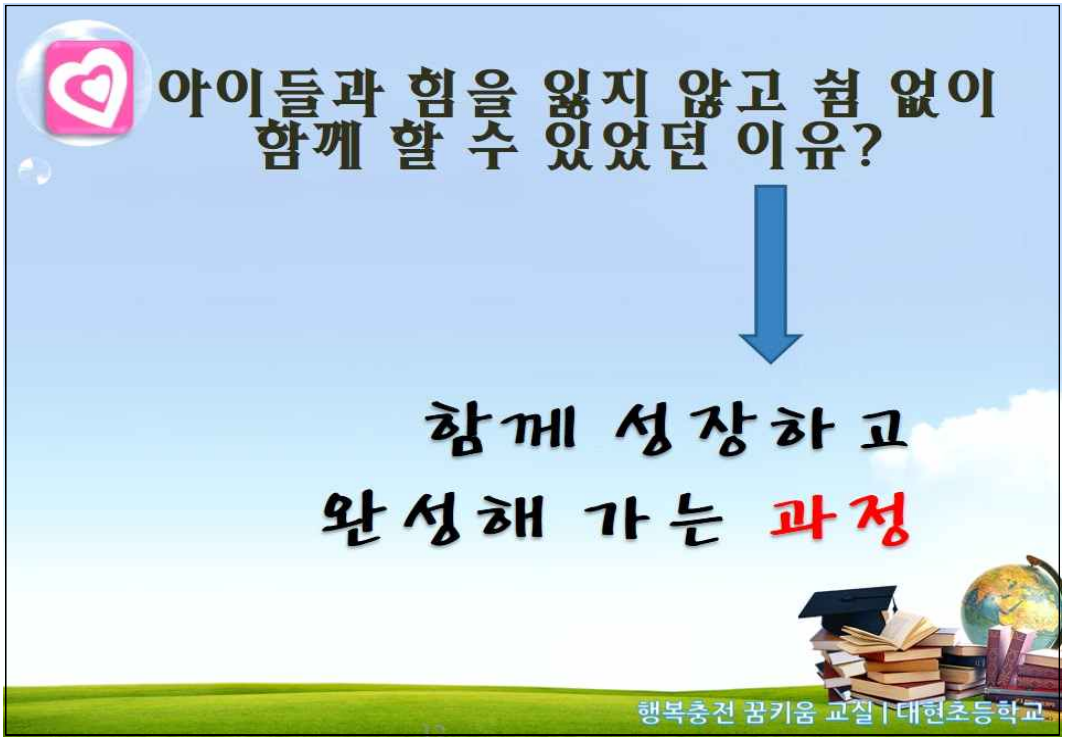
수업 내용

	월	화	수	목	금	토
8~9시	국학기공 연습 프로그램 64회					-현장학습 3회 -공연 3회 -가족캠프 1회
	수요일		금요일			
5교시 6교시	-정서조절 프로그램 12회 -파워브레인 학습캠프 1회 -원예치료수업 6회 -미술치료 8회 -음악치료 5회		자기성장 프로그램 25회 "HSP 12단"			

행복충전 꿈키움 교실 프로그램 소개
정서조절 프로그램
"소중한 나,
행복한 우리"
학습집중력
캠프 프로그램
"파워브레인"
감정치유 프로그램
"원예치료"
기쁘지 아니한가,
우리 가족
힐링 캠프
행복충전 꿈키움 교실 | 대현초등학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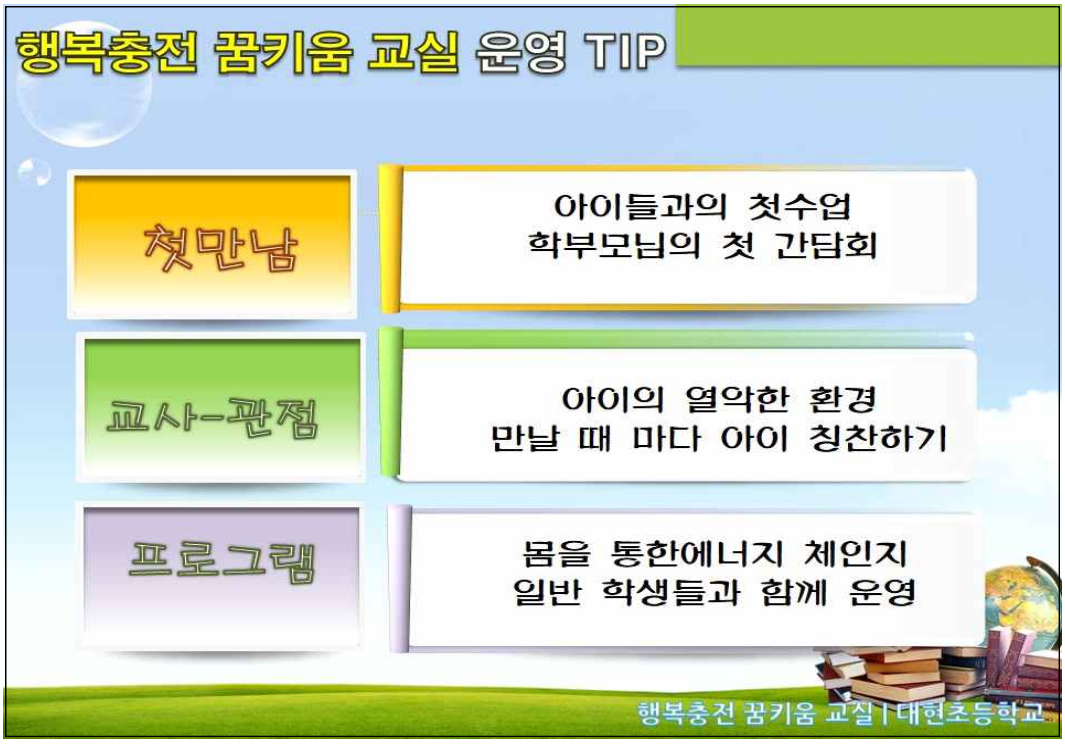
행복충전 꿈키움 교실 프로그램 소개
자기성장 프로그램
"HSP 12단
이야기"
자존감 향상을
위한 집단
미술치료
정서함양 프로그램
"우클렐레 연주"
명상 프로그램
"국학기공을 통한
에너지 집중"
행복충전 꿈키움 교실 | 대현초등학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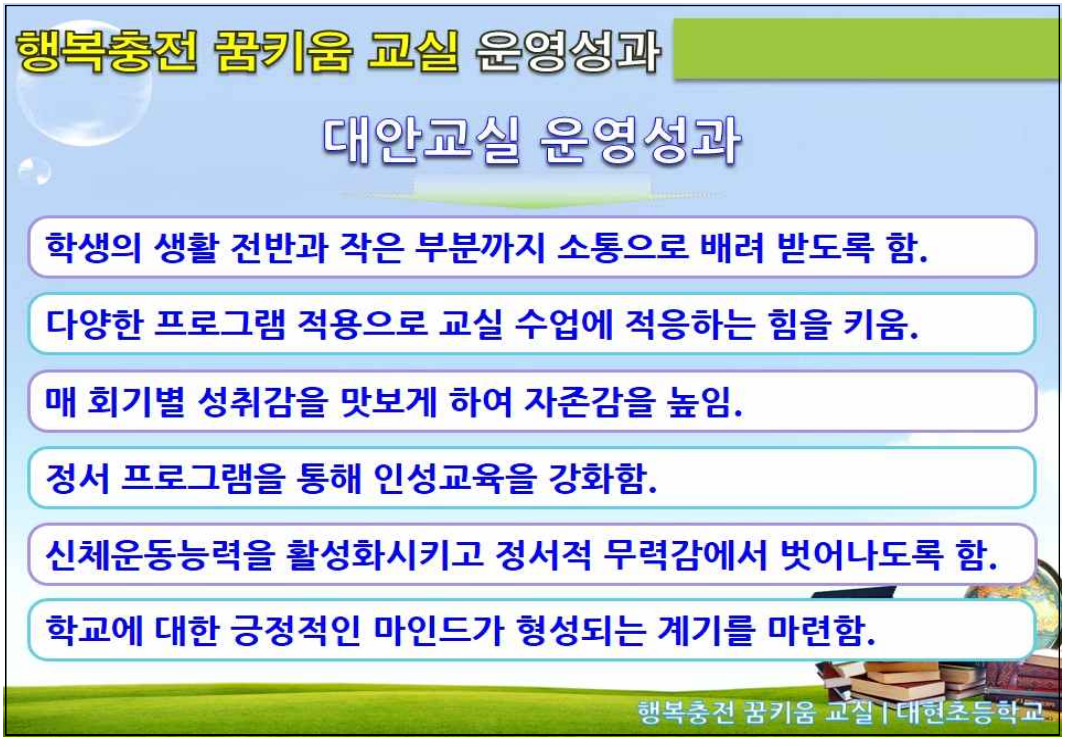
행복충전 꿈키움 교실 프로그램 소개
MBC방송국 견학,
방송직업체험
현장학습
아이스링크장
현장학습
2015
한글문화예술제
공연
교육감기
학교스포츠클럽
대회 출전
행복충전 꿈키움 교실 | 대현초등학교


아이들과 힘을 잃지 않고 쉼 없이
함께 할 수 있었던 이유?
함께 성장하고
완성해 가는 과정
행복충전 꿈키움 교실 | 대현초등학교

네 안의 무한한 가능성
5%
95%

너 = 완전하다


행복충전 꿈키움 교실 운영 TIP
첫만남
아이들과의 첫수업
학부모님의 첫 간담회
교사-관점
아이의 열악한 환경
만날 때 마다 아이 칭찬하기
프로그램
몸을 통한에너지 체인지
일반 학생들과 함께 운영
행복충전 꿈키움 교실 | 대현초등학교


행복충전 꿈키움 교실 운영성과
대안교실 운영성과
학생의 생활 전반과 작은 부분까지 소통으로 배려 받도록 함.
다양한 프로그램 적용으로 교실 수업에 적응하는 힘을 키움.
매 회기별 성취감을 맛보게 하여 자존감을 높임.
정서 프로그램을 통해 인성교육을 강화함.
신체운동능력을 활성화시키고 정서적 무력감에서 벗어나도록 함.
학교에 대한 긍정적인 마인드가 형성되는 계기를 마련함.
행복충전 꿈키움 교실 | 대현초등학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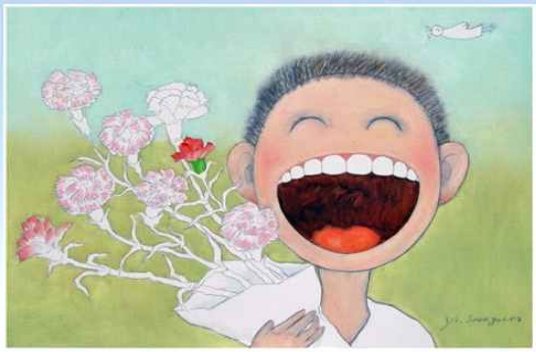
행복충전 꿈키움 교실 개선

대안교실 운영 상 어려움 및 극복 과정

- 금 6교시 수업은 수업 결손 이유로 학부모, 담임이 다소 민감해 함
- 총괄업무 담당자의 주당 수업 시수를 최소화해야 함
- 대안교실이 학생 중심의 맞춤형 수업 형태라는 인식 전환 필요

함께 나누어서 기쁘고 ~

감사합니다



학업중단 위기학생을 위한 대안교실 운영 프로그램 사례 2

- 다함께 성장교실 -

이 경 원

진부고등학교 교사

학업중단 위기학생을 위한 대안교실 운영 프로그램 사례

- 대안교육과 만남 -

이 경 원

진부고등학교 교사

대안교육과 만남

2015년 4월 진부고등학교로 출근을 한다. 건강상의 이유로 새로 전근 가는 학교임에도 3월을 병가로 병원 및 집에서 보내고 4월 첫 출근. 출근 첫 날부터 도난사건 신고와 함께 4명의 학부모님의 항의방문으로 시작되었다. 낯선 환경에서 낯선 업무에 정신을 추스를 시간조차 없이 분실 신고를 한 친구에게는 마음의 위로와 노력을 해보겠다는 상투적인 이야기 그리고 학부모님들께는 죄송하다는 이야기로 출근 첫 날을 보냈다.

3월 한 달간 쌓여있던 학생부 문서와 업무가 한꺼번에 밀려왔고, 학생들의 분실신고와 상습적 흡연학생지도, 생활태도 등 학생부장에게 바라는 교직원들의 당부가 정신없이 밀려오는 와중에 대안교실신청 공문이 왔다. 처음 접해보는 학생부업무에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줄 알고 신청하며 운영하게 된 대안교실운영은 그렇게 교직생활에 새로운 경험을 만들어주었다.

무단결석 및 지각, 상습적 흡연, 학교부적응 등 전학교와는 사뭇 다른 학교분위기. 무엇보다도 가장 큰 힘겨움은 아이들의 무표정이었다. 나름 학생들과는 소통이 되는 교사라고 생각해왔는데 여실히 무너지는 교사에 대한 아이들이 가진 마음의 장벽과 무기력에 적잖이 힘들었던 기억이다.

주변에 위치한 대도시로 고등학교를 진학하지 못한 열등감과 입시위주의 학교운영에 대한 반감 그리고 너무나 익숙한 지역환경 때문이리라 짐작해보며 아이들의 상처들과

마주할 수 있는 기회인 대안교실에 바쁜 업무에도 희망과 설렘이 있었다.

학과수업과 입시위주의 방과후활동, 야간자율학습에 힘겨웠다면 체험위주의 활동과 다양한 경험의 기회를 제공하는 대안교실에는 경쟁률 높게 지원하지 않을까하며 모집공고를 내었다.

가정통신문 내용

안녕하십니까? 학부모님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본교에서는 학생들이 심리적인 어려움이나 고민을 이야기하고, 함께하는 활동을 통하여 더불어 사는 방법을 배우며, 건전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자 학교 내 대안 교실 **『2015학년도 1학기 다함께 성장교실』**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학부모님의 많은 관심과 격려 부탁드리며 아래 프로그램을 참고하셔서 학생 편에 참가 동의서를 5**월 29일까지** 학생편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 프로그램명 : 다함께 성장교실
2. 장소 : 학교 및 체험 교실(오대정, 켄터키 승마장), 학교밖 문화활동
3. 기간 : 2015. 5. 18 ~ 7. 17(6주)
4. 참가대상 : 1학년 10명 내외
5. 운영 프로그램 : 승마, 국궁, 다담심리연구소 모래치료(자아존중감향상), 문화체험활동(영화관람), 사제동행 트레킹, 학부모와 함께하는 감동캠프 등
6. 운영방법 :

프로그램	승마	국궁	다담심리연구소	학부모와 함께하는 감동캠프	기타(문화체험, 사제동행 등)
운영시간	화요일	수요일	3회	7월예정	유동적

※ 상기일정은 학교사정과 강사 및 체험장의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7. 참가비 : 무료(대안교실 운영비 지원)

하지만, 담임선생님들과 가정통신문을 통한 홍보에도 단 한명도 지원자가 없었다. 왜그럴까? 어찌해야할까? 대안교실의 문을 두드리는 학생들은 없지만, 아이들은 학생부실을 자주 찾는다.

자퇴희망자, 상습흡연, 음주적발자, 장기결석자, 장기무단지각학생, 무기력학생 등 낯선 행동의 아이들이 학생부실을 자주 들락인다. 아이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싶지만 아이들은 쉬이 자신들의 이야기를 털어내지 않고 자퇴를 희망한다, 학교가 싫다, 벌점을 달라는 극단적인 요구만 반복한다.

그래서, 대안교실운영을 위해 아이들 모집방향을 변경했다.

처음으로 찾아온 두 아이는 자퇴를 희망하는 학생들. 자퇴희망 이유를 물으니 학교에서 할 것이 없고, 배우는 것이 자신한테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이야기 한다. 자퇴를 하면 무엇을 하고 싶냐는 질문에 아르바이트를 해서 사업자금을 모으고 싶다고 한다. 자신만의 분식가게를 가지고 싶다는 친구 그래서 제안해 보았다. 대안교실에 들어와 학교 내 분식점을 열어 먼저 경험을 해보는 것이 어떻냐며 사업자금을 줄테니 너만의 가게를 운영 해보라며 대안교실로 끌어들였다.

두 번째 아이들은 장기결석자들. 가정방문을 통해 부모님들의 무관심 속에 아이들이 방치되었음을 알았다. 장기결석으로 인한 징계조치보다는 대안교실에 들어와 취미생활을 만들어 보는 것이 어떻냐며 대안교실로 끌어들였다.

세 번째 아이들은 상습흡연자들. '부모님께 상습흡연으로 인한 징계안내를 드릴까?' 아니면 '대안교실에 들어올래?'라는 반협박적인 권유를 통해 끌어들였다.

그 다음부터는 모집이 쉬었다. 낯선 행동의 학생들이 적잖이 있었기에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아이들을 대안교실로 불러들였고 아이들과 함께 대안교육의 장으로 함께 들어갔다.

〈대안학급 학생 선발〉

– 인문계 고등학교에서의 '대안학급'에 대한 부정적인 선입관으로 학생과 학부모의 자발적 참여가 저조하여 평소 학생생활교육부 책임교사로 근무하며 살펴보았던 장기결석자, 상습흡연자, 교우관계에 어려움이 있는 학생, 정서불안학생, 자퇴희망자 들을 개별적으로 찾아가 상담하며 대안학급학생을 모집함. 일률적인 홍보에 따른 모집이 아닌 개별적 접근을 통해 학생들의 개개인의 성향과 문제점을 깊이 있게 이해하고 개별상담을 통해 모집하여 프로그램 또한 개개인에게 적절한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제안 및 진행함.

대안교실 프로그램 운영

아이들은 무표정에 경계심, 스스로의 이야기를 하지 않는다. 정해진 프로그램을 통해 대안교실을 운영하는 것보다 각기 다른 이유로 대안교실에 참여하게 된 아이들이 각자의 성향이 표현될 수 있는 방향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이 실제적이란 생각이 들었다. 하지만, 아이들은 자신의 이야기를 하지 않는다.

• 1단계 마음열기 - 자아존중감이 낮고, 자기표현이 서툰 학생들, 학교부적응(흡연, 장기결석 등)이란 자책감에 쉽게 학교에 적응하지 못하는 학생들의 마음열기 과정으로 지역사회의 협조를 얻어 승마레슨, 바리스타교육, 국궁교육, 텃밭체험, 상담활동 등 평소 체험하기 힘든 프로그램들을 구성하여 함께 참여하며 학생들의 변화를 살펴보았다. '이런 것 한번 해보지 않을래?, 너 이거 잘한다'라는 말을 건넬 수 있는 마음의 틈이 생기길 바라며 재촉하지 않고 기다려 주었다. 규칙적이고 계획적인 그리고 지속적인 활동이 아닌 그냥 걷고, 농장에서 수확도 하며 그때그때 이러저런 활동들을 하며 학생들이 흥미를 찾고, 자신의 욕구를 표현할 수 있을 때까지 곁에서 함께 있어 주었다.

• 2단계 자아존중감 찾기 - 아이들은 쉽게 꿈을 이야기 하지 않는다. 꿈을 이야기하고 희망을 이야기 하면 주어질 책임감이 부담스러워 꿈이 있다고 해도 혼자만의 생각으로 묻어둔다. 특히, 입시위주 학교문화와 거리가 있는 꿈이라면 더더욱 그렇다. 하물며, 대안교실에 참여하는 학생들이라면 더더욱 그러리라 생각되었다.

마음열기 과정을 통해 아이들의 표정을 살피며 관심 있어 하는 것들에 대해 이야기를 건넸다.

낯선 행동이 다르듯 아이들의 관심사나 하고픈 것들도 차이가 있고 여전히 아무것도 하기 싫어하는 학생들도 있었지만 우선 학생들의 개별적인 성향에 맞는 경험들을 제공해주었다.

자신만의 가게를 가지고 싶어 하는 학생은 '푸짐'이라는 와플가게를, 커피에 관심 있는 학생은 '아름다운'카페를, 인테리어에 관심 있는 학생은 학교 복도와 빈 교실을

꾸미게 하였다. 그 외에 메이크업 강좌, 바리스타강좌, 사진강좌 등 학생들이 희망하는 전문가들을 초청하여 강연을 들을 수 있도록 하였고, 상습흡연자 친구들에게는 금연캠페인 활동을 스스로 기획하여 진행해 보도록 권하였다.

〈대안학급 프로그램 진행〉

– 학생들의 개별적인 취향에 따라 하고픈 경험들을 제공하며 능동적으로 자아존중감을 향상할 수 있도록 노력함.(사례: 교내와플가게 '푸짐' 운영, 교내카페 '아름다운' 운영, 복도전시물 꾸미기, 전문직업인과 함께하는 메이크업 강좌, 바리스타 강좌, 아날로그 사진강좌, 인테리어 강좌 등 운영). 전문가들과의 만남으로 배우고 익힌 지식과 기술을 통해 인테리어에 관심 많은 학생들이 빈 교실을 꾸미고, 바리스타가 꿈인 학생들이 커피를 직접 로스팅, 추출, 판매하게 하고, 사업가가 꿈인 학생에게 와플가게를 열어 판매하게 하는 등 자신들의 재능을 표현하며 자아존중감을 향상 시킬 수 있도록 함. 디자이너가 되고 싶은 학생에게는 복도 및 계단을 꾸밀 수 있는 기회를, 상시흡연자들에게 금연홍보캠페인을 운영하게 하여 금연팔찌, 금연홍보UCC, 금연문화행사 등을 진행하며 관심 밖 아이들에서 긍정적 시선을 느낄 수 있도록 함.

• 3단계 함께 어울어지기 - 사회복지사가 상주하는 학교에 근무한 적이 있었다. 낯선 행동을 하는 친구들과 함께 먹고 자며 전국을 거닐고 함께 벽화도 그리면서 참 좋은 벗으로 곁에 머물러주며 상처를 보다듬어 주는 모습을 보았다. 또한, 아이들도 복지사와 함께하는 과정에 흥겹게 참여하며 밝은 웃음을 보여주었다. 나만의 생각일지는 모르겠지만 그러한 밝은 모습이 그곳에서만 머무르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학교 안에서는, 친구들과의 관계에서는, 교실수업에서는 여전히 낯선 행동을 하는 아이들. 낯선 행동의 아이들에게는 그들만의 프로그램도 중요하지만 다른 학생들과의 평범함 속에 어울어짐이 더 필요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와플가게 주인에게는 아침식사를 거른 친구들을 위해 1-2교시 사이에 와플을 제공하게, 카페주인에게는 중식시간 따뜻한 차 한 잔을, 금연선구자들에게는 미니콘서트와 함께 직접 제작한 서약서와 금연팔찌 선물을 제공하게 하는 등 학교문화를 스스로 만들어가며 학교 속, 친구들 속, 수업 속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하였다.

관심 밖 아이들 혹은 따가운 시선에 익숙했던 아이들은 교사들의 시선 속에서, 친구들의 시선 속에서 평소와는 다른 호기심과 관심, 때로는 부러움의 시선을 마주하게 되었다. 불만 가득 품은 무표정의 아이들이 보여준 작은 변화에 교사들은 관심과 칭찬을 건넸고, 늘상 그러했던 친구의 행동에 아이들은 관심과 이야기를 건넨다. 그러면서 낯선 행동의 아이들은 교사와의 만남에서, 친구들과의 만남에서 웃음을 보인다. 그렇게 학교생활로 들어오는 모습을 보인다.

<함께 어울어지기>

- 와플가게, 교내카페 등 대안교실 프로그램을 통해 익힌 기술을 남들에게 베풀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차가운 시선과 배척이 아닌 존중받으며 일반 학생들과 함께 어우러질 수 있게 함. 가수가 꿈이었지만 주눅 들어 있던 학생에게는 중식시간 미니콘서트를 열어 학생과 교직원이 학생의 재능을 보며 긍정의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게 하였고, 상시 흡연학생들은 금연홍보캠페인 및 학교주변 담배꽁초 줍기, 금연문화제를 등을 기획 진행하며 자신들이 제작한 금연팔찌와 서약서를 제공하며 일반학생들에게 큰 호응을 받고, 교사와 어른의 시선을 피하는 학생들이 아닌 당당하게 스스로의 잘못을 뉘우치며 학교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함. 또한, 또래친구들과 함께하는 대형걸개그림 제작을 함께하며 소외된 학생들이 아닌 학교의 건강한 구성원으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함. 자퇴희망 학생들은 희망하는 체험활동을 제공 또는 스스로의 목적을 찾을 때까지 기다려주며 학교에 다닐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찰과 상담활동을 통해 스스로 졸업을 하겠다는 다짐을 할 수 있도록 함.

• 4단계 따뜻한 관심 - 친구들 속으로, 학교 안으로, 교사들의 시선 속으로 들어오기 시작한 아이들은 아직은 서먹하고 여전히 학교는 낯설다. 변하지 않는 학교 구조와 시스템, 성적과 입시 위주의 문화에 대한 반감과 힘겨움이 남아있기에 그러하지 않을까? 그래도 자신에게 주어지는 기회와 쉽게 접하지 못했던 관심에 대해 놓치고 싶지 않은 마음에 낯설지만 학교 안으로 들어온 것은 아닐까 생각된다. 힘겹게 발을 들인 아이들이 안착하게 할 수 있는 것은? 아마도 부모들의 적극적인 지지가 아닐까 생각되었다. 그래서 부모님들이 학교에서의 자녀모습에 대해 그려볼 수 있고 귀가 후에는 이런 저런 이야기를 나눌 수 있도록 아이들의 활동사진과 함께 문자를 보내드리면서 관심을 유도하였다. 또한, 평범한 가정이 아닌 학생들에게는 일반 학생들의 학부모님들이 자녀에게 보내온 격려 문자를 읽으며 부모의 마음을 생각해 볼 수 있도록 복도에 게시하여 따뜻한 지지를 느낄 수 있도록 하였다.

대안교실을 운영하며 학생들 개개인의 다양한 감정들에 대해 공감하며 조언하기보다는 곁에서 머물려 인정하여주고 기다려 줌을 통해 기댈 수 있고, 존중받을 수 있음을 느낄 수 있도록 노력함. 자기의 감정을 표현하며, 스스로의 흥미를 찾고 계발하여 남들에게 베푸는 일련의 과정을 통해 학교생활의 흥미를 찾아가며 억눌린 감정이 아닌 밝게 웃으며 숨거나 피하지 않고 당당하게 자신의 위치에서 학교에 생활할 수 있도록 유도함. 무엇보다 부모님과 지역사회의 따뜻한 관심을 유도하기 위해 부모님들의 응원과 격려 메세지를 받아 복도에 게시하여 읽게 하고, 부모님들이 맞이하는 등굣길 행사를 진행하며 학생들이 관심을 받고 사랑을 받고 있음을 느낄 수 있도록 함.

대안교실 프로그램에 참여하였던 아이가 건넨 쪽지가 있다. 아마도 이 쪽지가 아이들의 마음을 가장 잘 표현하고 있지 않을까 생각된다. 자신의 행동에 대해 눈치를 보고 주눅 들어 있는 아이들, 선생님들에 대한 불신과 교과수업에 건강하게 참여하지 못한 미안함을 까칠하게 표현하던 아이들의 말.

"설마 해주겠어? 그냥 말뿐일 거야"

이 말이 아이들의 마음이지 않을까 생각해본다. 기대고 싶고 하고픈 것이 있지만 쉽게 말하기 힘든 마음.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지만 같은 목소리를 내는 교사와 어른들에 대한 불신이 고스란히 담겨있음을 본다.

이경원 선생님께

선생님! 저 ○○이에요 헤헷 어제 미용강의랑 실습 너무 좋았고 재밌었어요! 어려운 부탁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덕분에 많이 배웠고 제 꿈에 한 발 더 다가가게 된 것 같아요. △△이도 재밌었다고 했고 다른 아이들도 열심히 들었던 것 같아요

선생님께서 처음 이런 것들을 해보지 않겠느냐고 하셨을 땐 사실 많이 당황했어요. 제가 수업도 안 듣고 화장만 고치고 있을 때 혼내 주실 줄 알았는데 그런 제안은 처음이었고, 인문계고등학교에서 실현될만한 강의가 아니었기에 반신반의 하면서 하겠다고 했고, 주변 친구들은 '과연 해줄 것 같냐? 안될 것 같다'라는 말 들을 했거든요. 저도 안 될 줄 알았는데 선생님께서 될 것 같다며 명단을 받아오라 하였을 땐 되게 신기했고, 주변 친구들도 '와아 진짜 해주나보네'라며 자기 장래에 대한 것들도 얘기해 볼까 하더라구요. 선생님은 정말 대단하신 것 같아요. 수업시간에도 모둠활동 하는 것 저는 괜찮고 좋아요! 그래서 바라는 사항 쓸 때에도 백지로 냈어요. 저는 재밌었고 좋아서 불만은 없어서...안 쓴 다른 아이들도 같은 마음으로 안쓴거예요!!! 그러니까 수업방식 안 바꾸셔도 되고 이대로만 재밌는 수업해주시면 좋겠어요. 다른 아이들이 아직 낯선 방식이라 그럴거예요. 속 안상해하셨으면 좋겠고 제가 많이 존경해요 쌤. 항상 감사합니다.

P.S. 사실 어제 페북메세지로 보내려 했는데 성의없어 보일까봐요ㅠ.ㅠ 직접 쓰는게 진실되 보일 것 같아서 썼습니다.

하고픈 것을 이야기했을 때 따라올 책임감과 부담감, 그리고 설마 될까라는 의구심이 표현기회의 제공과 체험활동을 통해 믿음으로 변화해가며 아이들은 평소 꺼내지 않았던 '감사'라는 단어를 자주 이야기한다. 그리고 무엇보다 가장 큰 변화는 성적이나 행동에 상관없이 밝아졌다는 것. 웃음이 많아지고 선생님의 지적에도 밝게 수긍하는 모습을 보인다. 아이들의 불만과 투박한 표현, 까칠한 표정은 결국 자신들의 욕구가 표현되지 못했던 환경에서 기인된 것은 아닌가 생각해보게 되었다.

<학교문화 만들기>

– 낯선 행동(무단결석, 흡연, 학교부적응, 정서불안, 우울증 등)의 학생들이 스스로의 적성과 흥미를 찾도록 다양한 경험의 기회 제공을 통한 자아존중감을 향상. 무엇보다 대안학급이라는 별개의 배려 받는 학생들이 아닌 일반학생들과의 관계 속에서 성장하고 치유할 수 있고, 학생과 교사, 학부모의 긍정적인 시선 속에서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고 어울리며 성장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기획 운영하여 학교생활에 흥겹게 적응할 수 있도록 함. 특히, 학생들의 변화가 학교문화로 자리매김하며 입시위주의 학교문화에서 학생들의 재능이 표현되고 인정받을 수 있는 다양한 학교문화가 만들어지는데 큰 역할을 함.

대안교실 운영 후 학생들과 학교문화의 변화

입시위주의 학교운영에서 소외되었던 학생들이 자신들의 소질과 흥미를 찾아 표현하는 경험을 통해 부정적인 자아인식이 긍정적으로 변화하며 자아존중감이 높아졌고, 학기 초 어둡고 날카로운 인상은 웃음기 많은 친근한 표정으로 변화함을 보았다. 낯선 행동으로 차가운 시선을 받던 아이들의 변화는 다른 학생들에게도 많은 자극을 주었고, 자기표현을 통한 진로와 적성을 찾고자 하는 학생들이 늘어나는 계기가 되었다. 교과중심프로그램의 학교문화가 중식시간 교내카페, 중식시간 미니콘서트 및 가요제, 학생주도의 금연캠페인 활동, 칭찬과 격려가 있는 등굣길 맞이 행사 등으로 다양한 학교문화가 만들어지고 진행되고 있으며, 무엇보다 학교운영에 참여가 저조하였던 부모님들이 시험기간 간식을 나눠주며 등굣길 맞이 행사를 하고 학교 행사가 있을 때마다 함께 참여하며 학생과 학부모 교사가 함께 어우러지는 학교문화를 만들어 가고 있다. 교과 성적만이 대우받고, 낯선 행동으로 인한 선입관으로 소외되거나 따돌림을 받는 것이 암묵적으로 인정받던 학교문화가 다양한 개성이 표현되고 재능이 발현될 수 있는 기회의 제공이 많아지고, 학생간, 사제지간의 프로그램들이 많이 생기며 행복한 학교문화를 만들어 가는데 큰 역할을 하고 있음을 본다.

2016년 2월 또 하나의 감동. 졸업식이 진행되었다. 3학년 학생들이 교감, 교장선생님을 찾아 자신들만의 졸업식을 만들어보겠다며 제안을 하고 운영위원회에 심의를 받는 과정에서 아이들은 한 단계 성장한 모습을 보여주었고, 교사들은 흔쾌히 아이들의 요구에 응해주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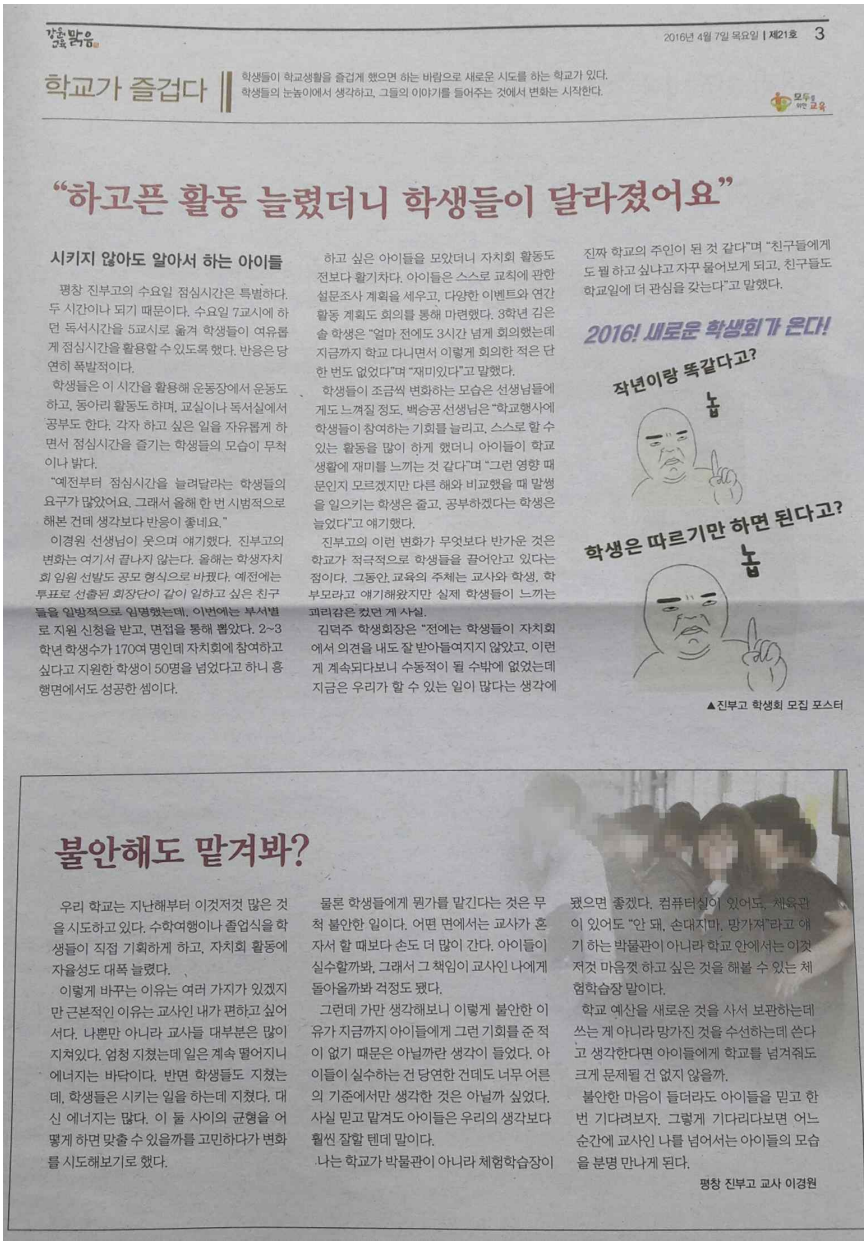
모든 프로그램을 졸업생들이 스스로 기획하고 안내장을 만들어 홍보하고 졸업식장을 꾸미고 진행하는 등 졸업생 스스로 주인공이 되어 부모님들을 모시고 '우리 이렇게 의젓해요, 이제 사회로 떠납니다'라고 당당하게 표현하는 졸업식을 통해 많은 학부모들이 감동을 받았다고 이야기한다.

나보다는 조금은 안전한 길로, 나보다는 조금은 평안한 길로 우리 자녀가 성장했으면 하는 따뜻한 사랑이 아이들에게는 힘겨운 기대로 부담이지는 않았을까 생각해본다. 아이들은 넘어지고 다쳐도 그렇게 자신들에게 기회가 주어지기를 바라고 있었던 것 아닐까?

"아이들에게 필요한 건 표현의 기회! 어른들에게 필요한 건 아이들을 지켜볼 수 있는 여유!"

2016년 진부고등학교는 또 다른 도전을 시작한다. 수요일 중식시간을 두 시간으로 늘려놓은 것이 그것이다. 특별한 제재도 없다. 말 그대로 중식시간 두 시간 마음껏 하고픈 것 하며 자기 시간을 가져보게 하였다. 인문계 고등학교에서 두 시간의 점심시간이라...그것도 아무 제약도 없는 자유시간. '그냥 놀기만 하면 어쩌지?, 아무것도 못하고 시간낭비만 하면 어쩌지? 적당한 프로그램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 여러 고민들이 있었다. 하지만, 자신만의 시간을 가져보지 못하는 아이들에게 수요일 점심시간만이라도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의지로 행동하게 해보며 자신과의 만남을 가질 수 있도록 해보자. 막연히 시간만 보내는 것도 그 아이의 몫이라 생각하고 지켜보자라는 생각으로 시작된 두 시간의 중식시간은 벌써부터 많은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 2015년 방과후 참여학생 15%가 85%로, 2015년 지각생 60~70%가 3-4%로, 잘 꾸며진 독서실을 채우지 못하던 학교분위기가 이제는 독서실이 부족하여 모든 교실을 개방하여 야간자율학습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중식시간마다 아이들은 다채로운 행사를 진행하며 자신만의 시간을 보낸다. 언제까지 어떻게 진행될지 모르는 일이지만 놀랍도록 긍정적인 변화에 설렘이 크다.

이러한 진부고등학교의 많은 변화의 시작은 대안교실에서 비롯되었다고 생각된다. 낯선 행동의 아이들이 자신을 표현하기 시작하면서 교사와 학생들의 시선은 우려와 염려에서 기대와 설렘으로 변화되었고, 그러한 시선의 변화는 학생들을 바라보는 어른들의 시선을 못미더움에서 믿음으로 바꾸면서 조금씩 더 많은 영역에서 학교의 주인공으로 자리매김하는 학생들의 모습을 보게 되었다.



학교가 즐겁다

학생들이 학교생활을 즐겁게 했으면 하는 바람으로 새로운 시도를 하는 학교가 있다. 학생들의 눈높이에서 생각하고,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에서 변화는 시작한다.

모두를 위한 교육

"하고픈 활동 늘렸더니 학생들이 달라졌어요"

시키지 않아도 알아서 하는 아이들

평창 진부고의 수요일 점심시간은 특별하다. 두 시간이나 되기 때문이다. 수요일 7교시에 하던 독서시간을 5교시로 옮겨 학생들이 여유롭게 점심시간을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반응은 당연히 폭발적이다.

학생들은 이 시간을 활용해 운동장에서 운동도 하고, 동아리 활동도 하며, 교실이나 독서실에서 공부도 한다. 각자 하고 싶은 일을 자유롭게 하면서 점심시간을 즐기는 학생들의 모습이 무척이나 밝다.

"예전부터 점심시간을 늘려달라는 학생들의 요구가 많았어요. 그래서 올해 한 번 시범적으로 해본 건데 생각보다 반응이 좋네요."

이경원 선생님이 웃으며 얘기했다. 진부고의 변화는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올해는 학생자치회 임원 선발도 공모 형식으로 바꿨다. 예전에는 *투표로 선출된 회장단이 같이 일하고 싶은 친구*들을 일방적으로 임명했는데, 이번에는 부서별로 지원 신청을 받고, 면접을 통해 뽑았다. 2~3학년 학생수가 170여 명인데 자치회에 참여하고 싶다고 지원한 학생이 50명을 넘었다고 하니 흥행면에서도 성공한 셈이다.

하고 싶은 아이들을 모았더니 자치회 활동도 전보다 활기차다. 아이들은 스스로 교칙에 관한 설문조사 계획을 세우고, 다양한 이벤트와 연간 활동 계획도 회의를 통해 마련했다. 3학년 김은솔 학생은 "얼마 전에도 3시간 넘게 회의했는데 지금까지 학교 다니면서 이렇게 회의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다"며 "재미있다"고 말했다.

학생들이 조금씩 변화하는 모습은 선생님들에게도 느껴질 정도. 백승공 선생님은 "학교행사에 학생들이 참여하는 기회를 늘리고, 스스로 할 수 있는 활동을 많이 하게 했더니 아이들이 학교생활에 재미를 느끼는 것 같다"며 "그런 영향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다른 해와 비교했을 때 말썽을 일으키는 학생은 줄고, 공부하겠다는 학생은 늘었다"고 얘기했다.

진부고의 이런 변화가 무엇보다 반가운 것은 학교가 적극적으로 학생들을 끌어안고 있다는 점이다. 그동안 교육의 주체는 교사와 학생, 학부모라고 얘기해왔지만 실제 학생들이 느끼는 괴리감은 컸던 게 사실.

김덕주 학생회장은 "전에는 학생들이 자치회에서 의견을 내도 잘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이런 게 계속되다보니 수동적이 될 수밖에 없었는데 지금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많다는 생각에 진짜 학교의 주인이 된 것 같다"며 "친구들에게도 뭘 하고 싶냐고 자꾸 물어보게 되고, 친구들도 학교일에 더 관심을 갖는다"고 말했다.

▲진부고 학생회 모집 포스터

불안해도 맡겨봐?

우리 학교는 지난해부터 이것저것 많은 것을 시도하고 있다. 수학여행이나 졸업식을 학생들이 직접 기획하게 하고, 자치회 활동에 자율성도 대폭 늘렸다.

이렇게 바꾸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근본적인 이유는 교사인 내가 편하고 싶어서다. 나뿐만 아니라 교사들 대부분은 많이 지쳐있다. 엄청 지쳤는데 일은 계속 떨어지니 에너지는 바닥이다. 반면 학생들도 지쳤는데, 학생들은 시키는 일을 하는데 지쳤다. 대신 에너지는 많다. 이 둘 사이의 균형을 어떻게 하면 맞출 수 있을까를 고민하다가 변화를 시도해보기로 했다.

물론 학생들에게 뭔가를 맡긴다는 것은 무척 불안한 일이다. 어떤 면에서는 교사가 혼자서 할 때보다 손도 더 많이 간다. 아이들이 실수할까봐, 그래서 그 책임이 교사인 나에게 돌아올까봐 걱정도 됐다.

그런데 가만 생각해보니 이렇게 불안한 이유가 지금까지 아이들에게 그런 기회를 준 적이 없기 때문은 아닐까란 생각이 들었다. 아이들이 실수하는 건 당연한 건데도 너무 어른의 기준에서만 생각한 것은 아닐까 싶었다. 사실 믿고 맡겨도 아이들은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잘할 텐데 말이다.

나는 학교가 박물관이 아니라 체험학습장이 됐으면 좋겠다. 컴퓨터실이 있어도, 체육관이 있어도 "안 돼, 손대지마, 망가져"라고 얘기하는 박물관이 아니라 학교 안에서는 이것저것 마음껏 하고 싶은 것을 해볼 수 있는 체험학습장 말이다.

학교 예산을 새로운 것을 사서 보관하는데 쓰는 게 아니라 망가진 것을 수선하는데 쓴다고 생각한다면 아이들에게 학교를 넘겨줘도 크게 문제될 건 없지 않을까.

불안한 마음이 들더라도 아이들을 믿고 한 번 기다려보자. 그렇게 기다리다보면 어느 순간에 교사인 나를 넘어서는 아이들의 모습을 분명 만나게 된다.

평창 진부고 교사 이경원

대안교실을 운영하는 일반 교사로서의 고민

몇 몇의 낯선 행동을 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참 많은 시간을 함께 보냈다. 초임교사 시절, 선배님의 말씀이 떠오른다. '이선생 아이들은 어른들이 곁에 머물러 주면 절대 어긋나지 않아!' 그 말씀으로 교직생활을 하고 있다. 그렇듯 대안교실 아이들도 곁에 머물며 지켜보아 주었다. 그런 시간들 속에 이런 의문이 들었다. 낯선 행동의 학생들만의 프로그램이 아닌 모든 학생들에게 곁에 머물러 줄 어른들이 있다면 낯선 행동을 하는 학생들이 줄지 않을까?

교사와 학생간의 관계를 경제적인 관점으로 보며 교사 수는 계속 줄어들고, 사회문제로 청소년문화가 주목받으면서 학교는 과도한 업무에 시달리고 있다. 안전교육, 흡연, 음주, 아동폭력, 성폭력, 가정폭력, 정서행동검사, 인성교육, 학교폭력 열거하기도 힘든 업무들로 교과수업에 치중하기 힘든 것은 벌써 오래전이다. 이러한 업무 속에서 수업시간 틈틈이 학생들을 만나고, 방과 후에 학생들을 인솔한다. 출장비도 강사료도 지급받지 못하고 아이들과 함께 한다.

이것이 과연 경제적인 걸까? 이것이 과연 합리적인 방법일까? 많은 고민이 오간다. 낯선 행동을 하는 아이들과 보내는 시간동안 더 많은 학생들이 교사인 나의 시선에서 벗어나고, 나의 가족 또한 나의 시선에서 벗어난다. 또 다른 낯선 행동 학생이 나타난다.

담임교사부터 부장교사들, 관리자 분들까지 함께 아이들을 곁에서 바라볼 수 있는 여유가 있어야 근본적인 해결이 아닐까 생각해본다. 대안교실, 어깨동무, 음주흡연 등 수많은 예산이 학교로 전달된다. 참 많은 대규모 연수들이 전국단위로 진행된다. 가끔 그런 생각을 해본다. 이 예산이면 학급당 학생수를 줄이고, 교사를 충분히 충원하여 교사당 학생수를 줄이게 되어 교사의 눈에 아이들이 들어올 수 있지 않을까? 또한, 지자체의 문화센터, 읍면사무소, 체육관 등 공공시설에 청소년 활동전문가를 야간에 상주시키며 학교 밖 활동 공간을 만들어주면 어떨까? 실업율도 낮추고 아이들도 언제나 관심 받을 수 있지 않을까 혼자 넋두리를 해본다.

아이들의 변화 속에서 긍정의 에너지를 받지만, 어딘가 모를 씁쓸함이 남는다.

※ 진부고등학교를 한 눈에 - 진부고등학교 페이스북 주소 목록(클릭하세요)

http://zump.kr/2y

학업중단 위기학생을 위한 대안교실 운영 프로그램 사례 3

- 진로집중반: 융합협력수업 -

이 재 영

영문고등학교 교사

진로집중반 개설 및 프로그램 운영을 통한 전일제 대안교실운영

이 재 영
영문고등학교 교사

We all have a right to education and to finish primary school which should be free. We should be able to learn a career or make use of our skills. Our parents have the right to choose how and what we learn. We should learn about the United Nations and about how to get on with other people and to respect their rights. (The 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 Article 26: simplified version by Amnesty International)

우리 모두는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지며 무상이어야 하는 초등교육을 마쳐야 할 권리를 가진다. 우리는 직업을 배우거나 우리의 기술을 이용할 수 있어야한다. 우리 부모님은 우리가 어떻게 배우고 무엇을 배울지 선택할 권리를 가지고 있다. 우리는 UN에 관해 배워야 하며 다른 사람들과 함께 잘 지내는 법과 그들의 권리를 존중하는 법에 대해 배워야한다. (세계인권선언문 제26조)

가. 대안교실 운영목표

학생들의 다양한 학습욕구를 해소하고, 진로에 대한 폭넓은 방향을 제시: 학생중심의 교육과정 운영을 목적으로, 학생들의 진로와 적성을 학생, 교사, 전문가가 함께 찾아가며, 학생들이 스스로 공부하고 스스로 삶을 개척해 가도록 돕는 계기를 마련함

나. “진로집중반”(학교내 대안교실) 프로그램 개발 및 구성

1, 2학년 학교부적응(예상)학생, 돌봄과 관심이 필요한 학생, 혹은 다양한 대안적 교육을 희망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학급명칭을 “진로집중반”이라 칭하는 전일제 대안교실 개설하고, 별도의 교육과정을 편성하여 제공함

1) 학생구성방법 (한 학년에 한 학급씩 구성)

- 대상학생의 선정 방법(2학년): 아래의 두 가지 경우로 선정하게 됨
  - ○ 1학년 때 “진로집중반”에 참여한 학생 중 계속 대안교육을 희망하는 학생의 경우 지속하도록 함.
  - ○ 2학년에 진급하면서 “집로집중반”을 희망하는 학생의 경우 교감과 학생 상담 후 학부모 동의를 거쳐 대안교실을 신청
- 대상학생의 선정 방법(1학년: 대안교실은 2학기부터 실시)
  - ○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및 학기 초 수업 중 학생들에게 “진로집중반”에 대해 홍보하고 희망학생이 학부모 동의를 거쳐 대안교실을 신청
  - ○ 학교 수업에 참여하면서 어려움을 학생이 호소하는 경우, 담임 혹은 Wee Class 담당자에게 면담을 의뢰하고 학생이 희망하는 경우 학부모 동의를 거쳐 대안교실을 신청
  - ○ 수업시간에 교사가 수업참여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을 발견한 경우, Wee Class 담당자 혹은 교감에게 보고하여 학생 상담 후 학생이 희망하는 경우 학부모 동의를 거쳐 대안교실을 신청

2) 지도인력구성 - 대안교실 운영 학교공동체 구성

담당업무	직위	담당내용
총괄	교감	대안교실 전반적인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진로·진학상담부장 및 대안교실 전문담당교사와 협조체제 구축 (외부기관 강사 및 협력기관 수급협조)
진로·진학	진로·진학 상담부장	진로·진학상담부내에 진로, 진학지도, 학업중단예방, 대안교실, Wee Class, New Start 프로그램, 교육복지사업 등을 운영하는 교사(5명)과 상담사(1명)을 배치하여 원활한 소통이 되는 운영체계 구축

담당업무	직위	담당내용
대안교실 전문담당 교사	교사	대안교실 참가 학생, 학부모, 담당과목 강사 및 교사수급 및 전반적인 대안교실 업무 담당
대안교실 강사	시간강사	Push Up프로그램, 도예치료, 음악, 미술치료, 연극치료, 목공, 학생선택프로그램 담당
대안교실 교사	교사	대안교실 학생 학급 담임 담당 (각 학년 1명)과 대안교실 외 정규반 수업도 담당하는 본교 교사들로 교과간 협력수업 담당 및 외부강사 수업에 임장지도
외부협력기관	상담사, 전문인력	Wee Center, 안동시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공예센터 - 상담, 직업체험

*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교사의 역할: 학생들이 자율적으로 자신의 진로를 탐색하고 찾아갈 수 있는 조력자임과 동시에 문제를 의논하고 신뢰할 수 있는 버팀목
*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교사의 태도: 참여 학생들에게 항상 긍정적인 가르침, 도움과 피드백을 줄 수 있도록 일관성있는 마음가짐이 필요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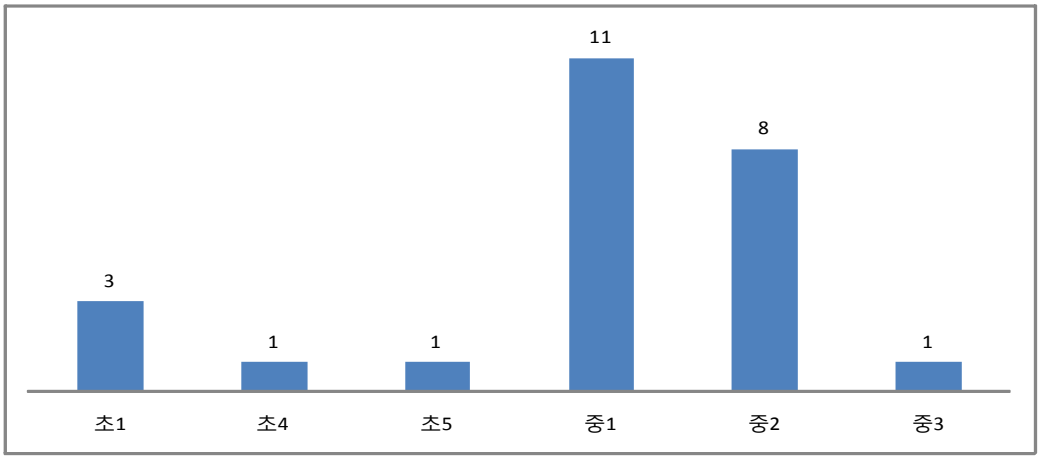
다. 2016년 대안교실 참여학생 특성 (진로집중반 2학년 25명)

1) MBTI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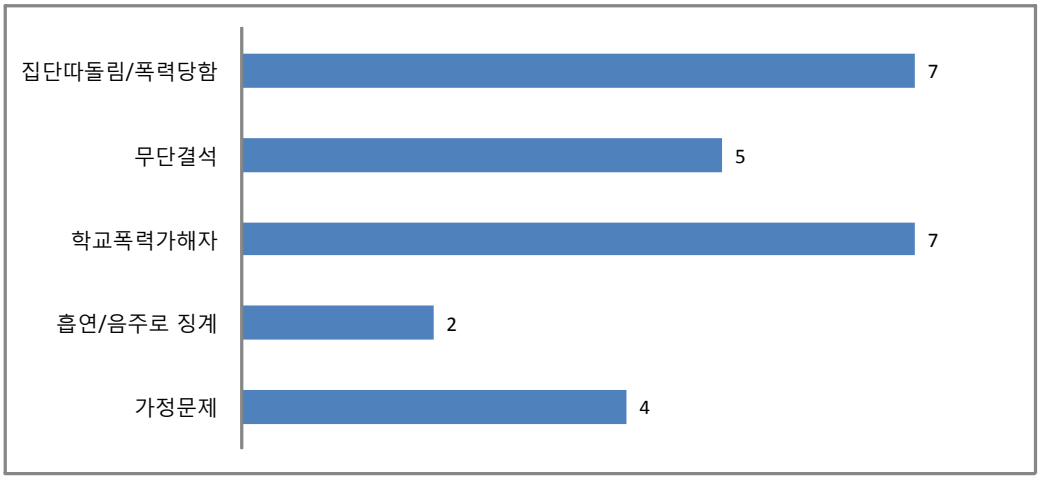
ISTJ	ISFJ	INFJ	INTJ
0	0	0	0
ISTP	ISFP	INFP	INTP
3	3	3	4
ESTP	ESFP	ENFP	ENTP
6	3	1	2
ESTJ	ESFJ	ENFJ	ENTJ
0	0	0	0

2) 학습에 흥미가 없어지기 시작한 시기

(주원인: 학습이 어렵고 재미없어서 /친구와 노는 것이 재미있어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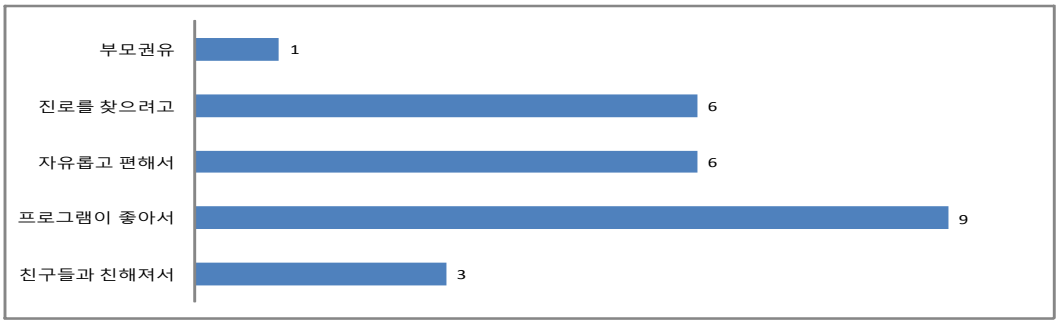


3)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 입학(혹은 복학)하기 전까지의 학생 상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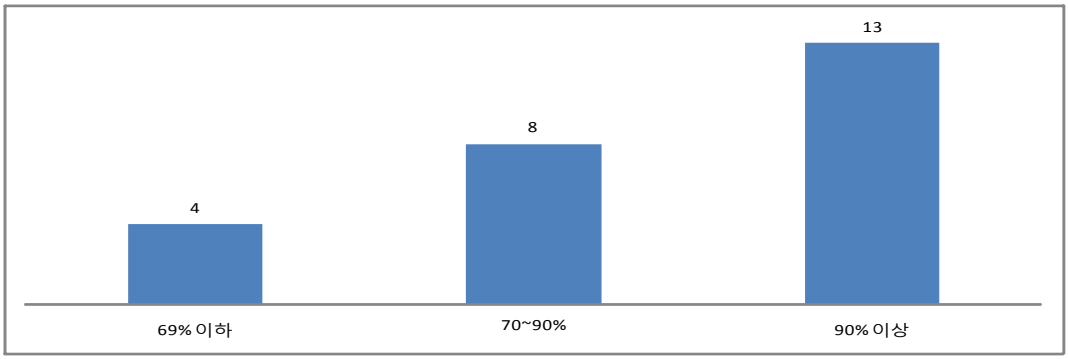


* 한부모 혹은 조모와 거주하는 학생: 12명 (4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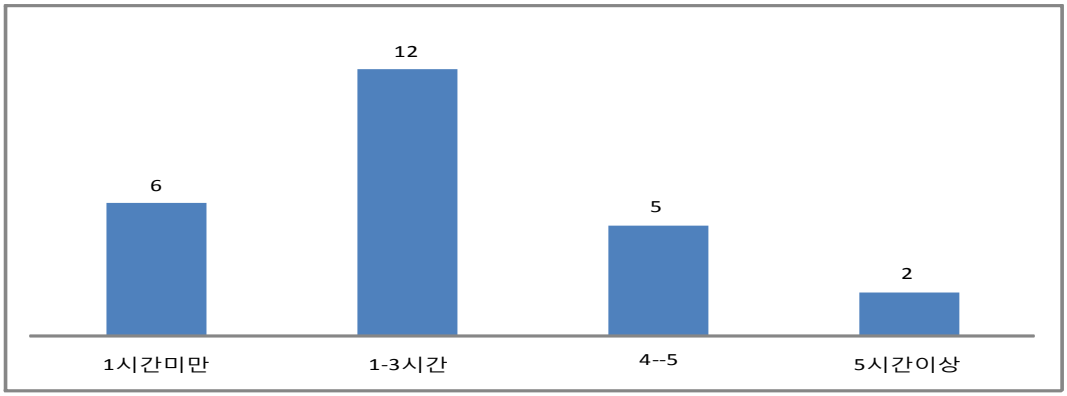
4) 진로집중반 선택이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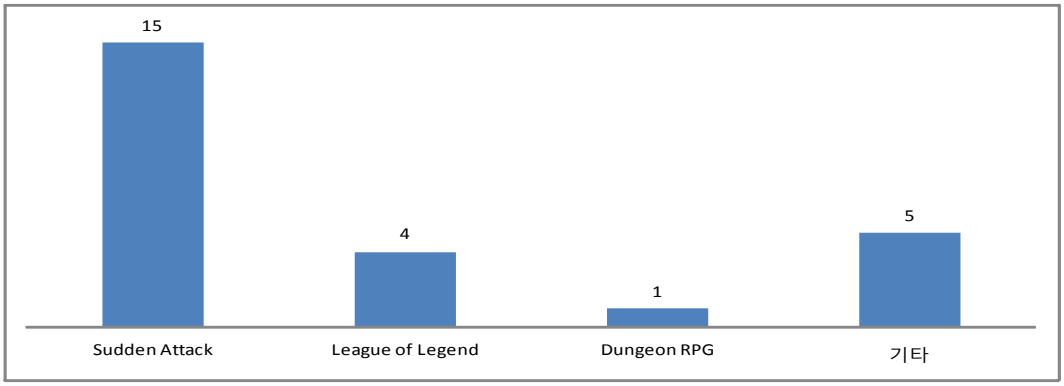
5) 진로집중반 현재 만족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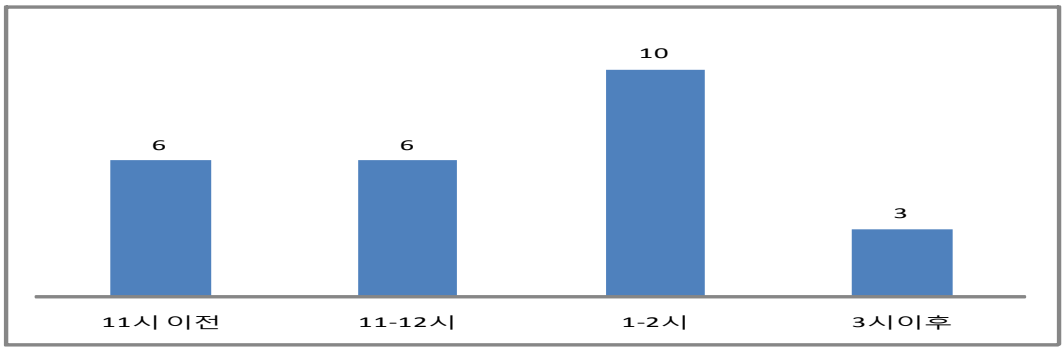
6) 현재 평일(월~목) 하루에 컴퓨터 혹은 전화기로 게임하는 평균시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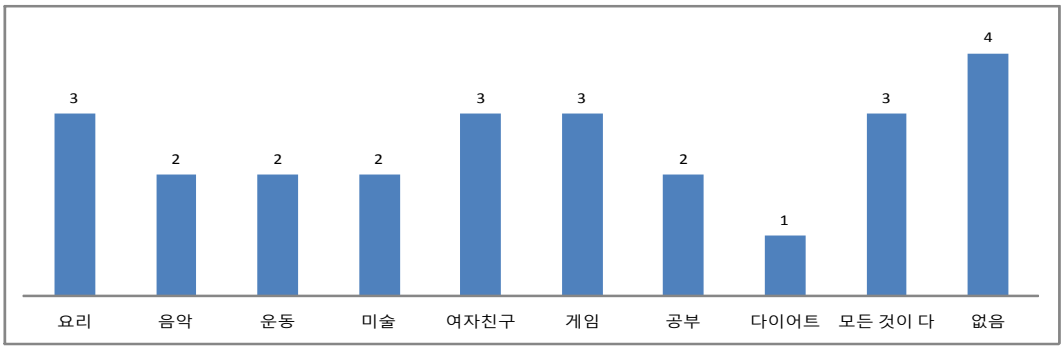
7) 게임 종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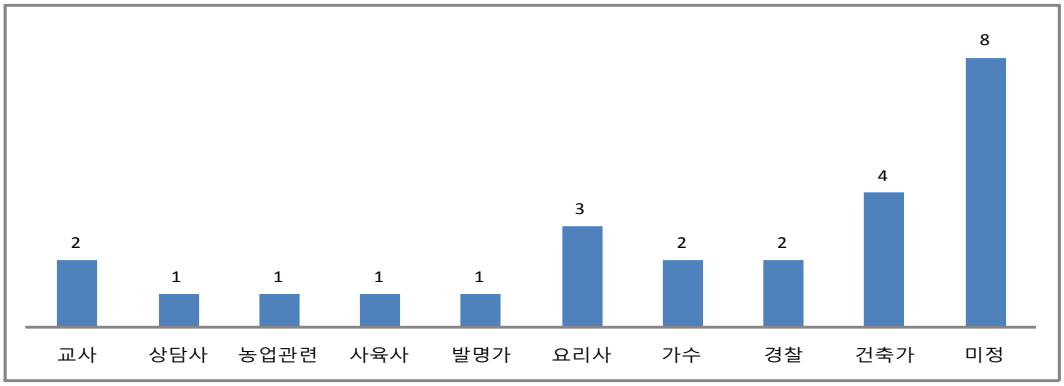
8) 취침시간



9) 요즘 주요 관심사



10) 요즘 생각하고 있는 장래희망



라. 2016년 진로집중반 (2학년) 운영 프로그램

(2015년 1학년말 진로집중반 학생들의 의견 수렴 후 긍정적인 프로그램은 계속 유지하고, 학생들이 원하는 프로그램을 추가함)

1) 2016년 1학기 시간표

	월	화	수	목	금
1	자율	문학	운동과건강	사회 · 문화	디자인공예 (미술치료)
2	경배와찬양	수학 II	운동과건강	수학 II	
3	Push Up Program	사회 · 문화	지구과학 I	영어 II	문학
4		논리학	지구과학 I	영어 II	문학
5	독서(기록)	제과 · 제빵체험 /녹색성장학습 (격주)	컴퓨터 활용능력자격 취득학습	미술창작 (미술치료)	동아리
6					
7	기타반/도예반 섹소폰반/ 목공반 중 택 1		기타반/도예반/ 섹소폰반/목공반 중 택 1	음악과진로 (합창)	
8					

* 학생 개개인 희망에 따라 결재를 득한 후 변동된 개별 시간표를 가질 수 있음

2) 2학년 진로집중반 프로그램 내용

프로그램명	담당자	대상인원 및 시간
Push Up 프로그램 (진로탐색/MBTI/ 자아개념확립 집단상담)	상담교사와 상담사	월 (3-4교시) 25명 A반(12명) B반(13명) 8회기 후 교대
푸드테러피 및 제과제빵체험학습	기술가정 교사	화 (5-8교시) A반(12명) B반(13명) 격주
녹색성장학습	과학교사	화 (5-8교시) A반(12명) B반(13명) 격주
컴퓨터활용능력 자격취득학습	교장/정보교사	수 (5-6교시) 25명
미술치료	미술교사	목(5-6교시)/금(1-2교시) 25명
음악(합창)	음악교사	목(7-8교시) 25명
독서기록	담임교사	월(5-6교시) 25명
학생선택프로그램: 도예반	도예전공강사	월(6-8교시)/수(7-8교시) 10명
학생선택프로그램: 목공반	목공전공강사/교사	월(6-8교시)/수(7-8교시) 6명 금(5-7) 5명
학생선택프로그램: 기타반	기타전공강사	월(6-8교시)/수(7-8교시) 2명 금(5-7교시) 5명
학생선택프로그램: 섹소폰앙상블반	섹소폰전공강사	월(6-8교시)/수(6-8교시) 3명
학생중심 교과별 융합 협력수업	일반교과과목교사	화 ~ 목 (1-4), 금(3-4교시) 25명
교외체험활동(사제동행 국토순례, 힐링캠프 프로그램 포함)	담임교사, 대안교실담당교사 외 2명	매월 1회 25명
청소년상담복지센터와 연계한 집단상담	상담사	8회기씩 4그룹진행
사제동행 식사 프로그램	교감, 교사	학기 중 필요학생에게 수시로
자율 연극동아리(연극이랑)	연극인/국어교사	힐링캠프시 및 국어시간 25명

마. 프로그램 세부내용 및 프로그램별 운영 기대효과

1) Push Up Program

- 내용: 자아개념확립, 자기계발, 리더십, 동기의욕 강화 훈련, MBTI 및 꿈노트 작성등을 통한 진로탐색

- 기대효과: 학생심리검사를 통해 기질별로 그룹을 형성하고 학습동기부여를 통한 집단상담과 꿈노트 수업을 함으로써 정규교과수업에 집중하여 공부할 수 있는 기반을 다지고, 자신의 잠재력을 확인하고 진로결정을 하는데 도움이 되며 자존감을 높이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음.

2) 푸드테러피 및 제과제빵체험학습

- 내용: 학생중심 교과별 융합 협력수업과 연계된 팀별 중심으로 격주로 다양한 내용의 제과제빵을 실습함과 더불어 푸드테러피도 겸함
- 기대효과: 팀별로 역할분담을 하면서 팀원 간의 우애감, 책임감 및 협동심을 키우고, 리더십도 발휘할 수 있음. 소질개발 및 특기신장의 기회가 되어 자기계발의 계기를 마련하고, 제과제빵을 완성과정을 통해 집중력 향상에 도움이 되며, 성취감과 자신감을 가질 수 있게 함

3) 녹색성장학습

- 내용: 학생중심의 주제선택활동을 통하여 환경문제와 자원고갈, 신재생에너지 분야에 대한 관심과 흥미를 가질 수 있는 학습기회를 마련하고 Green 7 활동을 전개함
- 기대효과: 교육과정 속에서 생활 · 실천중심의 녹색, 환경관련 체험활동, 신재생 에너지 및 녹색산업 관련 진로탐색의 기회를 가지며, 올바른 가치관 형성에 도움이 되고, 생활 속에서 이루어지는 에너지 및 자원절약의 습관형성과 더불어 녹색 봉사활동을 통한 올바른 인성함양을 하도록 함

4) 컴퓨터활용능력 자격취득학습

- 내용: 수준별 컴퓨터 활용능력 자격취득 한글 2010을 학습하도록 함
- 기대효과: 한글 2010의 기능을 익히고 자격취득을 위한 학습을 하는 과정에서 체계적인 지속적인 학습방법을 터득하고, 과정을 마칠 때에는 자격취득을 할 수 있어서 차후 자신의 진로나 취업과 연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5) 미술치료

- 내용: 미술수업에서 다양한 주제와 재료로 학생들이 개인작품, 협동작품(학교벽화 포함)을 완성도 있게 마치도록 함
- 기대효과: 미술치료를 목적으로 한 수업과정에서 학생들의 개인작품을 완성해 가는 과정에서 자아존중감, 자아개념확립의 기회를 가지도록 하며, 협동작품 활동을 통하여 대인관계 향상, 팀원 간의 우애감, 책임감 및 협동심을 키우고, 리더십도 발휘할 수 있음.

6) 음악(합창)

- 내용: 음악수업에서 학생중심의 곡 선택을 통한 합창활동을 하도록 함.
- 기대효과: 음악수업과정에서 학생들이 선택한 합창곡을 완성해 가는 과정에서 타인의 소리에 귀 기울이고 소리를 어우를 수 있는 기회를 가지며, 우애감, 책임감 및 협동심을 키울 수 있음.

7) 독서기록활동

- 내용: 매 월 한 권이상의 책을 읽고 내용을 토론하고 독서기록을 할 수 있도록 함.
- 기대효과: 담임교사와 함께 독서활동(읽기, 토론, 느낀 점을 쓰기, 발표하고 피드백받기, 생활기록부에 독후감을 기록하는 과정)을 함께 하면서 자기성취감을 가질 기회를 가지며, 진로선택과 진학에도 도움이 됨

8) 학생선택프로그램 (도예반, 목공반, 기타반, 섹소폰앙상블반 중)

- 내용: 학생이 도예반, 목공반, 기타반, 섹소폰앙상블반 중 학생이 희망하는 한 개반을 선택하여 실습
- 기대효과: 학생 스스로가 자신의 흥미와 재능에 적합한 과정을 선택하여 참여함으로써 자발적인 참여의지를 도출할 수 있고 더불어 작업들을 통해 내

적치유도 경험함

- 도예반: 찰흙을 가지고 작품을 만들어 가는 과정을 통하여 자신을 성찰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질 뿐만 아니라, 집중력향상에 도움이 되고, 자신의 창의력을 발견할 기회를 가지고, 완성될 때마다 성취감과 자신감을 가질 수 있음
- 목공반: 목공전문가의 지도와 배려를 통해 서로 존중하고 시간 내에 성취해내는 습관이 가질 기회를 마련. 자신이 원하는 작품을 구상하고 도안하고 완성해가는 과정에서 성취감과 자신감을 가지고, 완성도 높은 작품을 만들어내는 능력을 발견할 기회를 가지며, 직업탐색의 기회와 집중력향상에 도움이 됨.
- 기타/섹소폰앙상블반: 전문가 선생님의 도움으로 음악치료를 통해 기존에 가지고 있는 내면의 상처를 치유하고 자존감을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음. 내성적이고 자기표현에 미숙한 학생들이 기타/섹소폰연주에 관심을 가지고, 음악연주를 통해 협동심과 성취감을 가질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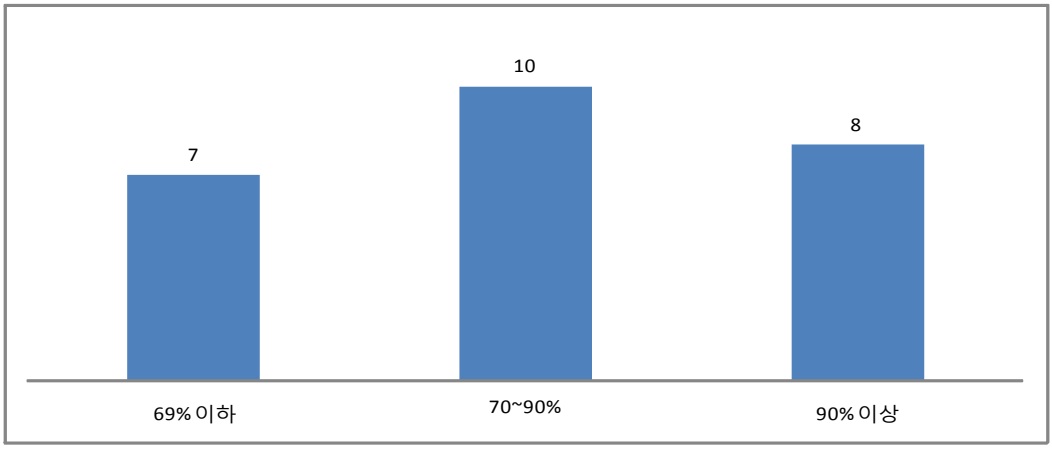
9) 학생중심 교과별 융합 협력수업

- 내용: 학생중심 교과별 융합 협력수업으로 진행되는 교과수업
- 기대효과: 4-5명의 팀별로 구성된 교과별 융합 협력수업을 통해 학생들은 팀웍을 포함한 인성함양과 더불어 교과내용이 연계됨에 따라 내용을 충분히 익히고 적극적으로 활동하면서 익힐 수 있음. 또한 학생들이 만들어 가고 그룹스터디를 하는 수업의 형태로, 학생들이 원하는 주제를 선택함으로써 책임감을 가지고 집중력과 수업태도 향상을 가지도록 함

10) 교외 체험활동 프로그램

- 내용: 월 1회 힐링캠프, 직업체험, 등산, 국토순례, 봉사활동 등 교외체험활동 제공
- 기대효과: 교실 밖에서의 교사, 학부모, 직업전문인과 함께하는 체험활동을 통하여 자아성찰의 시간과 협동심, 봉사하는 마음 등을 함양하는 계기를 가지도록 함

*** 2016년 1차 힐링캠프 (4월 7일 실시) 만족도**



11) 청소년상담복지센터와 연계한 집단상담

- 내용: 꿈드림 상담사들이 그룹상담을 학급 당 두 그룹으로 나누어 실시함
- 기대효과: 자아성장 집단상담 프로그램과 진로탐색집단상담 프로그램을 실시함으로써 자아존중감, 자기표현과 집중력 향상 및 진로탐색의 기회를 가지도록 함

12) 자율연극동아리(연극이랑)

- 내용: 힐링캠프시 전문연극인으로부터 연극의 전반에 대한 연극수업 후 문학수업시간에 교과서에 나온 문학작품으로 대본 만들기, 대본 읽기 연습 등의 활동을 하고 12월에 공연예정임
- 기대효과: 자신의 목소리를 크게 내어 자기표현을 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짐으로써 자신감 회복의 기회를 가지며, 연극무대를 만들기 위해 각자의 역할을 하는 동안 타인을 배려하는 등의 대인관계 개선에도 도움이 됨

바. 진로직업 프로그램 운영의 애로사항 및 효과적인 대안교실 운영을 위한 제안

1) 학급 구성 및 운영 문제

(부분운영제의 경우에도 학년별 한 학급으로 구성하여 최소 한 학기동안 함께 일반교과목을 포함한 프로그램을 경험하도록 한 후 적응정도에 따라 일반학급으로 재편성되는 것을 제안 - 개인별 프로그램을 운영한 학생들보다 학생들이 서로 동질감을 느끼며 빠른 변화를 보임)

- 학업중단의 위기를 겪는 학생들의 특성이 제각기 달라서 한 학급으로 구성했을 때야기되는 문제를 염려할 수 있음 (예; 과거 학교 폭력 가해자와 피해자로의 경험이 있는 학생들이 한 학급에서 마찰을 일으키고 융화되지 않는 문제를 염려)
- 해결방법 제안:

(1단계) 집단상담 프로그램운영 시 동일유형(예, 가해자 그룹과 피해자 그룹 / MBTI 결과 유사그룹 등) 학생들이 함께 치유받을 수 있는 기회를 가짐

(2단계) 유사집단 4~5명이 한 그룹이 되도록 구성하여 교과목 수업과 진로수업에서 협동수업을 할 수 있도록 함

(3단계) 힐링캠프에서 한 반이 모두 모여 활동하는 시간을 가질 때도 같은 그룹학생들이 함께 활동하도록 하면서 동시에 다른 그룹을 바라볼 수 있는 기회를 가짐

(4단계) 단체 활동을 통해 서로 배려하는 것을 배워가는 경험을 함

2) 외부강사의 학생들을 대하는 태도 문제

- 교내 교사들이 담당 할 수 없는 과목을 외부강사가 담당하면서 학생들의 자존감을 낮추는 부정적인 언어를 사용하는 경우가 발생
- 해결방법 제안: 외부강사 수업 시에 학교 교사가 함께 임장 지도
  외부강사들의 학생들에 대한 마인드 전환을 할 수 있는 교육포함

3) 재정상황으로 인한 다양한 프로그램의 부재

- 대안교실 수업을 받아야 하는 학생의 수가 많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위해 외부강사가 필요하나 강사료를 충분히 지불할 수 없는 문제 발생
- 해결방법 제안: 외부 협력기관의 협조받음/ 학교 교사의 특기를 프로그램에 활용/ 학교내 유사사업 프로그램과 연계

부록 : 진로집중반 학생중심 교과별 융합수업의 예

가. 학생중심 교과별 융합수업이란

학생들이 관심을 가질 수 있는 내용을 중심으로 교과목간 상호연관된 주제를 선택하여 협력수업으로 진행되는 교과수업

나. 교과별 융합수업을 위한 모둠 구성

(1) 2015년 2학기 진로집중반 융합수업을 위한 협력학습 모둠구성은 학생들이 함께 하고 싶은 사람과 모둠이 되도록 유도하고 전교과시간에 모든 교사가 같은 모둠으로 협력학습 모둠수업을 할 수 있도록 하였음 (5개 모둠조로 조 이름도 조원들이 정하도록 함:벌새(Hummingbird)/금수강산(the land of natural beauty)/사냥개(Hunting dog)/파이팅 (Go!)/무석조(Team Museok) - 영어시간을 배려하여 한글로 된 조이름을 영어로 함께 표기함)

(2) 2016년 1학기 현재는 2015년 2학기에 구성된 협력학습 모둠에서 학생들의 MBTI 성향을 배려하여 약간의 조절을 하여 4개 모둠으로 구성

다. 각 교과 융합수업을 예

(1) 커피를 주제로 한 학습 (5개교과목 선생님들이 같은 시기에 수업을 진행)

- 맛있는 커피를 끓이기 위한 커피의 양, 물 등을 그래프로 그리고 계산하는 수학수업
- 커피를 이용한 미술치료학습
- 커피로 빵을 만드는 기술가정수업
- 커피역사에 관련된 글을 읽고 요약하는 국어수업

- 커피역사에 관련된 글을 영어로 듣고 익히는 영어수업 혹은 커피로 모카번 만들기를 영어로 바꿔보는 수업

(2) 필통을 만드는 기술가정 수업과 연계한 영어수업

(3) 미술작품 활동수업과 연계한 영어수업

라. 융합수업을 위한 교사모임

학교 내 대안교실 담당자와 진로집중반 수업을 담당하는 담당과목교사들이 함께 모여 진로집중반 학생들로부터 수렴한 의견을 제안하고 공통된 주제로 할 수 있는 수업안을 토의함. 가능하면 모든 과목이 함께 할 수 있는 주제로 가도록 하지만, 여의치 않을 경우에는 두과목 교사가 융합하여 할 수 있는 주제도 가능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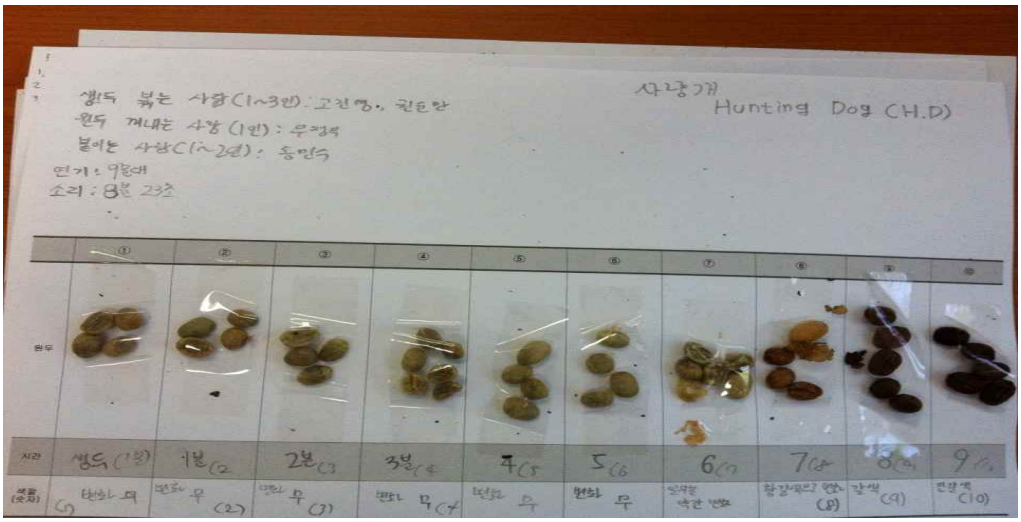
마. 융합수업의 결과

4-5명의 팀별로 구성된 교과별 융합 협력수업을 통해 학생들은 팀웍을 포함한 인성함양과 더불어 교과내용이 연계됨에 따라 내용을 충분히 익히고 적극적으로 활동하면서 익힐 수 있었음. 또한 학생들이 만들어 가고 그룹스터디를 하는 수업의 형태로, 학생들이 원하는 주제를 선택함으로써 책임감을 가지고 집중력과 수업태도가 많이 좋아짐. (예; 미술작품을 완성도가 50%에서 97%로 늘음)

사례1. 커피를 주제로 한 교과 융합수업

① 기술가정시간 – 커피빵(모카번) 만들기

② 수학시간 – 맛있는 커피를 만들기 위한 수학적 접근



③ 미술시간 – 커피원두를 이용한 그림그리기

1주차 – 명화작품 선택하기, 스케치하기, 명암표현지도 등

2주차 – 덧칠(양감 및 입체감 표현), 작품 수정 및 마무리 등

3,4주차 – 커피를 이용한 미술작품을 완성해 본 경험 후 컬러링북을 활용한 컬러테라피

사례2. 융합 협력수업: 제과제빵

▶ 인성교육 중심 수업: 학생중심 교과별 융합 협력수업(제과제빵체험학습)

목차	내용	
제 목	더블쵸콜릿머핀 만들기	
학습목표	각 재료의 특성을 알고, 재료를 이용해 버터롤을 만들 수 있다.	
관련성취기준	기가0122. 개인과 가족 구성원의 소비 생활, 의생활, 식생 활, 주생활 등의 가정생활은 타인 및 이웃가족과 함께 살아가는 생활임을 인식하여, 가정생활 에서 배려와 나눔을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실천 방안을 탐색하여 실생활에 적용할 수 있다.	
인성교육관련협력학습방법	실천학습 - 조별 활동을 통해 개인의 역할을 확실히 분담하고, 개인이 아닌 협력을 통해 결과물을 만들어 낼 수 있다.	
학습내용	교시	세부내용
	1	– 주의 환기시키고 학생들 집중시키기, 실습할 요리와 그 특징 설명하기 – 실습할 요리 설명하기(재료 설명, 만드는 과정 설명, 과정 중 특별히

		주의해야 할 부분에 대해 설명하기) – 재료 계량하기
	2	- 버터 거품기로 풀어주고, 소금 넣고 크림상태로 만들기 - 계란 넣으면서 계속 크림상태유지하도록 거품기로 치기 - 마른 재료 채쳐서 위의 반중에 섞은 후, 물을 넣고 반죽후 쵸콜릿섞기 - 머핀종이깔고 반죽 넣기
	3	- 오븐 온도 윗불175℃/아랫불170℃ 맞추고, 굽기 - 구워지는 동안 설거지 및 뒷정리 - 구워진 작품 평가 및 시식, 활동에 대한 소감 나누기
학습지도 후 교사의견	제과제빵에 대한 기본 지식과 기술이 없다보니 개개인 지도가 필요하고, 그렇게 수업을 진행하기엔 학생인원이 조금 많은 편이다. 실기 수업을 실시하다보니 학생들의 참여는 아주 높은 편이이나. 아직 팀원사이 역할분담대로 잘 이루어지지는 않고 있다.	
관련자료		

▶ 인성교육 중심 수업: 학생중심 교과별 융합 협력수업(영어)

목차	**내용**	
일 시	2015 년 8 월 20 일 1, 2교시	
제 목	Double Chocolate Muffine	
학습목표	Double Chocolate Muffine Recipe와 Ingredients가 있는 영어문장을 바로 읽고 요리하는 내용절차를 이해할 수 있다.	
관련성취기준	영고25321-1. 일반적 주제에 관해 설명하는 글을 읽고 세부 내용을 파악할 수 있다.	
인성교육관련협력학습방법	조별 협력수업으로 Double Chocolate Muffine Recipe와 Ingredients의 내용을 함께 파악하고 읽기 연습을 할 때 서로 배려하고 협력하여 돕는 것에 익숙하도록 한다.	
학습내용	**교시**	**세부 내용**
	1	1) Lead-in 기술가정시간에 만들어 본 Double Chocolate Muffine의 재료와 양을 조별로 화이트보드에 적어보도록 한다. (제일 많이 정확하게 적은 조에 점수부여를 함으로써 다른 수업시간의 내용을 잘 기억하도록 유도함이 목적임)

<table>
<tr><td rowspan="2"></td><td></td><td>Double Chocolate Muffine의 재료와 양을 영어로 생각해 보도록 함 (조별로 적어보도록 함)
2) Reading Time
Handout을 나눠주고 원어민이 녹음한 파일을 들으면서 정확하게 읽기를 시도한다. 조별 읽기 시간을 주어 충분히 읽기 연습이 되도록 한다. (교사는 조별학생들이 원할 때 도움을 주면서 조별 연습이 잘 되고 있는지 확인한다.)
충분히 연습이 끝난 조는 함께 소리내어 읽는 것을 교사에게 검사받도록 한다.</td></tr>
<tr><td>2</td><td>3) Comprehension Time
조별 읽기 검사가 끝난 조는 전자사전을 이용하여 baking에 관련된 주요 단어 (add, beat, texture, sift, dehydrated, insert, paper liners, batter, bake, Celsius, degrees, etc.) 의 의미를 찾아 문장의 의미파악을 하도록 한다.
모든 조의 읽기가 끝난 후 먼저 문장의 의미파악이 끝난 조의 발표를 통하여 함께 의미파악을 하는 시간을 갖는다.
4) Game Time
8개의 sentence를 나누어서 섞은 다음 조별 게임으로 학생들이 Double Chocolate Muffine 만드는 순서를 올바르게 기억하는 게임을 진행한다.
5) Wrap-up
다음 주에 읽기 시험을 보는 것을 미리 알려줌</td></tr>
<tr><td>학습지도 후 교사의견</td><td colspan="2">다섯 개 조로 구성된 학생들이 서로 협력하여 빵의 재료를 말하고, 읽기를 하려는 노력이 눈에 보였다. 문장을 잘 읽지 못하는 학생들에게 한글로 써서라도 읽게 하는 것을 도와줌으로써 모두 조별 협력수업에 참여하도록 할 수 있었다.</td></tr>
<tr><td>관련자료</td><td colspan="2">Double Chocolate Muffine handout
(제과제빵시간에 활용한 레시피를 영어교사가 영어로 만들어 원어민의 도움으로 녹음)

Double Chocolate Muffin Recipe

Ingredients
500g Cake Flour / 280g Sugar / 300g Butter / 300g Eggs (3 Eggs) / 5g Salt
2g Baking Soda / 8g Baking Powder / 60g Cocoa Powder / 170g Water
30g Fat-Free Dehydrated Milk / 150g Chocolate Chip

Directions
1) Put butter in bowl then beat it.
2) Add sugar and salt to the bowl and beat it until the texture becomes creamy.
3) Add eggs one at a time, beating in between to mix thoroughly and to keep the creamy texture.
4) Sift in the dry ingredients (Flour, Cocoa Powder, Baking Powder, Baking Soda, and Dehydrated Milk).
5) Add water and mix.
6) Add 100g of chocolate chips to batter, then mix.
7) Insert paper liners into muffin pan and fill them halfway with the batter. Then, add 50g of Chocolate Chips to top.
8) Bake for 25 minutes. (Upper heat set to 175oC, lower heat set to 170oC)</td></tr>
</table>

사례3. 융합 협력수업: 연극(미술+국어문학+연극동아리)

① 미술시간 – 탈 디자인 및 색칠

② 국어시간 – 문학교과서의 사씨남정기를 연극동아리용 대본으로 바꿈

Scene 3.

납매: (교씨에게) 방금 추향에게 들으니 부인께서 **회임**을 하셨다 합니다.

(해설자: **회임**이란 임신을 의미합니다.)

교씨: (깜짝놀라며) 십 년이나 지난 후에 비로소 잉태한다는 것은 세상에 드문 일이다. 혹시 **월사**가 불순한 것은 아니겠느냐?

(해설자: **월사**란 월경을 의미합니다.)

교씨: (생각하는 소리) 저 사람이 만일 아들이라도 낳기라도 한다면 나는 자연 무색할 뿐일 것인데.....

서술자: 교씨는 계책 또한 마땅히 쓸 것이 없었고, 한 두달이 지나면서 사 부인의 **태기**가 확실하게 나타났지 말입니다. 온 집안의 사람들은 모두 기뻐했으나 교씨만은 홀로 **앙앙불락**했지 말입니다.

(해설자: **태기**란 아이를 밴 기미를 의미합니다. **앙앙불락**이란 매우 마음에 차지 아니하거나 야속하게 여겨 즐거워하지 아니함을 뜻합니다.)

서술자: 저런저런, 교씨는 납매와 함께 은밀하게 음모를 꾸미고 마침내 낙태하게 만드는 약을 사서 사 부인이 복용하는 약 속에 몰래 섞어 놓았지 말입니다. 그러나 사 부인은 그 약을 마시자마자 구역질을 하여 그대로 토해버렸지말입니다. 교씨의 계책은 실패지 말입니다. 사 부인은 달이 차차 남아를 나았는데, 골격이 비상하고 **신채**가 **영매**하였지 말입니다.

(해설자: **신채**란 정신과 풍채를 아울러 이르는 말입니다. **영매하였다**는 성질이 영리하고 비범하였다는 의미입니다.)

한림: (크게 기뻐하며) 아이의 이름은 인아라 하구려.

서술자: 교씨는 **화심**을 품고 있었으나 그 뜻을 이룰 수는 없었지 말입니다.

사례3. 미술시간 팝아트와 연계한 영어수업자료

① 미술시간 - 팝아트

학생들이 미술시간에 나무목판위에 팝아트기법으로 작품을 만든다.

② 영어시간 – 팝아트 관련 지문 활용

Pop Art

① Pop Art is a form of art that depicts objects or scenes from everyday life and employs techniques of commercial art and popular illustration.

② Pop artists created pieces using iconic subjects, such as famous people, advertisement, and movies.

③ One of the most notable pop artists was Andy Warhol (1928-1987).

④ Warhol's most famous paintings were Campbell's Soup Cans and a portrait of

Marilyn Monroe.

⑤ Another notable pop artist was Roy Lichtenstein (1923-1997).

⑥ Lichtenstein's art centered around using comic strips.

⑦ In 1962, the world's first public exhibition of Pop Art was held at the Pasadena Art Museum.

⑧ The exhibition showed the works of artists including Jim Dine, Roy Lichtenstein, Andy Warhol, Robert Dowd, Phillip Hefferton, Joe Goode, Edward Ruscha, and Wayne Thiebaud.

부 록

- 학업중단예방 및 대안교육지원센터 자료 -

학업중단예방 및 대안교육지원센터 자료
Homepage: www.gotoschool.re.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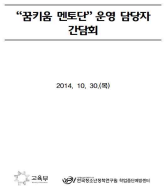
◎ 발행 자료

○ 자료실 〉 통합자료실

– 학업중단 예방 교원연수

자료명		주요 내용	발행일
	2014년 제1회 학업중단 예방을 위한 교원 집중 연수	– 학업중단학생 실태, 지원 및 연계 방안 – 학업중단 예방 및 대안교실 운영 사례 – 학업중단 위기학생 상담기법	2014.02.03
	2014년 제2회 학업중단예방 교원연수 (7개 권역 실시)	– 학업중단 및 학교 밖 청소년의 실태와 대응 방향 – 학업중단 숙려제 도입배경 – 학업중단 위기 과정에 따른 상담기법 – 학업중단 예방 운영 사례	2014.08.06
	2015년 제1회 학업중단예방 교원연수 (4개 권역 실시)	– 학교별 학업중단 위기학생 지원계획 – 학업중단 위기학생 지원사업의 이해 (학업중단 숙려제, 대안교실, 교복우 사업) – 학업중단 위기원인별 지원 프로그램 운영 · 연계 사례	2015.02.16
	2015년 제2회 학업중단예방 교원연수	– 학교별 학업중단 위기학생 지원계획 – 학업중단 위기학생 지원사업의 이해 (학업중단 숙려제, 대안교실, 교복우 사업) – 학업중단 위기원인별 지원 프로그램 운영 · 연계 사례	2015.07.28
	2016년 학업중단예방 집중지원학교 교원연수 (4개 권역 실시)	– 학업중단 위기학생 지원사업의 이해 (학업중단 숙려제, 대안교실, 꿈키움멘토링) – 학업중단 예방 집중지원학교 운영 사례 – 학업중단예방 프로그램 개발 –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정책	2016.02.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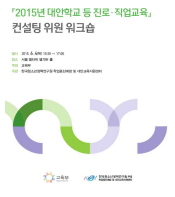
– 꿈키움 멘토단

자료명		주요 내용	발행일
	꿈키움멘토단 운영 담당자 연수	– 꿈키움 멘토단 운영 지원 방안 – 청소년 멘토링의 이해와 운영자의 역할 – 멘토링 사업 기획과 운영방안	2014.05.27
	꿈키움 멘토 수첩	– 멘토링 성공을 위한 가이드라인 소개 – 멘토링 상담 · 활동 · 튜터 · 면담일지, 멘토링 운영 활동계획서	2014.05.27
	꿈키움 멘토단 운영 담당자 간담회	– [전문가특강] 학업중단 청소년과 멘토링 – [사례 발표] '제주도 꿈키움 멘토링'	2014.10.30
	2015년 꿈키움 멘토단 운영 담당자 연수	– 2015년 학업중단 예방 대책 추진 계획 – 꿈키움 멘토링과 관리자의 역할 – 꿈키움 멘토단 운영 사례	2015.05.20
	꿈키움 멘토링 매뉴얼	– 꿈키움 멘토링의 개요 – 학업중단 위기청소년에 대한 이해 – 멘토링의 실제: 운영절차 및 학교 · 지역 사회와 관계 맺기 – 멘토를 위한 지침 – 꿈키움 멘토링 사례	2016.0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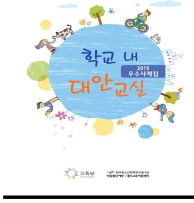
– 학교 내 대안교실 운영매뉴얼

자료명		주요 내용	발행일
	학교 내 대안교실 운영매뉴얼	– 대안교실의 이해 – 대안교실 운영 가이드 – 대안교실 프로그램 모형 – 학교 별 특성 (10개 학교 사례)	2016.03.0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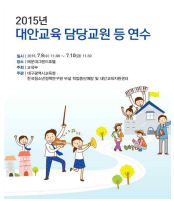
– 워크숍 자료집

자료명		주요 내용	발행일
	2015년 학업중단 예방 집중지원학교 컨설팅 위원 워크숍	– 학업중단 숙려제, 대안교실, 교복우사업 제도 소개 – 학업중단 예방 집중지원학교 컨설팅 중점사항 및 실무안내	2015.04.16
	2015년 학교 내 대안교실 컨설팅 위원 워크숍	– 학교 내 대안교실 추진계획 및 컨설팅 사업 소개 – 학교 내 대안교실 우수사례	2015.04.28
	2015년 대안학교 등 진로 · 직업교육 컨설팅 위원 워크숍	– 대안학교 진로 · 직업교육의 필요성 및 영역(프로그램 설계, 동기유발, 직로직업 심리검사, 대학진학 · 비진학자 경력개발 지역사회 자원 연계) 이해 – 대안학교 등 진로 · 직업교육 컨설팅 내용 및 실무안내	2015.06.04
	2015년 학업중단 예방 집중지원학교 교장 워크숍 (3개 권역 실시)	– 2015년 학업중단 예방 사업 소개 – 학업중단 위기 학생의 이해와 멘토링을 위한 지원 방법 – 학업중단 예방 집중지원학교 운영사례 – 해외의 학업중단 예방 대책	2015.07.3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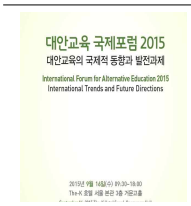
– 우수사례 공모전

자료명		주요 내용	발행일
	2014년 학업중단예방 우수사례 공모전 수상작품집	– 교원부문 25개, 학생부문 5개 사례	2015.04.16
	2015년 학교 내 대안교실 우수사례집	– 초등학교 6개, 중학교 13개, 고등학교 11개 사례	2016.03.0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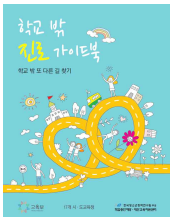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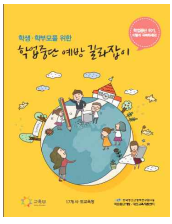
– 대안교육 교원/담당자 연수

자료명		주요 내용	발행일
	2014년 대안교육 담당교원 전문성 제고 연수	– [심리특강] 청소년 비행의 실태와 대안, 대안교육 톺아보기 – [진로교육특강] 웃음을 활용한 진로지도, SCEP 진로교육 프로그램 – [리더십특강] 꿈과 감성을 일깨우는 리더십 – 대안교육 모범프로그램(영산 성지고)	2014.08.22
	2015년 학교 내 대안교실 담당자 연수 (4개 권역 실시)	– 2015년 학교 내 대안교실 정책의 이해 – 대안교실 구성방안 및 프로그램 개발 – 대안교실 운영 사례	2015.05.22
	2015년 대안교육 담당교원 등 연수	– 동기회복법: 청소년 무기력의 원인과 해결책 및 동기회복 프로그램 – 창의적 진로개발(학교진로교육프로그램의 이해와 활용, 청소년 기업가정신) – 진로지도 사례 – 대안학교 대입진학지도	2015.07.07
	2016년 학교 내 대안교실 관리자 연수 (4개 권역 실시)	– 학교 내 대안교실 정책의 이해 – 대안교실의 성공적인 운영 전략 – 대안교실 운영사례	2016.01.22

– 국제포럼

자료명		주요 내용	발행일
	2014년 대안교육 국제포럼	– 영국, 미국, 독일, 덴마크 등 대안교육 발전 동향 및 정책현황 – 샌즈스쿨(영국), 메트스쿨(미국), 발도르프 학교(독일), 헤스테하베 자유학교(덴마크), 이우학교(한국) 등 대안교육 사례	2014.09.25
	2015년 대안교육 국제포럼	– 독일, 호주, 덴마크 대안교육의 국제적 동향 – 생산적 학습(독일), 핸즈온 러닝(호주), 곤잘로 가르자 독립학교(미국), 빅피처 러닝(미국), 프레네 교육(프랑스), 프리젠보그 에프터스콜레(덴마크) 등 대안교육 사례	2015.09.16

○ **자료실 〉 학업중단대책매뉴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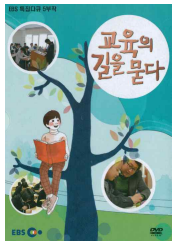
자료명		주요 내용	발행일
	학업중단 숙려제 매뉴얼(교사용)	– 학업중단 현황 및 학교 밖 청소년 실태 – 학업중단 위기 학생 조기 발견 방안 – 학업중단 숙려제 도입배경 및 단계별 운영방법 – 학업중단 예방 프로그램 운영사례 등	2015.02.27
	학업중단 숙려제 운영기관	– 17개 시도별 학업중단 숙려제 운영기관 목록	2015.02.27
	학교 밖 진로 가이드북	– 학교 밖 상담 · 학업 · 취업 및 진로 · 경제적 지원 안내 및 관련 기관 소개	2015.08.25
	학업중단 예방 길라잡이	– 학업중단 예방을 위해 학업중단 위기 대처 방안, 관련 정책 및 위기 극복 사례 소개	2016.1

○ **알림공간 〉 학업중단을 고민하고 있나요?**

자료명		주요 내용	발행일
	학업중단 예방 리플릿	– 학업중단숙려제 · 학생지원 · 예방체제와 대안교육에 대한 소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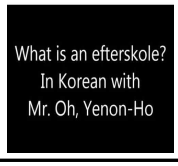
◎ 영상 콘텐츠

○ 자료실 〉 영상콘텐츠

"교육의 길을 묻다" (EBS)			
자료명		주요 내용	방영시간
	1부 대안교육, 다시 대안을 찾다	– 밀알 두레학교, 간디 자유학교, 덴마크 자유학교, 독일 발도르프 학교 등 국내 · 외 대안학교 장 · 단점	44'57"
	2부 거리에서 헤매는 학교 밖 아이들	– 학교 밖 청소년의 생활 실태(가출, 비행 등) – 학교 밖 청소년 포용 방안 모색	47'56"
	3부 변화? 힘들지만 두렵지 않다	– 두드림청소년회복센터, 샘물의 집, 경북청소년진흥원 등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지역사회 지원 사례 –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해 가정과 학교가 양립한 일본 오사카부립 슈토쿠 학원 사례	46'42"
	4부 기로에 선 학교 부적응 아이들	– 재미있는 학교 만들기를 위한 종암중학교의 신바람 대안교실 프로그램 사례 – 학업중단 숙려제, 학업복귀 프로그램 등 학교와 지역사회 연계 활동 사례	48'05"
	5부 평생교육을 실현하는 교육복지	– 농어촌 교육환경을 극복한 군포중, 속리산중 소개 – 다문화를 위한 교육복지 프로그램	48'35"

"대안교육을 돌아보다" (SBS)			
자료명		주요 내용	방영시간
	1부 대안학교의 현실	– 태봉고, 서울실용음악고, 다인학교 등 국내 대안학교의 특징과 덴마크 대안교육의 제도 소개	56'
	2부 대안학교의 미래	– 태봉고, 서울실용음악고의 대안학교 운영사례 – 덴마크(니스테드 애프터스콜레), 프랑스(프레네 교육) 등 해외 대안교육의 제도 소개 및 우수사례	50'
	1부 대안학교 문제 사례	– 미인가 대안학교의 문제점 등 국내 대안교육의 실체	14'28"
	2부 국내 대안학교 우수사례	– 태봉고, 서울실용음악고의 대안학교 우수사례 – 공릭학교(웅상중) 대안교실 우수사례	12'24"
	3부 국외 대안학교 우수사례	– 덴마크, 프랑스 등 국외 대안학교 운영 우수사례	16'57"

“우리는 두 번째 학교에 간다” (KBS)			
자료명		주요 내용	방영시간
	1부 경계에 선 아이들	– 학업중단 청소년이 학교를 그만둔 계기와, 현재 학업중단과 복교 사이에서 고민하는 청소년들의 이야기	56’55”
	2부 세상을 향해 외치다	– 좌절과 소외 속에 살아가는 학업중단 청소년들이 연극치료를 통해 상처를 치유해가는 과정	56’07”
	1부 SOS 학교 밖 아이들	– 청소년들이 학교를 떠날 수밖에 없는 이유와 학업중단 원인별 학생들의 이야기	11’07”
	2부 벼랑 끝에서 만난 두 번째 학교	– 서울시 친구랑센터, 서울시립청소년드림센터 등 학업중단 청소년을 위한 위탁교육기관 성공사례 – 학업중단 숙려제, 대안교실 등 학업중단 예방 제도	11’27”
	3부 학업중단자를 위한 세계의 학교	– 일본 프리스쿨 도쿄슈레, 덴마크 애프터스쿨, 미국 빅피쳐스쿨 등 국외 대안학교 우수 프로그램	11’43”

2015 국제포럼			
자료명		주요 내용	시간
	덴마크 프리젠보그 에프터스콜레 소개	덴마크 프리젠보그 에프터스콜레 학생들이 직접 자신들의 학교를 소개하기 위해 제작한 동영상. 프리젠보그 에프터스콜레 학생들의 일과와 다양한 활동을 소개	1’47”
	미국 곤잘로가르자 독립고등학교 소개	곤잘로가르자 학교는 위기학생의 수행성과를 효과적으로 향상시키는 학교 중 하나로 선정되어 대안교육 프로그램으로 변화된 학생들의 이야기	7’01”
	Hands On Learning	국내의 ‘학교 내 대안교실’과 비슷한 해외사례. 팀 프로젝트, 목공, 집짓기 등 다양한 노작활동 중심의 활동 학습으로 학업중단위기학생들이 친구들과 함께 또는 스스로 성공경험을 쌓아가며 성취감과 자신감을 습득하며 변화된 학생들의 이야기	4’49”
	덴마크 에프터스콜레 홍보 (애니매이션)	덴마크 청소년들의 인격형성에 중요한 영향을 주는 기숙학교인 에프터스콜레에 대해 애니매이션으로 소개하는 영상	2’36”
	덴마크 에프터스콜레 홍보(국문)	덴마크 에프터스콜레에 대한 간단한 소개 영상	58”

연수자료집 16-S17

『2016년 학교 내 대안교실』 담당자 연수

인 쇄 : 2016년 5월 13일
발 행 : 2016년 5월 13일
발행처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70
세종국책연구단지 사회정책동
발행인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장 노혁
인쇄처 : (주)계문사(02-725-5216)

※ 사전 승인 없이 보고서 내용의 무단전재 및 복재를 금함.